기존 동전기와보다 10배나 두꺼운 동주물기와는
한번 시공으로 300년 이상 연장합니다
대원동주물기와 ☎(02)739-8745/735-2344

현대불교

55. 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연금신탁
가입문의: 080-023-4000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4월 12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나쁜 마음은 자신에게로
되돌아 온다
(축경)

법회 안내

불광사 (02)413-6060
유아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중·고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일반신도법회 일 오전10시30분
청년부법회 매주 토 오후4시
호법남완법회 매월 첫째 수 오전10시30분
구도장진법회 매월 셋째 토 오후8시30분

성심사 (02)602-0174
일반법회 매월 3일(음)
신도법회 매월 15일(음)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학생부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봉원사 (02)392-3007
일반신도법회 매월 1일(음)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청년부법회 매주 토 오후7시

소림정사 (02)611-6210
불교교리강좌 매주 금 오전11시

부천 석왕사 (032)663-7771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 고등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청년부법회 매주 토 오후7시
가족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법륜회(부천시운전불자법회) 매월 첫째, 셋째 화 오전10시

화성 용주사 (0331)34-0040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중, 고등법회 매주 일 오후3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가족법회 둘째, 넷째 일 오후3시

정주 대원사 (0681)535-2620
일반법회 매월 8일(음)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학생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청주 보문정사 (0431)64-1718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거사림법회 둘째 토 오후3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은행지로
3054464

'꺼지지 않는 연등' 밝히자

'용서·통일·생명의 등 달기' 범불교 확산

세찬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등불.

부처님 제자라면 누구나 부처님 재세시에 있었던 '빈녀일등'의 고사를 잘 기억하고 있다. 빈녀일등처럼 밤이 깊어 갈수록 오히려 그 영롱함이 더해가는 등불을 밝히려는 마음들이 잔잔히 번지고 있다.

지난 92년부터 자비의 등 밝히기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는 '우리는 선우(공동대표 남지심 박광서)'는 기존의 축복·감사·애정·용서·배려·관심·인연·풍일의 등에 덧붙여 생명의 등과 중흥의 등 등 올해 10가지의 자비등을 밝힌다. 특히 '우리는 선우'에서는 봉은사 한마음선원 보타사 등 각 사찰에 공문을 보내 10등중 한개는 자비의 등으로 달아 줄것을 당부해 자비등 밝히기를 범불교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다양한 봉축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봉축위원회는 단순한 등달기·제등행렬에서 한차원 높여 △통일기원 연등 달기 △소외, 고통받는 곳에 보시하고 연등 달아주기 △기아 퇴치, 전쟁종식을 기원하는 자비의 등 밝히기 등을 실천강령으로 내걸고 있다. 봉축위는 연등의 의미를 한층더 되새기기 위해 '생일등의 사회화'를 추진하기 위한 '장애인 자선 큰 잔치' '외국인 노동자 법회' 등 이웃을 위한 10건의 자비행사를 마련해 놓고 있다.

혜광맹인불자회(회장 김부봉)는 시각장애인전용 법당 마련 장애인 연등달기, 불교자원봉사연합회와 불교인권위원회도 각각 봉사의 등과 인권 연등을 마련, 풍창을 호소하고 있다.

천태종은 총본산 구인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5월6일까지 한달간 양노원·고아원·교도소·구치소 방문 행사를 벌인다. 또한 부산불교연합회등 각 사암연합회와 사찰 주최로 1신도회 1복지시설 자매결연맺기, 일선 장병위문, 청소년 가장돕기, 재소자 수계법회 등도 계획되고 있다.

성태용교수(우리는 선우 상임이사)는 "연등을 밝히는 일은 단순한 구복이 아니라 개달음을 향한 자비를 닦는 일이며 등공양 역시 초파일때만이 아니라 365일 남을 위한 사랑과 자비의 실천행으로 승화돼야 합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내가족' 만을 위하거나 의례적·과시용 燈 달기에서 벗어나 소외된 이웃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등불사를 적극 선용하려는, 자비燈과 그 실천행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부처님 오시는 길은 더욱 환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경숙 기자〉

온누리를 부처님 빛으로

불기 2539년 봉축표어 "온누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세상이지만 부처님은 하나이듯 우리는 모두 부처님의 아들딸입니다. 세상에는 부처님이 없다면 어두움이 가득하지만 부처님이 계시면 밝은 다음에 서기 전법의 아침을 열립니다."



교육부 편파 행정 비난 성명

불민협·인권위등…검정고시 제날짜 시행 촉구

검정고시 일자변경과 관련해 불교계 각 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졸속행정을 맹렬히 비난했다.

불교시민단체협의회(상일대표 법타스님)는 지난 6일 오전11시 평불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졸속교육행정과 특정종교 집단이기주의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불민협은 성명을 통해 "특정 종교집단의 요구에 의해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좌우된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정해진 일자에 검정고시를 실시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조계종 교육원, 불교인권위원회, 진불련, 참법구현불교도협의회와 부산불교교육원 등 각 단체들도 각각 지난 4일과 6일 성명을 통해 수험생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특정종교집단의 주장을 수용한 교육부의 처사를 강력히 비난하고 이에 대한 공식사과와 시정을 촉구했다.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2월 7일 검정고시 시험시행일을 4월 16일로 확정 공고했으나 이날이 부활절과 겹친다는 한국복음주의협의회 등 기독교 단체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시험일자를 5월5일로 변경 발표했었다.

〈관련기사 2면〉

목어

"당신은 당신의 가족 모두를 알고 있습니까.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야 당신은 인도나 다른 지역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생각해도 좋습니다"

7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85)의 일일 묵상집 〈사랑은 철따라 열매를 맺나니〉에 나오는 구절이다.

가족끼리의 '사랑나눔'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그는 또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들을 '왕중의 왕'처럼 따뜻한 손길로 받들라고 호소한다. 쓰고 남은 것을 줄 것이 아니라 희생적으로 절약한 것을 나누어 주자는 가르침도 전하고 있다.

종교는 다르지만 테레사 수녀의 묵상 기도문에서는 큰스님들의 법어와 같은 향기가 풍긴다. 성철스님은 말씀하셨다. 이웃을 부처님으로 섬기라고.

다른 원로스님들도 한결같이 이웃을 돕는 일은 자기 복밭을 가꾸는 일이니 내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라고 일러주신다. 이같은 가르침은 부처님말씀에 뿌리를 둔다.

테레사 수녀와 보시 바라밀

'보살은 병든 이에게는 의사, 어둔 밤에는 등불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재물을 얻게 한다. 보살은 일체중생을 평등하고 이롭게 한다. 남을 이롭게 하면서도 보살은 베푼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 보시하는 물건도 복밭도 업도 과보도 그 결과도 보지 않는다' 화엄경에 있는 말씀이다.

아무리 수승한 가르침을 알고 있어도 행(行)이 없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바디긁은 손으로 합장하는 테레사 수녀의 기도문이 가슴에 와 닿는 이유는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4월은 부처님오신날 봉축의 달이다.

보시바라밀의 의미를 여느 때보다 한번더 생각해야 할 것만 같다.

"불심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봄철 피부미용 강좌 안내

제2회 현대불교문화강좌, 14일 개최

현대불교신문이 여성불자님들의 봄철 피부관리를 도와드립니다. 건조한 계절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 가꾸기 방법이 실습과 이론을 중심으로 쉽게 돈독한 부부미용전문가에 의해 강의됩니다. 많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강좌 안내

- 강 사 : 이성법(이성법 미용실 원장) · 이화자(메이크업 전문가)부부.
- 일 시 : 1995년 4월 14일(금) 오후 3시
- 장 소 : 한마음불교회관 지하 녹수정산

참가 안내

- 주차시설 부족, 대중교통이용 바랍니다.
- 선착순 1백50명에 한합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주)태평양이 제공하는 설록차와 수입 연화화가 제작한 장식용 봉축연꽃을 드립니다.
- 회비는 3천원.
- 문의처: 722-4162, 737-8881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번지 한마음 불교회관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 (주) 태평양

지상법석 석주 큰스님 8·9면
대불련 총동문회 미래불교 선도 15면

커졌다



KIA 기아자동차

뉴-세피아 탄생!

이제 중형의 느낌으로 타십시오.

전혀 새롭게 다가옵니다.
놀랄만큼 달라진 스타일, 대폭 강화된 안전시스템으로 — 뉴세피아
'95년 부터 더욱 강화되는 新미연방안전기준(FMVSS)을 적용하여
무려 570여 가지를 혁신적으로 바꾸었습니다.
2년만에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한 차는 아직 없었습니다.

스타일이 더욱 커졌습니다.
- 품위있는 전면 스타일을 연출해 주는 **본넷라인과 후론트 범퍼**
- 국내최초로 안개등, 콤비 램프가 내장된 **일체형 고광도 헤드램프**
- 볼륨감이 돋보이는 라운드 감각의 **리어 피니셔와 리어 콤비램프**
- 여유롭고 편리한 드라이빙을 도와주는 **일체형 대쉬보드**
- 조작성을 향상시키고 도난방지 기능을 추가한 **최고급 알파인 오디오** (선택)
- 새로운 디자인의 로터리 절환 타입의 **고성능 에어컨** (선택)

안전이 더욱 커졌습니다.
- 충격에 대한 강도가 대폭 향상된 **직선일체형 T형 버팀쇠**
- 충돌시 1차 충격흡수 능력을 더욱 강화한 **전면 판넬**
- 일차선은 물론 측차선까지 확대 적용한 **도어 임팩트바**
- 사용 비율을 월등히 높여 차체의 강성을 향상시킨 **고장력 강판**
- '95년부터 적용되는 新FMVSS 측면 안전기준(54km/h 측면 충돌시 안전도)을 만족시킨 **특수 보강재, 시트하단 특수 프레임**

성능이 더욱 커졌습니다.
- 2방향에서 연료를 분사, 가속 응답성을 향상시킨 **2스프레이인젝터**
- 최적의 연료량을 분사하여 고출력을 실현한 **다중 연료분사기능**
- 엔진고장시 즉시 그 내용을 알려주는 **자체 고장진단기능**
- 최첨단의 소음차단 설계로 쾌적함을 주는 **NVH성능**
- 엔진의 안전성을 극대화시킨 **공회전 속도 자동제어 기능**
- 진동을 대폭 줄이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는 **新형상 타이어**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NEW SEPHIA

사 설

실천 가능한 새시대 행동양식 개발해야

우리나라 불교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정신생활과 문화형성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문화사는 곧 불교사라고 평가하는 외국학자들도 있는데, 이 말은 곧 한국문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불교적 영향 아래 이루어졌음을 일컫는 것이다.

우리나라 불교는 호국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왔다. 멀리는 몽고군의 침공시 스님들이 법력을 모아 저항했던 때로부터 가까이는 임진왜란 때 가장 활발했던 의용군으로서 승병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우리나라 불교는 현대에 이르러 시대적 적응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것이 사실이다. 중생을 구원하려면 중생의 현대적 삶을 이해하고, 함께 슬퍼하며 중생 속에 몸을 던져야 하는데 불교의 사회적 실천은 다소 더디고 소극적이었다.

현대라고 하는 커다란 시대를 마감하고 탈현대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점에서 불교의 가르침과 구도적 실천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절실하게 되었다. 어제의 종교로 머물던 불교가 이제 미래의 종교로서 우리 한국인과 세계인의 마음을 밝힐 시기가 온 것이다.

전쟁의 시기는 가고 평화의 시기가 오고 있다. 무작정 개발하고, 큰 것이면 무조건 좋다던 사고방식 대신에 환경의 고귀함과 작은 것도 존중하는 사고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갈등을 가르치던 사회과학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과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삶을 분석하며 연구한다.

이러한 시기에 불교시민단체협의회가 창립되어 그동안 흩어져서 활동하던 불교시민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창립선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여러 단체들은 우리사회의 각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활동하여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에 힘을 모으고자 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협의회인 불민협을 구성하는 참뜻이 초발심 그대로 유지되어 우리 사회에 큰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축하의 말씀과 더불어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첨가하고자 한다.

첫째로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이념과 새로운 행동양식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화시대에 냉전적 이념이나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머무르게 되면 불교운동의 선진화는 기대할 수 없다. 몽일문제에 대한 접근이나, 사회갈등의 분석에서 원숙하고 심도있는 사상적 접근은 필수적인 것이다.

둘째로 불교가 지니고 있는 높은 차원의 계시가 운동차원에서도 살아날 수 있어야 한다. 때때로 이데올로기적 맹목성이 불교운동의 일부에서도 재현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불민협은 이점을 당연히 극복하리라고 믿는다.

셋째로 중생의 어리석음으로 크게 동감을 얻지 못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 불교정신에 비추어 타당한 것이면 꼭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불교시민단체가 해 온 바 있는 외국인 근로자 보호운동이 그런 것이다.

새롭게 발족한 불교시민단체협의회가 바른 신행으로 크게 발전하기를 바라며 창립을 축하하는 바이다.

열린마당

상호 사업지원등 유기적 관계 속 사회 공공 불사 전개하자

불민협 위상과 과제

교계 내외의 관심 속에 지난 1일 출범한 불교시민단체협의회가 대 사회적 활동과 내부 융화라는 두가지 숙제를 안고 마침내 시험대에 올랐다.

불민협은 불교단체의 주제별 정책토론회, 사안별 행사 및 사업 지원, 타 종교계와의 연대사업, 국제종교 심포지움 개최, 자료실 운영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불국정토 구현에 앞장 설 방침이라고 한다. 그동안 교계에 이와 비슷한 단체들의 연대 모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번에 평불협 등 11개 불교 시민 사회단체가 모여 창립된 불민협도 외형상 종전의 결성단체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사안에 따라 결성됐던 종전의 단체들과는 달리 불민협은 각 단체의 이익과 활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개별 사안에 따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내부구조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특히 "개별단체의 사업 지원 등 상호 유기적 관계 속에서 대 사회적 공공성을 전개할 방침"이라는 김동흔 운영위원장(경불련 사무처장)의 말이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불민협은 우선적으로 광복 50주년을 맞아 남북통일관련 행사와 6월 4대 선거를 대비한 공명선거운동, 환경운동에 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창립 취지에서 밝힌 대로 불민협이 화합의 목소리를 계속 낼 수 있는냐는 점이다. 이것은 역시 이해관계의 조절과 지도부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본다. 또한 개개의 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불민협이 안고 있는 난제 중의 하나일 것이다.

만약 불민협이 이런 장애를 극복하고 기대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불교의 위상 강화는 물론 사회적 운동 역량을 한층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합을 전제로 불민협 안의 각 단체가 최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느냐가 중요하다.

불교 시민운동

불민협 가입단체

▲공해추방운동 불교인모임(회장 월주스님) 92.6.26 창립, 환경보호와 공해추방 및 사찰환경보호운동 전개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회장 월주스님) 91.7.13 창립, 사회정의와 경제정의 실현 그리고 환경보호와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적 시민운동 전개로 민족통일과 민주복지국가 건설에 이바지.

▲보리방송모니터회(회장 김재일) 90.3.25 창립, 방송프로그램의 역기능과 불교에 대한 왜곡 및 편파를 감시하고, 언론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시청자 운동 전개.

▲불교간병인협회(회장 정진스님) 92.10.9 창립, 부처님의 자비사상에 입각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간호하며, 이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배출.

▲자비의 전화(회장 정덕스님) 90.2.14 창립, 이웃과 함께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밝혀주는 순수 종교상담기관으로 하루 24시간 상담.

▲조국평화통일추진불교인협의회(회장 월주스님) 92.2.12 창립,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해 불교사상과 역사관에 입각한 이념 제공과 그에 따른 운동 주도.

▲한국불교청년회(회장 도각스님) 1911.6.15 창립, 대승불교에 입각하여 생활 속에 불교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활윤리를 확립하며, 또한 청소년 선도와 지도자 육성이 목적.

▲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스님) 88.3.3 창립, 지구적 환경문제와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및 일반시민을 상대로 환경윤리 습득과 자연친화적 생활양식을 전 사회에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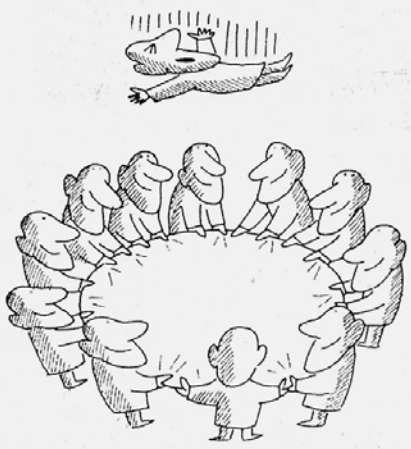
▲한마음불자회 후원회(회장 윤소년) 94.2.15 창립, 국가대표 불자 선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원력을 성취할 수 있도록 법회를 개설함과 동시에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후원사업을 펼친다.

▲가락불교청년회(회장 이원광) 93.5.1 창립, 경남 김해지역의 불교 신행단체로서 지역불교 발전과 환경보존에 노력.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 94.9.30 창립, 자원봉사라는 보살행의 전국토 확산을 발원하며 사찰과는 연합, 단체와는 연대, 복지시설에는 후원하는 것을 토대로 연구, 계몽, 교육활동에 정진.

현대만평

박 구 원



묶쳐서 큰 힘으로…

시 론

검정고시 연기한 金장관의 단견

교육부의 장관은 김숙희씨이다. 기독교인이다.

그가 국졸·중졸·고졸 자격시험을 치르는 2만9천여명의 검정고시 날짜를 4월 16일에서 5월 5일로 바꾸었다. 4월 16일이 〈부활절〉이니 기독교 명절에 그런 일 해서는 안된다고 보름을 남겨놓고 손바닥을 뒤집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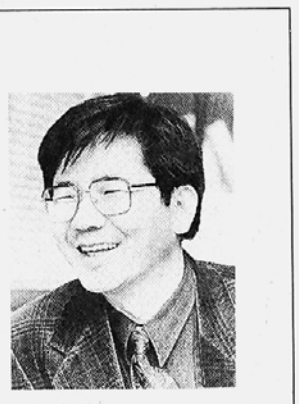
난리가 났다. 2월 25일 원서마감한 후 결혼 날짜를 잡은 사람, 군대 갈 사람, 여행 갈 사람, 대공원에 놀러 갈 어린이, 그리고 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우리 불자 수험생들, 다음 다음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온갖 행사가 푸짐한 시즌인데, '종교활동'하기가 난감하게 되었다.

우리 1천만 어린이들 영문도 모르고 '오늘은 어린이 날, 우리들 세상'에 조금은 손상을 입었다.

교육부는 태연하다. '수험생 중 기독교인의 종교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는 변명이다. 그럼 기독교 '하나'만을 위한 행정이란 말인가? 교육부장관은 기독교인이다.

지금까지 국경일이나 범국민적인 행사날짜에 국가 자격고시 치른다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거니와, 부활절이어서 옮겨야 한다는 얘기는 더욱이나 전대미문이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기독교인들은 일요일(그들의 표현으로는 '주일')에는 어떠한 공식행사도 치러서는 안된다는 요지의 민원(?)과 함께 1천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관공서에서, 군대에서, 학교에서 그날 무슨 일 할라치면 적지아니 눈치 보인다는 얘기가 무성한 것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정말 피곤한 일이다. 그런 일이 또 있을까?



김 형 균
〈한국불교재가회의 사무국장〉

너무 쉽게 날짜 고쳐

서울시가 1백 41개의 교회를 지정하여 무슨 행사를 하는 날에는 인근 노상을 주차장으로 써도 좋다고 허용했다. 성당 29곳, 사찰 11곳을 함께 지정했다고 한다. 지금까지도 그런 날이면 아무렇게나 주차했어도 딱지 한 장 떼지 않는 선심을 써왔지만 이제부터는 합법적으로 교회가 일대 주변을 점거할 수 있게 되었다. 갈수록 교회 근처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이다.

다시 검정고시 얘기로 돌아가자.

돈이 없어서, 혹은 아파서 혹은 해외에서 귀국해서, 학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 못한 이들의 '새롭게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 검정고시이다. 그것은 만학도가 대부분이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삶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는 이들이 중심을 이룬 '곤란을 겪은 이'들의 새 삶을 위한 시도이다.

어느 의미에서는 그들 나름의 '부활'이다.

절망에 굴하지 않고, 주위 환경에 굴하지 않고 노력하는 그것이 기독교를 위해한다고 여겨 다른 날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집단 이기주의 횡행

그렇지 않아도 종교문제로 분화가 끊이질 않는 가정이 늘고 있다. 경조사에도 일가친척이 같이 할 수 없으며, 동창 친지가 지척천리로 되는 경우도 많다.

배달민족답지 않은 가슴아픈 정경이다. 그런 판국에 종교가 이 사회의 가장 큰 '집단이기주의'로 커나가고 있다는 것은 어느 사회에나 흔히 있을 수 있는 사회·문화적 갈등의 차원을 넘는 '우려할 만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령 종교논리가 정치나 행정논리에 우선한다고 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는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단재 신채호(丹齋 申采浩)선생이 개탄하던 말씀이 생각난다.

'조선에 무슨 주의(主義)가 들어오면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된다'

말을 바꿔보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한국의 기독교가 되지않고 기독교의 한국이 된다'

이즘되면 어떤 종교라도 그것은 '도그마'일 뿐이다.

스님이 말씀하셨다. "종교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이 땅을 종교가 필요없는 사회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그러기에 종교인은 스스로 종교인이 아닐 수 있는 즉, 사람 그것 뿐임을 나투어야 한다고.

정치권력이 종교의 시녀가 되고, 문화와 풍습이 종교의식의 타도목표가 되고, 가정과 친지가 종교생활의 하부구조가 된다면, 인간은 종교아래서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중세 유럽의 관도가 재현될 뿐이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그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종교가 갖는 참된 메시지는 절대신 이전에 사람·자비가 아니던가.

우리는 김숙희 장관의 양식있는 처신을 요구한다. 특정종교를 옹호하는 문교행정은 겨레를 분열시키는 불씨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그것이 기독교가 살 길이며 우리 민족의 평화를 위한 길임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육부장관 김숙희씨의 단견적 처사가 차라리 한순간의 관단미스이길 바란다. 그렇지 않고 YS정부 출범이래 처처에서 나타난 현상들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참으로 슬픈 일이다.

BBS인기드라마 • 고승열전 • 윤청광 지음 • 1차분 10권 완간

베스트셀러 1위(불교서적)

* 저희는 「교보문고」와는 직거래하지 않습니다. *

큰스승 열분을 만나십시오!

숨 돌릴 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들.
우리는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이 혼탁하고 메마른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큰스님들은 알고 계십니다.
큰 생각으로 크게 사셨던 분들, 드라마보다 더 감동적인 큰스님들의 삶을,
일화를 중심으로 쉽고 재미있게 소설로 엮은 책이 이제 열 권이 됩니다.
큰스승 열 분에게서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듬뿍 얻으십시오.

고승열전 ① 청담큰스님 — 마음에 타는 불 무엇으로 끄려는고
가문을 이을 씨 하나 떨어뜨려 달라시는 어머니의 간청으로 하룻밤 파계 후, 밴발의 구도행각 십 년. 큰 스님의 인간적 고뇌가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고승열전 ② 효봉큰스님 — 그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고
법복을 벗어던지고 엿판을 메었던 스님. 늦깎이로 삭발출가, 무섭게 수행하여 철구통 스님으로 불리었던 큰 스님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

고승열전 ③ 만암큰스님 — 마지막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네
세물도 권력도 땅도 담아 갈 수 없노라 이르신 큰 스님의 유유자적한 무소유의 삶이 오늘을 사는 우리 마음에 범종 소리로 울립니다.

고승열전 ④ 동산큰스님 — 벼슬도 재물도 풀잎에 이슬일세
세속적 성공이 보장된 의사로서의 삶을 초개와 같이 버리고 중생의 병든 마음을 구제하고자 불문에 들어선 큰 스님의 큰 의사 된 이야기.

고승열전 ⑤ 금오큰스님 — 큰생각 크게 먹고 크게 살아라
좁쌀만한 이해타산으로 아귀다툼을 벌여 가며 아옹다웅하는 세상사람들에게 크게 사는 법을 일깨워 주신 큰 스님의 큰 삶이 흥미롭게 펼쳐지는데…….

고승열전 ⑥ 만공큰스님 — 사랑하는 사람 못만나서 괴롭고
독특한 스님만의 법력을 펼쳐 많은 세방 남자들에게 법음을 베푸신 선지식 중의 선지식, 불교 근대사의 거봉.

고승열전 ⑦ 전강큰스님 — 촛불을 밝히면 어둠은 사라진다
23세란 젊은 나이에 견성하신 큰 스님은 처절한 자기 실험만으로 마침내 해탈의 길에 도달하는데…….

고승열전 ⑧ 고암큰스님 — 도를 묻지 말고 나눠주며 살게나
몸에 밴 겸손과 자비로운 말, 천진한 웃음으로 무소유의 청정한 삶을 살아 오신 큰 스님의 생애를 통해 나눔의 미학을 깨닫게 됩니다.

고승열전 ⑨ 경봉큰스님 — 물처럼 사노라면 후회없으리
흐르는 물을 통해 인생을 통찰한 큰스님은 쉽고 재미있는 법문으로 일상사에 쫓기며 사는 현대인들에게 참다운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고승열전 ⑩ 용성큰스님 — 작은 솔씨가 낙락장송 되나니
매알이 비록 작으나 창공을 능멸히 하는 송골매가 그 속에서 나오니 앞로 있을 때 보면 무정한 물건과 같으나, 이렇듯 당당하게 산 물건이 아닌가? 천지 만물은 모두 당당하게 산 물건이라네.

인이문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47번지 전화 363-2554/5 팩스 392-4619

부처님의 지구 사랑

전 재 성 ⑪

폐기물 토양오염

생활·산업쓰레기 마구버려 땅·지하수 오염

집단피부병·초목枯死등 잇따라

부처님을 비롯한 초기 교단의 수행승들은 세속사람들이 쓰레기장이나 무덤에 버린 헝겊조각이나 헌 옷을 주워서 그것을 깨끗이 빨아서 가사를 만들어 입었다. 이 가사는 똥을 닦는 헝겊과 같으므로 분소의(糞掃衣)라고 했으며, 여러 버려진 헝겊조각을 기웠으므로 납의(納衣)라고도 한다.

사실상 헝겊조각을 기워 가사를 만드는 것은 버려진 유정물의 재활용을 통해 생명을 보호하는 대자대비의 극치에서 나온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옷을 깁는 일은 만유의 연기론적인 연관을 실제 관찰하는 위빠사나의 수행이라고도 볼 수 있었다. 또한 음식물의 찌꺼기를 남기지 않는 발우공양은 생명공동체인 신성한 대지를 자연 그대로 보호하는 깊은 통찰 위에서 나온 환경 윤리적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불교적인 이러한 생활윤리가 사찰에서 오랜 세월 지켜져 내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한 이후에 전통적인 불교교육의 부재로 말미암아 전 국토는 쓰레기 더미로 뒤덮히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우리나라는 89년에 벌써 개인별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 2.2kg로 세계 1위의 쓰레기 발생 대국이 되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미국은 2.0kg, 일본은 1.0kg, 영국은 0.9kg, 대만은 1.6kg, 홍콩 0.8kg, 이탈리아는 0.7kg이다.

특히 당시 서울의 개인당 생활 쓰레기 방출량은 하루 2.8kg로서, 유례없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최근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줄어들었지만 이 수치는 서울만도 매일 8톤 트럭 3천7백대분의 쓰레기가 발생하며, 그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7백30억원의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쓰레기는 매립방법으로 처리되는데, 연간 매립되는 2천6백만여톤의 생활쓰레기는 1톤당 5백만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고, 매년 상당한 국토를 쓰레기 매립지로 둔갑시킨다. 쓰레기에는 연탄재와 주방용 쓰레기가 제일 많고 다음으로 종이, 나무, 의류, 비닐, 일회용품이 차지하며, 그밖에 불연성의 유리, 금속, 석면등의 건축자재가 차지한다. 이러한 생활 쓰레기가 소각되면 대기를 오염시키고 대기오염과 토양오염을 유발시킨다. 그리고 매립되면, 그 지역과 인근의 토양의 미시·거시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하수를 오염시켜 불모의 땅으로 만든다.

특히, 산업폐기물의 경우도 88년 현재 벌써 하루 5만1천53톤(4톤트럭 1천2백76대분)이나 되고, 년간 2천1백만톤으로 83년 이후 연평균 12.8%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절반 정도가 현재 업체의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된다고 하지만 소규모이고, 나머지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된다고는 하지만 처리능력이 부족해 대량으로 야산 등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

◇경제규모의 확대와 대량생산 소비사회에 따른 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무절제한 인간욕구의 부산물인 폐기물은 자연을 오염시킴과 동시에 인간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도 한다.



이러한 산업쓰레기에서는 생태계에 아주 해로운 카드뮴, 수은 등의 중금속과 페유, 알카리 등의 유기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절반가량의 재생이용 되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산업폐기물이 땅속에 매립되고 있어, 토양의 중금속 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89년만 해도 하루 평균 산업폐수량도 6백50만톤이나 되며, 연평균 20%이상 증가하고 있어, 하천의 수질오염에 따른 전 국토의 토양오염은 토양의 산성화를 수반하며,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폐기물 매립지역이나 생활쓰레기 매립지역의 주변에서는 세계적으로 토양오염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집단 피부병, 각종 암, 유산율의 증가, 기형아나 기형가축의 출산, 초목의 고사, 어패류의 떼죽음 등이 뒤따르고 있다.

'95 신행 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금주의 주제 **환경보호**

가정의 작은실천이 첫 걸음

세제 억제·재활용품 수거등 생활화 해야

가사일에도 바쁜 주부보살들이 얼마전 신행활동의 차원에서 환경모임을 만들고 우리 환경을 지키자고 나섰다. 환경운동이 생활속에서 출발해야한다는 소박한 생각으로 실천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원 김용남거사(30)의 집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예쁘게 꾸민 쓰레기 분류 수거함이 집안 한구석에 놓여져 있다. 닭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본부 김자경간사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생활화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하면서도 "불자 개개인의 정성과 실천이야말로 환경을 지키는 파수군"이라고 반가워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나와 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보살은 마땅히 자비심으로 세상만물을 어여삐 생각하라"고 가르치셨다.

인간과 모든 만물이 상의상관 관계속에서 공존공생하고 있다는 '나'와 '자연'이 둘이 아니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심해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이런 시대흐름속에 여러 단체와 사찰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 육실의 세수비누는 한쪽면을 은박지로 싸서 낭비를 줄이고 있다.

군포에 사는 박재순보살(46)은 폐식용유를 모아두었다가 이웃 불자들과 함께 비누를 만들어 쓰는 한편 샴푸의 사용을 줄이고 있다. 자신의 힘으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두 불자 모두 "환경을 지키는 지름길은 가정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신념으로 가득차 있다.

우리 삶의 터전이요 원천인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왔다. 그러나 인간의 끝없는 욕구와 무분별한 개발이 그 자연을 거침없이 파괴하고 있다. 그렇기에 더 많은 노력과 인내로, 훼손된 자연을 되돌려 놓아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따라서 환경을 지키자는 운동이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북 고창 선운사의 대웅전. 도솔산에 자리잡은 선운사엔 신라 진흥왕과 소금만드는 법을 가르쳤다는 백제 고승 검단선사의 창건설화가 전해온다.

신행수첩

고승 숨결찾는 명찰순례

21일 선운사 도솔암으로

고승들의 슬기와 숨결이 살아숨쉬는 귀중한 불교유적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95 명찰순례'가 30회인 이번에는 4월 21일 전북 고창 선운사로 떠난다.

선운사는 백제 위덕왕 24년(577)에 금단선사가 창건한 사찰로서 대웅보전·금동관음보살좌상·지장보살좌상 등의 문화재를 갖고 있는 대가람이다.

또한 선운사 답사와 함께 수십길 벼랑에 높이 약25미터 폭 10미터의 국내 최대를 자랑하는 암각 석가여래좌상이 있는 도솔암에 들러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새롭게 새기는 일정으로 짜여져 있다.

출발은 오전 7시30분 한국일보사 주차장, 회비는 2만원이다. (02)724-2615~6.

'자기발견의 길' 특강

정토법당, 24일부터

추운 겨울을 지내고 봄날에 돋는 새싹처럼 온 인류를 구제하사 지혜의 등불로 우리곁에 오신 부처님.

서초동 정토법당에서는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부처님의 참된 말씀과 그 실천적 방안을 함께 배우고 모색하기 위한 '자기발견의 길'을 주제로 특별강좌를 마련한다.

생활속의 무념, 무상, 무주의 실천을 위하여 끊임없는 자기발견을 추구하는 이번 강좌는 법륜스님을 법사로 교대정문 맞은편 정토법당에서 열린다.

보다 진실되게 살고자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은 동참하여 내마음의 부처님을 만나보자. 우리도 부처님같이.

(02)522-2841, 582-1080.

명사들 솜씨 한자리에

인권위 법당마련 기금전

고승 및 명사들의 그림, 도자기, 병풍, 서예작품이 한자리에 모인다. 성철스님과 김대중 아태이사장의 친필, 이름난 화가와 서예가들의 작품도 자신을 뽐내기 위해 모여든다.

단순히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교인권위원회가 법당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겠다는 생각에서다.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인사동 조형 갤러리에서 열리는 '불교인권위 법당 마련 기금전'에 나서기 위해 저마다 빼어난 옷을 입은 작품들이 자신을 맘에 들어하는 이에게 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불교인권위가 하는 사회의 민주화와 불자들의 인권옹호 운동, 장기수·양심수 돕기운동에 보탬이 된다면 주인이 바뀌어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 대단하다. (02)745-1852.

"읽고 쓰고 셈하기 배워요"

길음복지관 무료교육

아이들을 책상 앞에만 있게 하기엔 봄날의 햇볕이 너무 화창하게 내비치는 날들의 연속이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놀려둘 수만은 없다.

그래서 부모들은 가정살림에 타격이 될 정도의 과다한 교육비를 지출하면서도 컴퓨터학원이니, 피아노학원이니, 영어과외니, 수학과외니, 하여 교육에 과다한 열을 올린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으로 좀더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

이에 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스님)에서는 읽기, 받아쓰기, 셈하기 등의 전과정을 무료로 운영하는 늘푸른 교실을 마련, 학생들을 모집한다.

특히 학습 부진아학생에게 도움이 될 늘푸른 교실은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키워가기에 적절한 곳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2시에서 3시30분까지 수업한다.

(02)985-0161~4.

'불법의 바다'에서 만나요

청주불교대 신입생 모집

세상이 거칠어질수록 모든 사람들의 불교에 대한 바른 믿음이 굳게 세워지기를 서원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불자들의 애틋한 마음이 아닐까.

청주불교대학과 충북불교문화원에서 산중의 큰 스님과 도심속에서 우리 불자들이 만날 수 있는 인연터인 제3기 청주불교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청주불교대학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기초교리·한국불교사상·불교문화·경전공부·선사상등 유익한 강좌로 세상속에서 더럽혀진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이 정화해 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0431)273-5866.

고침 지난주 본지 3면 「선재들의 한마당 잔치」 관련기사중 「일본제자로서…」는 「일불제자로서…」의 오식이므로 바로잡습니다.

깨달음의 사회화성금

▲범어사	5백만원
▲증로 문수사	5십만원
▲능인선원	2천36만9천4백원

〈3월23일~31일〉

* 성금모금 계좌번호
농협053-01-22778
국민은행023-01-0533-563
예금주:(불교중앙교원)

사자좌 있는 약사여래불

천황사 '보물' 기념법회

고고학계 및 불교계의 고증을 거쳐 지난 1월10일 보물 제1213호로 지정된 경남 밀양 천황사 약사여래불을 기념하는 법회가 열린다.

천황산 천황사(주지 보원)는 약사여래불의 보물지정을 기념하고 천일기도 입제를 준비하는 도성스님(전 해인사주지) 초청대법회를 오는 23일 오후2시 천황사에서 연다.

천황사 석불좌상은 광배만 없을 뿐 대좌와 몸체부로 이루어진 통일신라시대의 작품. 독창적인 구상력과 정교하고 뛰어난 기법, 세련되고 우아한 양식 등 8세기 후반의 우수한 불상으로 특히 현존유일의 사자좌를 갖춘 불상인 점에서 신라조각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0527)356-2911.

연변에도 불보살 자비가…

반야회 도문시에 화엄사 건립 추진

금년은 광복 50년이 되는 해다. 일본 교포불자들이 바람직한 불교교류활동을 위해 반야회를 설립하고 한국전통양식의 화엄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도문시에 건립되는 화엄사는 중국정부가 유일하게 승인한 '도문시 불교협회'가 주관하며 반야회가 후원을 맡고 있다.

도문시는 북한 동북 지방과의 교통요충지다. 따라서 화엄사는 중국 2백만 조선족과 통일을 바라보는 이즈음 북한 포교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0346)593-2241.

나와 이웃 그리고 자연은 하나

생활속의불교 ㉒

협찬: 임희석

"로빈손 크루소가 되어 보라고 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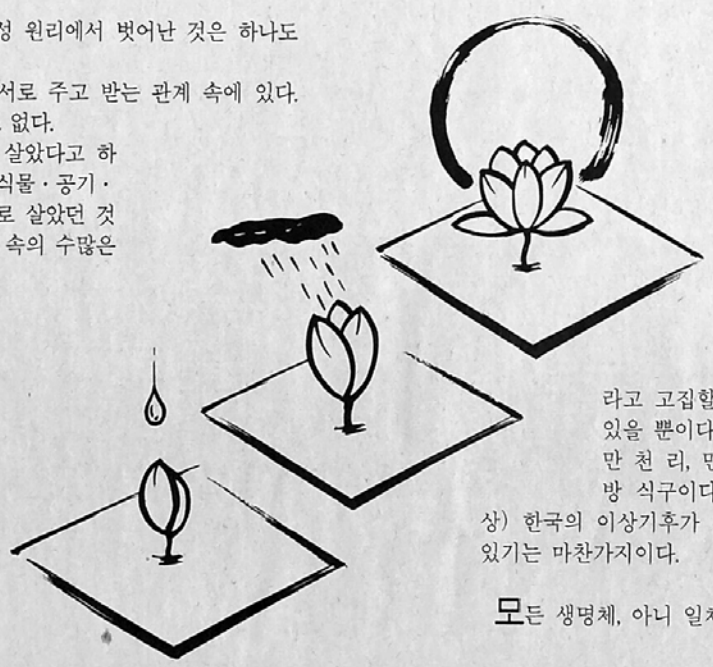
만물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상대성 원리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서로 주고 받는 관계 속에 있다. 혼자서 독불장군 식으로는 존립할 수도 없다.

로빈손 크루소가 절해고도에서 혼자 살았다고 하지만 절대로 혼자가 아니었다. 동물·식물·공기·토양·태양·달… 등과 어깨동무한 채로 살았던 것이다. 우리들의 삶은 매 순간순간 우주 속의 수많은 도반들과의 공생(共生) 관계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별적인 '나'를 고집한다. 이건 내가 혼자서 했다, 이것은 나만의 것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하지만 가령 내가 돈 한푼 벌었다고 할 때 그것이 어찌 나 혼자만으로 가능했겠는가.

종이·화폐·잉크를 만든 사람, 화폐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 거래의 상대방 등이 없었다면 어찌 한 푼인들 벌 수 있었겠는가.



쌀 미(米)자는 팔십팔(八十八)의 합성어라 한다. 쌀 한 톨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여든여덟 번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이다. 혼자 살고 혼자 먹는게 아니라 여럿이 더불어 먹으며 함께 살아간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뿐이 아니다. 동물, 식물, 태양, 물, 토양 그리고 수많은 미생물들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라도 사라진다면 우리는 잠시도 살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러니 이 세상 일 중에 내가 했다, 네가 했다라고 고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있다면 오직 상대성이 있을 뿐이다. 설사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천 리, 만 리 떨어져 있다 한들 공생관계에서 보면 모두가 한 방 식구이다. 남미 페루 연안의 바닷물이 더워지니까(엘니뇨 현상) 한국의 이상기후가 찾아 오듯이, 비록 우주 어느 구석이라도 한 통 안에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모든 생명체, 아니 일체의 유·무정물은 공생의 관계요, 공용·공체·공식의 관계이며 다 한마음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나만을 위해 무엇을 한다 해도 그것은 잘못된 관념의 세계일지언정 우주의 법칙으로는 그럴 수 없는 일이다.

만약 '나 혼자'를 고집하는 사람에게 '그렇다면 지·수·화·풍을 다 제 손으로 구해서 살아보라.'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는가. 로빈손 크루소라도 불가능할 것이다.

전체가 다 거들어 주니 내가 산다. 고로 나도 전체를 위해 살아야 한다.

나와 이웃, 자연은 언제나 둘이 아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진흥APT 803동 1201호
임 희 석

교차로

선원사에 아미타불 기증

이천진심 보살



"고려팔만대장경이 조성됐던 유서깊은 선원사에 그동안 제가 모셔왔던 아미타 삼존불을 봉안하게 돼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2일 선원사 복원불사에 조선시대 아미타 삼존불을 기증한 이 천진심보살(70)은 행사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눈물을 훔치며 내내 나무아미타불 육자진언을 염송하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유서깊은 사찰서 햇빛보게돼 기뻐요"

30여년전부터 가정에 법단을 마련, 아미타부처님께 매일 조석예불을 드려온 이 보살은 "이곳 강화도에서 아미타부처님이 다시 화현하여 보다 많은 불자들이 대광명의 지혜를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삼존불이 원래의 제자리를 찾지 못한데 대해 다소 안타깝다는 이 보살은 "이곳 유서깊은 도량에서 남은 여생동안 선원사를 찾는 불자들을 위해 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

동대경주 정각원서 법문

백운스님(범어사 전 강주)은 오는 19일 수요일 오후 4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 법당에서 열리는 법회에 초청 설법을 한다.

대구봉축 준비위원장



무공스님(동화사 주지)은 지난 7일 열린 대구광역시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스님은 또한 11일 능인학원 재단이사회에 참석한다.

오백나한등 점안법회



도영스님(김제 금산사 주지)은 지난 4일 새로 신축된 금산사 나한전의 오백나한, 십육나한, 사천왕상 금강역사의 점안 대법회를 주관 봉행했다.

부산거사림회서 설법



종범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지난 11일 통도사 부산 포교원에서 열린 부산불교거사림회 정기법회에서 승만경을 주제로 설법했다.

뇌허학술상 시상식 주관



광우스님(정각사 주지, 뇌허학술상 운영위원장)은 지난 5일 성북구 정각사에서 제12회 뇌허학술상 시상식을 주관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고 김동화 박사 유족등 70여 사부대중이 참석 법경스님(동국대 교수)의 뇌허학술상 수상을 축하했다.

서울사무소 이전개원법회



증림스님(고려대장경 연구소장)은 오는 22일 오후3시 서울사무소 이전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02)797-0585

안양 광명의원 개원



각현스님(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이사장)은 지난 8일 안양시 안양종합복지관 2층에 다섯번째로 노인무료병원 광명의원을 개원했다.

안양불교연 회장취임

대봉스님(불성사 주지)은 지난 4일 안양 뉴코리아호텔 대연회장에서 안양불교연합회 제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4월혁명 기념음악제 개최



안동일씨(재가연합상임회장·4월회장)는 지난 10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4월혁명 35주년 기념을 앞제 '코리아 환타지 - 4월의 함연'을 개최했다.

선우만남의 날 가져



남지심씨(우리는 선우 대표)는 22·23일 양일간 충북 괴산 공림선원에서 선우 만남의 날을 갖는다. 이번 만남의 날에는 불교지도자 틱낙한스님의 지도로 행선수련을 실시한다.

백룡암 칩거 '국수' 집필



김성동씨(소설가)는 장편 소설 '국수'를 완성하기 위해 8일부터 경남 김해 백룡암에서 칩거에 들어갔다.

문단안팎에서 주목받고 있는 '국수'는 1백년전 풍운아들의 활동을 그린 것으로 1부가 발간 됐으며 2, 3부까지 나올 예정이다.

불교조형연구소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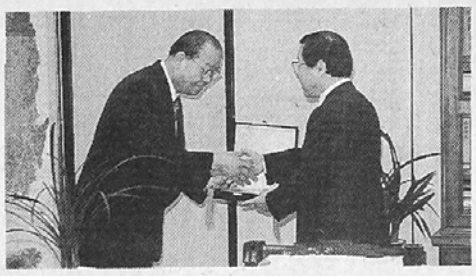


이기선씨(동대 박물관 연구원 역임)가 서울 용산구 청파동 1가에 '불교조형연구소'를 개소했다. 이씨는 연구소를 화실과 집필 및 각계의 학문에 정통한 젊은 불교학자들의 토론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씨는 동대 미대를 졸업, 동대학원에서 미술사학을 전공했다.

전북 대불청 체육대회

고정관회장(대불청 전북지구)은 지난 2일 금산중학교 운동장에서 회원 2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진각종 환경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진각종 청정국토가꾸기운동본부(총재 최지광)가 지난 6일 환경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김중위 환경부장관은 환경운동에 모범적 역할을 해온 진각종 청정국토가꾸기운동본부, 농협중앙회, 조선·중앙일보사등 9개 단체 장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환경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여성장애인' 주제 발표



방귀희씨(작가)는 지난 7일 재활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한국사회의 여성장애인문제의 현황과 해결책에 대한 공청회에서 '한국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의 실질적 차별과 과제'를 주제 발표했다.

대종상 남우주연상 수상



김갑수씨(연극·영화배우)가 지난 1일 금년도 제33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만해스님역을 맡는등 연극을 통해 신심을 자랑하기도 했던 김씨는 "첫 영화출연에서 이같이 큰 상을 받아 기쁘다"며 "연극인으로서 영화배우로서의 길을 충실히 걸어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계몽사 아동문학상



우봉규씨(작가)가 아동극 '갈매기야 훨훨 날아라'로 계몽사 아동문학상을 받는다.

염전에서 사는 할아버지와 눈먼 손자의 이야기를 다룬 '갈매기야…'는 어린이들의 사랑과 희망을 그린 작품. 시상식은 5월 4일 계몽문화센타에서 거행된다.

日 나고야서 판화전



강행복씨(판화가)는 일본 나고야시 테이메쯔 백화점에서 11일부터 17일까지 '판화전'을 갖는다. 이번 판화전에서 강씨는 목판, 석판, 실크로드의 다양한 소재에 다양한 기법으로 제작된 다수의 작품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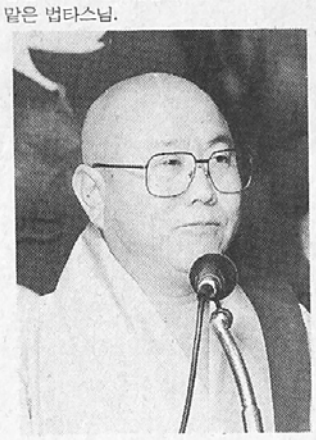
인터뷰

"불교의 사회활동 강화"

종교간·국제교류에도 앞장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불국토 구현을 위한 대 사회적 보살행 실천에 앞장설 생각입니다"

지난 1일 11개의 불교 시민사회운동단체가 모여 정법구현을 목적으로 결성된 불교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를 맡은 법타스님.



불교시민단체협 초대 상임대표

법 타 스 님

법타스님은 "불민협은 사회 공공성과 불교의 주체적 활동을 위해 결성됐고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불교의 참병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불교의 대 사회적 역할이 어느때보다도 시급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남북한간의 평화정착을 위한 통일시대 준비, 도덕성 회복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 시민경제운동의 활성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임을 밝힌 법타스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불자들이 사회 공동문제에 인식을 같이하고 그 해결과제로 깨달음의 사회화, 대중화, 현장화를 얼마나 실천하느냐 라며 불자들의 적극적 관심과 동참을 강조했다.

여러 단체가 모인만큼 상호 이해관계 때문에 지속적으로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법타스님은 "불민협은 어느 단체의 이익보다는 불교와 대 사회적 역할의 필요성에 의해 출범한만큼 지속적이고 단합된 활동을 펼 수 있을 것"이라며 세간의 우려를 일축했다.

개혁적이며 온건중도와 비정치적으로 불민협을 운영하겠다는 법타스님은 "대 사회적 활동 외에도 종교간의 교류를 통한 친선 도모와 불교의 국제교류에도 적극 앞장설 것"이라며 불민협을 통해 사회변화를 이해하고 선도하는 정법의 심부름꾼이 될 것을 다짐했다. 〈한명우 기자〉



◇ 이웃사촌 봉사회는 부처님 공경하듯 노인을 모시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꽃마을의 '아들 딸 온정'

매월 목욕·이발 해주며 정다운 말벗 돼

보살행이 숨쉬는 현장 — 이웃사촌 봉사회

하이얀 김이 모락모락 솟아오르는 연꽃마을 목욕실. 겉옷을 벗어던지고 할머니들의 목욕을 도와주며 그동안 쌓였던 고독과 외로움의 때를 모조리 씻어내는 보살들의 손길이 유난히 따뜻하기만 하다.

매월 넷째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연꽃마을 용인양로원을 찾아오는 이들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이웃사촌 봉사회(회장 안태인)'의 불자회원들이다.

"할머니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해드릴께요" 목욕을 끝내고 할머니들을 깨끗한 새옷으로 갈아입히는 보살들의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듯 세심하다.

양로원 입주자 박순자 할머니는 "누가 이렇게 목욕시켜 주고 손톱 발톱까지 다듬어 주겠소"라면서 손톱 발톱까지 정리해주는 이들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같은 시간 봄볕이 내리쬐는 양로원 앞마당에서는 할아버지의 봄단장이 한창이다.

"할아버지 신수가 좋아지셨어요" 이웃사촌봉사회와 함께 매월 양로원을 찾아와 이발봉사를 하고 있는 표명국거사의 한마디에 "허허허"하고 웃어 보이는 할아버지의 얼굴위로 굵은 주름이 드리운다. "밥 잘 먹고 잠 잘자니까 그렇지"하며 주고받는 대화가운데 봄아지랑이처럼 파릇한 온정이 피어나는 것만 같다.

30여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는 연꽃마을 용인양로원은 외로움과 고독감으로 정을 그리워하는 노인들이 많다.

그래서 이웃사촌 봉사회는 이발봉사, 목욕봉사를 하면서 말벗도 되어드리고 또 밀린 빨래까지 손수 정리해, 이날 하루만큼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된다.

"음식이나 후원금 같은 물질적인 봉사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직접 이들을 찾아와 잠깐동안이라도 함께 생활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것 같아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웃사촌봉사회 총무 강풍자씨의 말이 끝나자 마자 "우리도 머지않아 노인이 될텐데 조금이라도 젊어 건강할 때 봉사를 해야죠"라며 회원들이 입을 모았다.

양로원 봉사활동을 통해 언젠가는 자신들도 노인이 될 것이라는 엄연한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삼 깨달아 간다는 이들이야 말로 부처님 공경하듯 노인을 모시며 올바른 불법실천을 펼쳐보이고 있는 '될 보살'들이 아닐까.

〈이은자 기자〉

게시판

▲ 제49회 다보문화강좌=12일(수) 오후2시 불교방송 공개홀에서 "일본고서로 본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를 주제로 이영희씨(전 공연윤리위원장)가 강연한다.

(02)703-0108

▲제6차 신앙대회=월간 '정토'(발행인 법륜)는 15, 16일 1박2일간 경북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창간 7주년 기념행사로 제6차 신앙대회를 갖는다.(02)571-3144

▲김대중씨 강연=김대중씨(아·태재단 이사장)는 오는 26일 오후3시 중앙승가대학에서 '남북통일에 있어서 불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한다. (02)925-5507

▲제10기 생태학교=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은 11일부터 5월27일까지 환경교육강좌인 '제10기 생태학교'를 실시한다. 강의는 매주 화·금 저녁 7시30분부터 9시까지. (02)765-6324

▲불교사상강좌=화엄학회(회장 손창대)는 4월14일부터 1, 3주(금, 토)격주로 2년과정의 불교사상강좌를 연다. 최봉수 소장(불교원전번역연구소)의 강의로 삼일선원 법당에서 진행.

(02)237-4438~9

▲제78기 기초 교리강좌=대한불청 직할 서울불교청년회는 3개월간의 기초교리 강좌를 개최, 제78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도법사는 보각스님(중앙승가대교수).

(02)730-9108

▲수화교실 수강생모집=범어사 불교청년회(회장 임한석)는 11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열리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수화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051)441-7700

세계와 남북평화통일기원 및 국제보살수계 대법회

일 시 : 1995년 4월 15일(음·3월 16일) 오후 1시
장 소 : 대구실내체육관

인사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온 국민이 세계화로 총매진하는 이때 세계 인류의 평화와 민족의 염원인 남과북의 평화적 통일을 기원하기 위하여 미얀마 고승을 초청 국제 보살수계 대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으며 또한 호국불교의 이념으로 삼국통일의 대위업을 이룩하신 선조들의 얼을 되살리고 이미 실추되어 버린 윤리와 도덕성회복을 위하여 부처님의 대자비사상과 화쟁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보살계을 받게 하여, 이 민족과 이 국토가 평화롭고 복되고 참된 삶을 누리며 불국정토를 건설하는 초석이 되고져 하는 목적에서 이 법회를 개최하오니 수회 동참 바랍니다.

불기 2539년 4월 일

증 명 : 종정 구암 대종사
미안마 빠단타 케싸라
삼화상 : 신혜성 대종사
노정공 대종사
미안마 빠단타 라린다 싸라
칠증사 : 노금파 대종사
원법경 대종사
김영산 종 사
박운명 종 사
안경해 종 사
송설호 종 사
고 문 : 주법계, 신혜성, 노정공, 노금파, 원법경, 이경일, 최해산, 김영산, 박운명, 송설호, 허종찬, 박법안 〈무순〉

호계법사
최복규,이각규,전병수,유원봉,김용배,주운경,김법초,박팔봉,김경담,김무량,김중암,김윤곤,방각신,김고산,손오봉,권종법,김법진,박성과,이종과,강일조,권영호,김희범,김월강,김정웅,최종수,정백봉,옥대원,박성팔,전길원,박광조,윤갑석,장이문,강창규,김창수,주연호,김용구,양일근,문성근,이해암,이혜암,전용기,임정산,이법공,권혜각,김수경,김호이랑,이영암,박삼장,윤보명,김상운,김학산

대회장 ……총무원장 김 대 호 스님
대회집행위원장 ……장 지 연 스님
대회 총무부장 ……김 덕 진 스님
재무부장 ……나 황 정 스님
사회부장 ……박 보 광 스님
홍보부장 ……박 철 웅 스님
의전부장 ……황 해 수 스님
동원부장 ……한 성 학 스님
호계부장 ……김 경 호 스님
의무부장 ……김 신 석(불교한방병원)원장
봉사부장 ……박 도 정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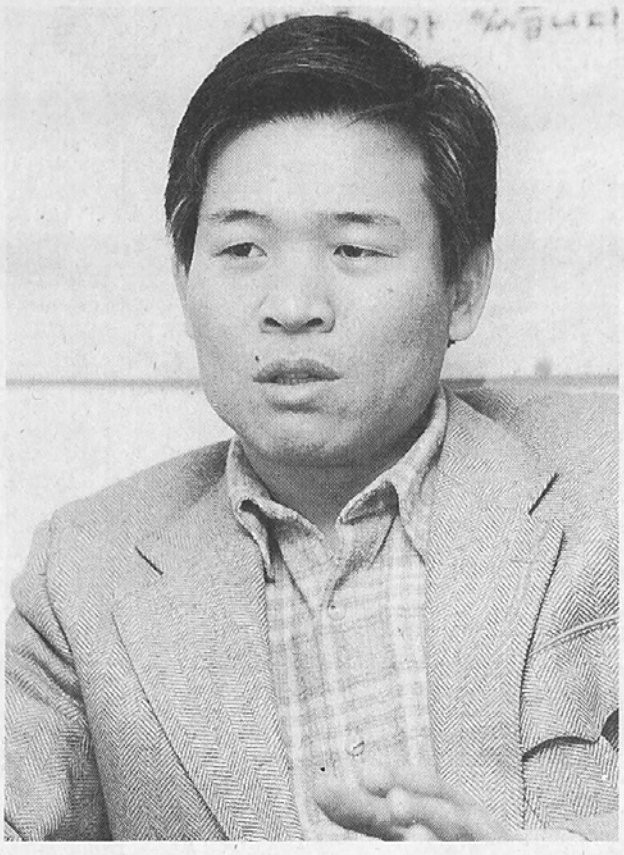
사단법인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김 대 호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1가 11—73, ☎ 762—2678, 764—2678 FAX : 747—5044

노래부르며 '좋은 세상' 발원

산문밖의 禪

노래하는 음유시인 정태춘 씨



"나와 대중은 하나…自存생각하니 억울"

가사 대부분 禪詩…노래하는 순간 번뇌 사라져

'승냥이 울음따라 따라간다. 벌빛 차가운 저 숲길을. 시냇가 물소리도 가까이 들린다. 어서 어서 가자. 길섶의 풀벌레도 저리우니 석가세존이 다녀가셨나. 본당의 목탁소리 귀에 익으니 어서 어서가자.'

우리시대 음유시인이면서 온몸을 던져 노래하는 음악 인생 20년의 정태춘(42).

문정동 한켠에 자리잡은 작은 건물 3층 '삶의 문화'란 팻말이 붙은 문을 배꼼이 열고 들어가니 우중래객(雨中來客)이라는 목각 글씨가 눈에 들어온다.

사무실이라 하지만 3층 토담, 토기, 투박한 목방아, 뒤주를 연상케하는 그릇과, 놋그릇, 목다듬이, 재봉틀, 책상, 도끼, 낫, 톱, 여러 종류의 칼, 전통 실타래, 꽹가리, 초롱, 고물라디오 등의 잡동사니들이 즐비하다.

"우리 조상들의 손때 묻은 옛 물건들이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그는 참으로 순수하기 그지없는 무욕의 자유인처럼 느껴진다. 시처럼 음악처럼 살아왔으면서 전문음악인으로 집착하지 않는 삶이 그렇고 생활의 모습이 그렇다. 그에게는 고무신을 신고 허름한 차림으로 탁트인 광장에서 특유의 창법과 거친음성도 마다하지 않는 혼신의 노래가 있다.

"음악은 대중들의 살아 숨쉬는 이야기들이 담겨있어야 하죠. 가수는 노래를 통해 발원합니다. 제 음악은 사람들의 생각, 희망, 고통의 표현일 뿐입니다. 제 노래는 또 우리 민족의 힘찬 정서를 찾아내 그것을 바탕으로 이 시대의 삶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정태춘의 노랫말은 깨달음의 세계를 향해 떠나는 선적 정서, 출발의 시정으로 가득차 있다. 그는 요즘 무대위에서 북도 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춘다.

가요계 고독한 수행인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전과 달리 거친 느낌이라 하는데 저로서는 그전에 못느꼈던 내면의 평화랄까, 다소 당당해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치열한 구도과정을 이겨낸 수행자가 맛보는 평화로운 법열같은 것 말입니다."

정태춘씨는 자신의 변모가 의도적이라기보다는 번뇌와 슬픔, 갈등, 방황이 인간 개인이 해탈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조건지우는 사회환경도 변화되어야죠. 모든 사람들이 해탈할 수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음악은 이런 작업의 일환이라 봅니다."

그는 일찍이 기타를 만졌다. 국민학교 5학년 때, 악보를 볼 줄 몰라도 한번 들은 노래는 기타로 선율을 뽑겼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고민과 방황이 깊어졌다. 10월 유신 발표날 무작정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대학입시를 바로 앞둔 때였다. 그후에도 그는 갑자기 삭발을 하거나 일년에 한번 꼴로 가출을 하며 돌아다녔다.

이런 삶의 해탈을 갈망하던 생활은 군대로까지 이어져 삭발하고 노래도 지었다. 이 시기 그는 고은 선생의 초기 시를 좋아하며 허무에 대한 화두를 잡고 있었다.

"평화와 평정, 교요한 삶을 원했던 것입니다. 초기에 발표한 노래들은 이때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이죠."

현세적인 욕심이 애초에 없었던 그는 불교에 관심을 가지며 입산하는 마음으로 치열한 삶과 죽음의 갈등을 겪는다. 이런 상황에서 뛰쳐나오기 위한 몸부림이 노래였다.

이 시기에 그는 MBC 신인가수상과 TBC 방송가요 대상을 수상했다. 박은옥씨와 결혼도 했다. 인기는 최고절정에 올랐고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빈도도 많아졌다.

"인기연예인 노릇이 도대체 비위에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래만 부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락프로그램에도 나가야 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방송출연은 불편하고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TV 출연을 기피하고 음반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못하자 경제적 궁핍이 찾아왔다.

"뭐해서 먹고 살까? 포장마차를 할까? 별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갑자기 '억울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다행히 '정태춘·박은옥의 노래마당'으로 활동을 재개하여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공연을 가졌다. 3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경쾌한 국악노래 구상

"1987년 우리사회의 격변과 역사적인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순수하고 자유롭다'는 생각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다른 가수들처럼 텔레비전에 안 나가고 순수성을 지킴으로서 자유인인 척했던 것이 실은 자유로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은 거죠."

그래서 1988년 겨울부터 그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대중만나기를 시도했다.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갔다.

"저는 가수지만 끊없이 대중들에게 사용당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사용하라는 생각이었죠. 지금도 제 노래에 힘이나 이념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남들이 저의 대중성을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는 이제 중생의 아우성같은 정서를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이르게 됐고, 둔탁하며 거친 것 같은 힘있고 부드러운 북소리를 느끼게 됐다.

그래서 국악도 되살리려 한다. 막연한 친밀감이 아닌 산뜻하고 경쾌한 국악을 시도해 이를 자신의 음악속에서 실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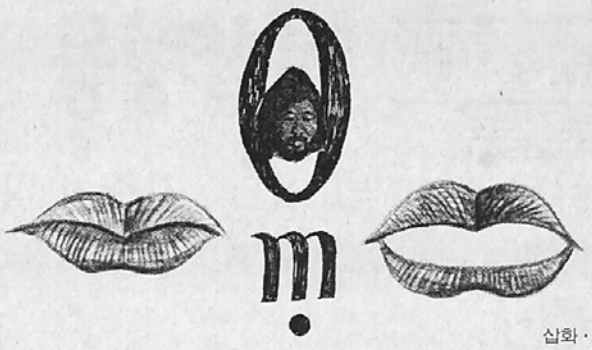
"지금은 제가 열과 신명이 나서 끓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의 노래들이 제 궁극의 귀결점이나 목표에 도달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의 현재상황이며 과정이라는 것도 깨닫고 있습니다."

대중가요사상 전무하다 할 만큼 세속적 만행을 서슴치 않으며 번화과정을 겪어온 정태춘씨.

그는 자신의 일에는 인자하고 관대하면서도 타인에게는 관용이 없는 소인배들의 그릇된 애착과 욕망을 질타하며 대중음악의 한복판을 헤쳐가고 있다.

그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외롭기 마련이다. 그는 그의 길을 혼자 걷고 있다. 별빛 차가운 저 숲길을.

〈김원우 기자〉



삽화·이기선

진리교, 우주의 참말씀 악용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㉒

살상가스 제조 평화를 공격

신령스런 말이 오용되고 있는 세상이다. 진리의 말씀이 반역자의 선전어로 사용되는 시대다. 사람들이 쓰는 말은 자기 생각을 바르고 아름답도록 표현되어야 한다. 생각하는 것이 언어로 나타날 때는 그것이 참다웁게 전해져야 하고 거룩한 음정으로 화음되어져야 한다. 화음이 되지 않는 소리는 소란스런 굉음이다.

사이비 선전어로 사용

옴(唵)이란 진언이다. 진언은 참말씀이다. 우주의 생성을 전표한 첫소리다. A.U.M의 화음이다. A와 U가 전광처럼 빠른 찰나에 합음되면 O로 되고 O에다 M이 합치면 Om이 되는 것이다.

우주의 처음과 우주의 끝이 하나되는 것이다. 헤아릴 수 없는 저 우주의 처음과 사랑할 수 없는 저 우주의 끝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장엄한 것이며 장관인 것이다. 미물 중생이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아도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것인데 우주의 화음이 우주의 끝과 상응하여 화현되는 세계는 정말 불가설불가침한 것이다.

이러한 세계의 장엄과 성취를 옴(唵)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는 악함도 선함도 없다. 후지고 썩는 것도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도 없다. 넓고 좁고 크고 작고 모나고 둥글고 길고 짧고 하는 등의 차별상의 세계가 아니다. 오직 그 세계는 옴이다. 한 마음이요, 한 깨침이요, 한 광명이다. 여래의 진실이, 여래의 밝음이 여기 이 마음 속에 내재하는 것이다. 옴처럼 성스럽고 지순한 묘용이 있을건가.

그러나 우리는 이 옴의 진언을 악언으로 악주(惡呪)로 쓰고 있는 무리들을 목도하게 되었다. 가공할 일이다. 사람은 착한 다리를 건너는 수행자가 되어야 한다. 악한 다리를 건너가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다. 다리를 만들 때도 착한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으로 공사를 하여야 한다.

지금 일본에서는 단말마적인 극악행위를 하고 있다. 옴진리교가 바로 그것이다. 후지산을 바라보는 카미쿠이치무라(上九一色村)에서 아사하라(麻原)라는 신흥 교주가 옴교를 창립하여 혹세무민하고 있다. 사린가스를 만들어 동경시내를 공포의 도가니로 끌어들였다. 겉으로 옴교, 안으로는 사린가스, 이것은 이분법(二分法)의 행위가 아닌가.

옴은 불이(不二)의 세계를 구현하는 진언인데 어찌 이분법의 차별상을 만들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살상하는가. 옴의 소식을 잘못 받아드린 것이다. 옴은 절대지공의 참인간이 되는 것인데 어찌 악언의 소식으로 전달하는가.

조금 지나친 해석이 될지 모르지만 上九一色을 풀이하면 구품의 세계가 있는데 하품하가 제일 낮은 단계의 지위다. 낮은 단계는 저속한 인물이 수라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上九라고하면 최상위의 자리이다. 이 최상의 자리가 一色으로 변질하였다니 언어의 희롱이 아닌가. 일색은 모두가 물질이다. 물질은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지수화풍이다. 온통 지수화풍을 생명 살상의 가스로 만들고 있으니 가히 上九一色이라는 마음은 무서운 마음이다. 이 마음에 麻原라는 교주가 화학공장을 설치하여 인간의 행복과 평화를 공략하고 있으니 사람으로서 오역죄를 행하는 일천제이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옴이란 신성어, 생명어 진실어를 오용하고 오염시키고 있으니 언제 구원을 바탈 수 있을건가. 이것은 이분법의 자리에서 차별상을 짓는 악의식이 발동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유사종교 교극, 신흥종교, 사이비종교의 교주들은 언어 표현을 교묘히 하여 사람들을 흘리게 한다. 언어의 다의적 표현을 미화시켜 음악화하여 연약하고 희구력이 강한 못 사람을 사교의 성안에 끌어 들인다.

한번 끌려 들어간 사람을 교묘한 방편으로 밖으로 달려나가지 못하게 올가미를 씌운다. 올가미의 그물에 얽힌 사람은 그 울타리 안에서 종속물이 되고 사교사술의 행위에 중독된다.

사교사술 행위에 중독

이 중독적 생리를 악용하는 것이 사이비 교주의 기술이다. 이 기술자가 언어의 사법을 갖고 종횡무진 행화의 연극을 꾸미는 것이다. 연극의 관람자도 이제 상식의 세계에서 비판하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정말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믿는다고 할 때 정법성, 공법성, 진리성이 있는가를 파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부여의 신실성이 결여되면 사교이단자가 되는 것이다.

일본의 사린제조자의 사교가 겁날뿐 아니라 인간이 참진언의 옴(唵)을 신비체험의 악극으로 이용한다면 더 무서운 일이다. 우리모두 우주의 생명성의 소리와 Om을 바르게 인지하는 불교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철사와 풀칠이 필요없는 더욱 간편해진 홍법등

홍법등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기존 홍법등의 단점을 더욱 간편하게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홍법등은 종전의 몸체 끼우개식의 결합 방식을 일체형으로 자동화시켜 하나씩 일일이 결합하던 방식을 역구도 방식으로 개선하여 몸체 부분의 결합이 필요 없이 상·하 테두리만 결합하면 완성되는 획기적인 제작방법으로 새롭게 탄생』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일일히 풀발이를 하던 등 제작이 『한 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장엄한 팔각등이 1분내에 완성』되며 『기존 홍법등의 조립식을 더욱 개선하여 단 한번의 공정으로 보완 개발하여 신속하게 완성』

청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조선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과 문헌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장엄함과 전통 계승에 역점.

환경을 고려한 재사용이 가능한 등

부피가 적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며 수회의 재사용이 가능』토록 고안되어 있으며 작금의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환경운동에 불교계에서도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어 사회적으로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순수 천연 펄프를 사용하여 재사용과 재처리를 통해 자원과 환경을 고려』하여 제작.

야외 장엄 및 점등의 효율성

『순수 천연 펄프를 사용하여 우천에도 관계 없이 행사 수일 전부터 점등하여 축제 분위기 장엄에 활용』『행사 당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점등 작업의 효율성』을 도모.

오직 불심으로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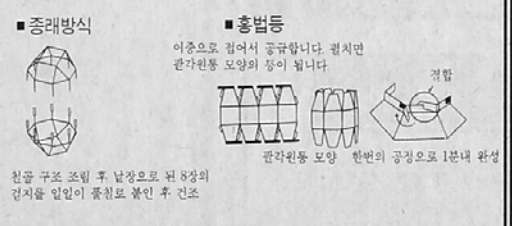


연등 초벌등 종래 철골구조에 한장씩 속지를 바르고 건조 후 연잎을 붙이던 방식을 연등초벌용을 이용하여 1분 내 조립 후 연잎을 붙임

영가등 봉축행사 및 각종 제의식의 영가 천도 등으로 겉지에 아미타불 변상도와 지방보살 만다라가 인쇄, 영가의 왕생극락을 발원

천도 광명등 선망부모님과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은혜의 지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겉지에 부모은중경의 그림과 경문을 사경

1분 완성 홍법등의 구조



오직 불심으로 보답하는 홍법기획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398-6호
전화 : (032) 613-4027~8 팩스 : (032) 665-0965

검정고시(4월·8월 연 2회실시)
국졸·중졸·고졸

학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



72세 할머니가 배우지 못한 설움을 딛고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 만에
중졸·고졸 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 배우고 싶어도 기회와 시간이 없어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해 마련된 절호의 기회!

국교졸업과정	한글반·회원 특별 모집
중학졸업과정	• 쉽게 풀이된 해설 「강의해설교재」 제공
고교졸업과정	• 학교수업식 「강의녹음 TAPE」 제공
학위취득과정	• 1:1 개별 서면 지도 「담임관리제」
	• 「합격보장총정리 문제집」 제공

★등록자격 : ① 개인사정으로 학습기회를 놓치신 분!
② 짧은 기간 내에 '졸업장'을 갖고 싶은 분!
③ 배우고 싶어도 기초부족 시간이 없는 분!
★졸업예정일 : 대년(4월, 8월) 2번 기회(★정부시험 기준)
★졸업후혜택 : 독학 학위 취득까지 특별관리합니다.
특전 : 기초(영어, 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높은 「합격율」 보장! 철저한 개인지도!

■ 졸업자 전원 장학 혜택부여

◈ 본원에서는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특별 관리·지도합니다 ◈

95년 전원 졸업목표 ⇨ 「비디오 가정교사」 특별제공 (개인지도용)

신분비밀보장

축 62세 이정숙 할머니 고교입학자격 취득 영광
막노동하며 검정고시로 서울대합격 김진환 군
50세 쌍둥이 자매 못 배운 한 검정고시로 합격의 영광!

한글반 특별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02) 766-9222

인간교육의 꿈을 실현하는
대한교육평가원(주)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운항만청빌관 2층 218호

너무 영험해서 금서가 된 자미두수!!!

자미경 운명비결

자미도수 144도표판
「자미경 운명비결」 - 인간통계학의 데이타베이스

하늘의 뜻을 헤아리는 우주적 안목을 바탕으로 수천년 이어온 인간 통계학이자 삶의 큰 흐름 자미두수!!!

중국의 자미두수에 관한 연구결과를 종합, 체계화하고, 고대 중국인들의 인간에 대한 통찰을 현대화한 인간 통계학.
단순한 흥미위주의 역술서가 아니라 최초로 한 눈에 조감할 수 있도록 데이타베이스화한 전문 역술인을 위한 본격 역학서이다.
성좌도를 활용하는 데에 있어 보다 쉽고 효율적일 수 있도록 성좌도의 구성요소인 12궁과 12운, 보조성들에 대해 현대인들의 사고와 의식구조에 맞춰 재해석하고 쉽게 설명을 덧붙여 놓았다.
해당되는 명과 궁을 펼치기만 하면 개개인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김석호/337쪽/13,000원(한정판)

신령스런 자미경

상당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자미두수, 그러나 일반인들도 쉽게 자미두수의 신비한 비의를 깨칠 수 있도록 설명된 한글판.
김석호/458쪽/10,000원

변화를 이용하는 지혜 - 주역

주역 연구사상 최초로 지동설적인 관점에서 체계적, 논리적,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인간중심의 관점에서 인간의 변화를 이용하게 해줄 경이로운 지혜서!!!
서우신/566쪽/12,000원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33번지 문학아카데미 TEL/764-5057, FAX/745-8516

일제하 승려대회

사찰령등 '식민불교'에 항거

청년회 주축 107명 참가…자주성 확립 종헌·종회법 제정

김광식씨 최초 연구논문 발표

"일제의 식민지 불교정책으로 인한 31본산의 분립적인 상황, 통일기관 부재로 나타난 불교계의 모순 등을 극복한 1929년 1월의 승려대회는 불교개혁운동 그리고 식민지 정책 반대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

일제하 불교개혁운동과 민족독립운동의 토대를 이룬 1929년의 조선불교선교양종 승려대회를 구체적으로 조명한 논문이 최초로 나왔다.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김광식 책임연구원이 오는 15일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월례발표회에서 소개할 '조선불교선교양종 승려대회의 개최와 성격'이란 제목의 이 논문은 승려대회의 경과와 개요, 종헌 등의 제정내용 및 성격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김씨의 이번 발표는 최근 불교학계가 법난과 승려대회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지난해 불교개혁의 중요한 획을 그은 4·10승려대회 1주년과 때를 같이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김씨는 일제하의 불교계가 승려대회를 통해 불교계의 제 모순을 일거에 해소하게 된 것은 1920년대 초반이래 일제의 사찰정책을 비판하고 불교혁신운동을 지속해 온 청년승려들의 의식이 1928년경 조선불교청년회가 재기(再起)하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집약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대회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은 청년승려들과 당시 불교계가 일제의 사찰령으로 인한 불교계의 모순을 사찰령 제정 이후 20여년 간의 과거 불교계 현실에서 공감하였기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김광식씨

1929년 1월3일~5일 각황사에서 개최된 승려대회는 그 이전, 1928년 11~12월경의 발기대회 및 발기준비위원회 등의 사전준비로 이뤄졌다. 1928년 11월11일 각황사에서 오리산(吳梨山) 등 17명의 재경유지승려(在京有志僧侶)들은 발기회 준비위원회를 열고 권상로 등 11명의 준비위원을 호선했다.

이들은 대부분 민족의식을 소유한 청년승려로서 조선불교청년회원이기 그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당시 대회에 참가한 승려는 107명. 참가키로 예정된 회원 중 43명의 불참자가 있었지만 31본산 대부분에서 대표를 파견, 일단 불교계의 동의를 얻었다. 승려대회는 종헌(宗憲)을 비롯, 중앙교무원 원칙, 교정회 규약, 법규위원회 규칙, 종회법 등을 제정했다.

김씨는 "승려대회는 일제하 한국 불교계가 제 모순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여 자주적 통일적 종단을 이룩하려는 철저한 자기반성에서 배태되었지만, 대회 이후 불교계는 대회에서 제정한 종헌 및 각종 법규의 실행과정에서 식민지 현실과 대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영재의 혁신론도 조명

○…김씨는 지난달 31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월례발표회서 '이영재의 조선불교혁신론 연구'를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이영재의 조선불교혁신론은 한용운, 권상로 등의 불교혁신론과는 차별성을 갖고 있었으며, 당시 재일불교청년회원으로서 혁신론을 서술, 그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는 것이 김씨의 분석.

그의 불교 개혁론은 당시 불교계 제도의 근간인 사찰령 및 그에 비롯된 본말사제도의 개혁을 통한 제도개혁 즉 교단혁명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민주공화정이라는 국가체제를 불교교단 건설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김재경 기자〉

"북한주민 불교거부반응 없다"

지식층 '애국종교' 인식…남북불자 교류촉구

법혜스님 주장



"북한의 지식층은 불교를 애국종교로 알고 있으며, 토착화된 불교에 대해 북한 주민들은 그다지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혜스님(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사진)은 불교천주교 등 6개 종단이 지난달 30일 오후 프레스센타에서 가진 '광복 50주년, 한국 종교인의 통일과제'라는 토론회에 참석, 이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법혜스님은 "북한에서는 70년대 이래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찰과 교회를 신축 복원하고, 종교인 양성기관인 대학 종교학과와 불교학원도 만들었다"며, 지난 4~5년간 북한 불교인과 10여차례의 접촉에만 만족해 온 불교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법혜스님은 "남북한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조사연구와 자료교환, 민족통일기원법회, 불교전통예술단 교환공연 등의 교류와 함께 '자비의 쌀 보내기'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광복 50주년 한국종교의 통일과제' 토론회

'한국민속학' 26집 발간

한국민속학회(회장 김선풍)의 학술논집 〈한국민속학〉 제26집이 발간됐다.

이번 논집에는 '불교민속학의 연구서설'(이창식), '중의 민속학적 일경향'(편무영), '영응소설에 수용된 유불도(儒佛道) 사상의 성격과 서사적 기능'(안기수) 등 모두 15편의 논문이 실렸다.

문화재 발굴요원 교육

17일부터 한국의 집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17일부터 서울 중구 필동 한국의 집에서 '문화재발굴 전문요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은 문화재 관련학과 졸업생·재학생 및 일반인이며 강의는 주1회로 25주동안 열린다. (02)266-6938.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통도사

〈일주문〉
異姓同居必須和睦
(이성동거필수화목)
方袍圓頂常要淸規
(방포원정상요청규)
佛之宗家
(불지종가)
國之大刹
(국지대찰)
각기 다른 성(姓)들끼리 모여사니
반드시 화목해야 하고
가사입고 삭발하였으니
항상 규율을 따라야 하네
절의 종가집이요
나라의 큰절이네

해설 통도사는 불보(佛寶) 종찰이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통도사는 신라선덕여왕 15년(646)에 자장율사가 창건했다.

지금도 이 통도사의 금강계단에서는 비구·비구니계를 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불교를 대표하는 계율의 근본 도량이 통도사이기 때문이다.

앞의 싯귀는 일주문 앞의 양쪽에 선 돌기둥에 새겨진 것이다. 통도사의 전등을 말하는 수도의 규율과 단체생활의 기본 조건을 엄중히 경고하는 이 글귀를 새기면서 절 안에 들어간다면 보다 숙연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일주문의 양쪽에 험있는 필체로 씌어진 뒤의 싯귀도 통도사의 사격(寺格)과 존엄성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힘찬 글씨는 해강(海崗)의 필적이다.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했으니 절집 중의 종가요, 나라의 으뜸가는 사찰이란 뜻이다.

이 일주문은 통도사 기록에 의하면 고려 충렬왕 31년(1305)에 창건됐다고 전한다. 이후의 중건관련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두 싯귀의 주련이 쓰여진 일주문의 중앙 현판은 「靈鷲山通度寺」라고 쓰여져 있으며 대원군의 필적이다.

〈안동·경안중 교사〉

수도·단체생활 규율 엄중히 경고

육신과 혼 중 어느 것이 나입니까

문 제 육신이 있고, 제 육신 안에 전생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혼(魂)이라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것이 저입니까? 〈서울 강남구 대치3동·최영만〉

답 육신이 나도 아니고 의식이 나도 아닙니다. 혼이라는 것은 쉽게 업식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 또한 참 나가 아닙니다. 불성, 즉 영원한 생명의 불과업식, 부모의 정혈이 상합을 이뤄야 생명이 탄생되는데 어느 것 하나를 떼어서 이것이 나이다 하겠습니까. 참 나는 발견하는 것이지, 아니 드러나는 것이지 말로 설명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를 있게한 근본주처, 또는 자성불을 참구해보라고 합니다.

자성불은 더하고 덜함이 없이 찰나찰나 여여하게, 광대무변하게, 전체로서 돌아가는데 중생들이 개별적인 나에 국집하니까 참 나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디에 있을까, 무엇이라고 할까 하고 자꾸만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설명을 구하기 전에 참으로 오묘하게 움직이는 나를 되돌아 보기 바랍니다. 누가 움직이게 했고 누가 말하게 했고 누가 이렇듯 갖가지로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그 근본을 캐어 보라는 것입니다. 캐어보라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입니다.

공부에 '특별한 경계'가 있습니까

문 같이 공부하는 사람 중에 어떤 경계를 체험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가 익으면 특이한 경계를 체험하게 되는지요.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장형순〉

답 하루 종일 안팎으로 경계가 다가오고 지나가고 하는데 따로 특별한 경계란 무엇입니까? 세상에 공안(公案) 아닌게 없고 부처 아닌게 없고 내자리 아님이 없습니다. 일체 경계에 끄달리지 마십시요. 끄달리면 마군에 속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공부하면서 부처를 이루겠다 해도 아니되고 이루지 않겠다 해도 아니 됩니다.

그냥 내 앞에 닥치는 것 마다하지 말고, 탓하지도 반기지도 말고 오는대로 놓도록 하세요. 왜 놓아야 하느냐 묻지도 말고 계속 놓는 작업만 하세요. 그러면 스스로 알 때가 있습니다.

수없이 망상이 떠오르는데요

문 공부를 하려다보니까 수없이 망상이 떠올라 헤매이게 되는데요, 어느 때는 망상이 있기에 보리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바른 생각인지요.

〈경북 김천시 삼락동·정세영〉

답 망상이라는 것도 이름입니다. 망상이라고 생각하면 망상이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겠지요. 그러나 망상이 없다면 목석이지요. 망상이 없으면 발전할 계기도 없을 것이구요. 어차피 고정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마음도 그렇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고 그래서 발전도 할 수 있고 창조력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를 참선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할 때나, 잠잘 때나, 누우나 앉으나 나의 근본 주인공이 있으니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구나 굳게 믿고 여여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인공이 무엇인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본래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무조건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턱 믿어야 하지 '이게 무언가?'하는 생각에 잡혀있으면 좀체로 맛을 보기 어렵습니다.

작년 씨가 변해 올해 씨가 되었으니 작년 씨 찾다가 해를 보낼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저승가면 죽은 사람 만날까요

문 제 집사람이 먼저 갔습니다. 제가 죽어서 저승가면 산 세상과 같이 만날 수 있을는지요. 〈광주 광산구 장덕동·이천웅〉

답 인생이란 만났다 헤어지고 헤어졌다 또 만나고 하는데, 그렇게 한 철 캠핑 나왔다가 돌아가듯이, 구름이 모였다가 비가 되어 흩어지듯이 그렇게 오가는데 한철 도반으로 같이 지낸 일에 착을 두지마십시요. 영원한 만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거사님이 일체 제불의 마음과 일체 조상의 마음, 일체 중생의 마음이 내 한마음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가르침을 믿는다면 이승저승 끝간데 없이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물로 보지 마시고 착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기도를 하면

문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다가도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이럴 때 기도를 열심히 하는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요. 〈서울 마포구 동교동·이진경〉

답 불자님들 중에 절에 다니며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가령 제불보살님께 무엇을 이렇게 저렇게 해주십사 하는 기도는 상대를 세워놓고 거기에 의지하고자 하는 타력신앙이 됩니다. 제불보살님의 가피나 서원을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는 마음으로 그 위신력과 서원을 찬탄하고 본래 제불보살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사무치게 느끼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어떤 경우라도 자기 내면을 관(觀)하는 것입니다. 제불보살의 가르침으로 나의 마음을 비춰보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대상을 세워놓고 한다면 그로써 신심이 돈구어진다 해도 공덕은 없습니다. 공덕이 없으니 남을 이익되게도, 나를 이익되게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도 남에게도 이익이 없으니 '오신통도 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분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활천당 한약방 (대구 약전골목 중간) 한약의 명소 40년 전통 간염 간경화증 상담 요함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66-1 (053-252-8274)

연꽃방 화분·바구니·신부화 꽃다발·생화·조화·동양란·서양란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전화 738-3933 (자택)934-1748

질병인을 건강하게 건강인은 더욱 건강하게 당뇨 위장·변비·천식 등 질병상담 전화:(02)552-1470(대) / 팩스 562-3205 문의시 상담 및 자료우송 주소:강남구 역삼동 827-4 금성B/D 2층

불교서적의 모든 것 불서 총판 운주사 ·종로구 청진동 6번지 ·TEL (02) 720-9372~3 ·FAX (02) 723-0646

한남상사 각종 염주 주문생산 전문 (사찰명, 사진 등 삽입 가능) 단주, 합장주, 목걸이, 팔찌, 차걸이, 주불, 열쇠고리 등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1동 612-5 전화번호 02)795-4083 팩스 02)792-9659

경영간부 특별초빙
당사는 그룹매출 6천억 규모의 중견그룹 계열사로 해외수출 및 내수시장의 급신장으로 인한 95년도 사업확장에 따라 최고의 보수와 대우로 경영일선을 책임질 성실한 간부인력을 특별초빙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불자 환영)

모집부문	인원	응시자격
단위경영책임자	OO명	•연령 40~54세 고졸 이상 •개인사업 3년 이상 경험자 •자금 및 제반사항 회사지원
간부사원	OO명	•연령 37~48세 초대졸 이상 •기업경영업무 경험자 •공기업체 7년 이상 경력자 •보서장금으로 관리 기획분야 경험자 •영관장교 출신자

2.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3. 제출서류 : 이력서 1통
4. 문 의 : 서울 554-4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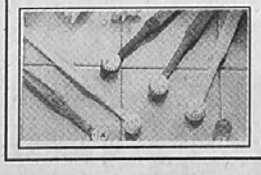
법화경 강좌 강사 최공덕 스님 문의전화 부산:645-6224 대구:952-8711

진여원 불교서적 및 용품 도·소매, 초, 향, 촛대, 각종 유기 도자기, 염주, 목탁, 테이프, 개금, 단청, 불상, 탱화, 승복, 법복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전화:739-2450

관음소 어린이 포교를 위한 불교용품·불교서적 판매 스님을 위한 신변잡화·염주 염가 주문제작 비디오·카세트·설법집·단체용품 기획제작 720-1147(~8)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5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법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사부대중께서는 전화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군산시 나운동 법종주조회사 聖鍾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02)733-6141(서울사무소) (0331)283-2083(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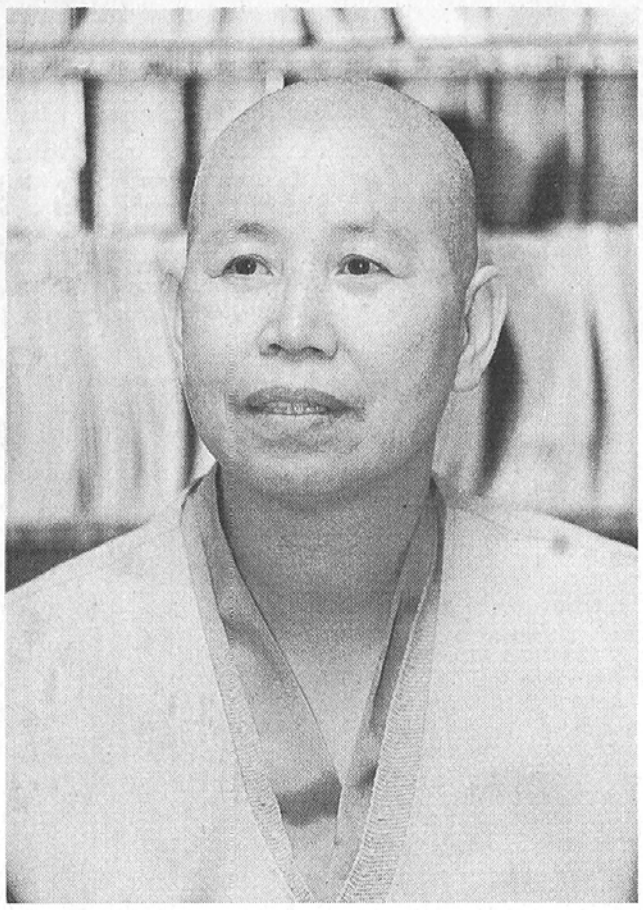
안내 귀의 심보하옵고 전국 제반 고승대덕 큰스님 법체청안하시옵고 불사 순조로우신지요. 아뢰올 말씀은 본인이 다년간 부동산업계에 근무하면서 쌓은 지혜를 스님들께서 사찰 포교당 창건 및 이전하시고자 하는 좋은 장소를 찾으시는데 스님들이 직접 하시기 힘든 부분에 저희가 손발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인연 맺어주시면 부처님의 크신 가피로 알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청송기획 대표전화 (02)998-1994 호출 012-271-5634 팩스 (02)998-1994

칫솔의 기술혁신 국제 특허품

Circle-B® 회전칫솔
좌우로만 칫솔질하세요. 상하 또는 돌려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판매도 합니다.
5개=12,500원 10개=24,000원
■온라인 농협역삼동지점 096-01-239051(서울상사) ■전화:(02)556-3076-7 ■팩스:(02)556-3078

스님 및 지도교사를 위한 찬불가 피아노 반주 3개월 완성
교과특성 개인지도 원칙, 레슨기간 자유선택, 찬불가를 통한 음악이론 및 실기지도, 시창청음 별도수업실시
•등록:수시접수(725-7527-9) •장소:불교교육연구원(조계사 옆)
불교교육연구원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木材활열방지제(갈리짐 변색)
■木材방충·방부제 목재(원목) 수입판매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유풍B/D (을지로 2가)
전화:(02)266-2629, 404-9521 팩스:(02)266-2679

수요 인터뷰



개통5년 '자비의 전화'

회관 정 덕 스님

"고민있는 불자는 전화하세요"

'내가 잘못이다' 라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수행

정보망 '불교 114' 개설·내년 법인화등 추진

불교 전문 전화상담기관 자비의 전화(회장 정덕스님)가 최근 개통 5주년을 맞아 5년간 상담한 내용을 정리, 분석했다. 5년간 총 15만5천여건에 이른 자비의 전화 상담은 지난해 4천9백86건으로 매년 1천여건씩증가해 '물질 풍요속에 정신 황폐'가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있다.

전화상담뿐 아니라 고민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한 문화강좌등의 프로그램개발에 여념이 없는 회장 정덕스님을 인과선원에서 만났다.

-자비의 전화 개통 5주년을 축하합니다. 지난 5년을 평가한 소감은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개통기념일에 앞서 중간 평가를 받는다는 심정으로 상담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5년간의 전화상담을 분석해 보니 상담빈도수가 부부-종교-가정-청소년-인생문제 순으로 나타나더군요. 부부문제가 가장많은 상담을 차지하고 있어 의외라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고민의 유형은 오늘의 사회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때 문제는 해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제를 개선하거나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자신이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것을 알고 이를 시정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비의 전화는 지난 5년동안 교계에 '상담포교'라는 신기원을 수립했습니다. 전화상담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도 펼치고 있다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원봉사자 1백80명

▲그동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고작 전화 상담실만 2개 있었지만 이제는 45명 수용가능한 강의실과 3개의 상담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담시간도 12시간에서 24시간 철야상담체제로 바뀌었고 팩스를 이용한 상담도 개설했습니다.

자비의 전화는 전화상담 이외에도 생활꽃꽂이, 성훈따주기등의 문화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가정 '佛'자 한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자비의 전화 역할이 무척 크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자비의 전화를 찾는 이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매우 성공적이라 평가합니다.

-부부, 청소년문제도 가정문제라 할 수 있는데 결국 심각한 사회문제가 가정에서 기인한다면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원인이 파악되면 문제해결은 어렵지 않을것 같은데...

후원가족들 살림도와

▲요즘 우리는 서로 참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데로 해버리고 마는 자기주장이 강합니다. 자비의 전화를 찾는 이들은 대부분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해요. 공부방, 학원비마련은 물론 용돈도 충분히 주었는데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아이들이나 남편도 문제가 있지만 본인에게 원인이 있지 않은지, 부처님께서 인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가를 짚어보아야 합니다.

자비의 전화는 문제가 자기에게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도록 대화를 나누는 길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의 원인 점모시기 및 가훈써주기 등의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는 가정생활에 활력을 주기위해 마련한 것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계발할 예정입니다.

-여러가지 사업을 펼치자면 재정확보도 만만찮을 텐데요.

▲자비의 전화는 정규교육을 받은 상담원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상담원은 1백80여명으로 3일에 한번꼴로 전화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화상담은 자원봉사로 진행되며 이들이 또한 후원가족이 되어 개달 일정액의 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살림살이가 빠듯하지요.

그렇지만 상담원들을 볼때 마다 부처님이 다른곳에 계시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화상담 자원봉사를 위해 발래는 받아하고 시간을 쪼개서 남을 위하는 이타행을 실천하는 상담가족이 그대로 부처님이어서 항상 마음이 뿌듯합니다.

-전화상담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불교계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전화상담은 처음 위기상황극복에서 출발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자살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전화상담은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불교계는 여기에 포교라는 몫까지 주어져 있어 모든 불자들의 관심과 지원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가끔 '먹고 살만 하니까 할일없이 전화하는 사람에게 상담까지 해주냐'며 전화상담을 부정적으로 보는 불자들도 있습니다. 고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아픔을 모릅니다. 대부분의 고민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지만 주변에서 도와 주면 쉽게 해결될수 있습니다.

불교계의 상담전화는 고민을 호소하는 이들의 심리파악을 위한 상담학이 부족합니다. 부처님이야말로 근기에 따라 법문을 설한 최고의 상담자이지 않습니까. 학계에서 '불교상담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마음의 병 고치는 명의

-93년 2대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임기중에 사단법인을 설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추진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간병인회, 원심회 등과 함께 법인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법인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밖에도 자비의 전화는 다양한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불교계와 일반인들이 불교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불교 114'와 금년 하반기에는 지역여론 수렴을 위해 컴퓨터 통신망에 상담실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담원 교육을 위해 공간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스님은 어려운 이웃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있어 주변에서 '어머니 스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 솔선수범을 보여 상담원들의 긍지가 높은 편인데 상담원과 불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출가할때 중생의 마음과 육체의 병을 고치는 명의가 되겠다고 발원했습니다. 남을 도와준다기 보다 저의 할 일을 할 뿐이지요. 자비의 전화를 맡고 부터는 상담원들이 힘에 부치는 까다로운 상담은 저에게 소개하여 요즘은 하루에도 1백여통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사찰로 전화를 해주는 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능력이 되는 대로 저도 성심껏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는일이 여러가지여서 모두가 만족스럽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담원들에게는 항상 원을 세워 일을 하라고 당부합니다. 그일이 좋은 일이면 꼭 성취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부모 자식 형제때문에 괴로울 때 도리어 그들을 통해 자기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상대에게 참회할 때 불국정토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준엽 기자〉

나의 수행일기

허 기 림 〈한국불교교화원 사무국장〉



'일체 유심조' 교훈삼아서 포교전법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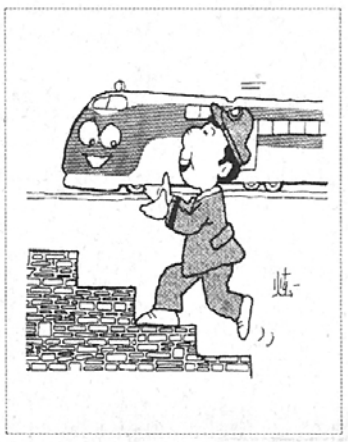
'기관차 사무소 법우회' 산파역할에 감사

나는 부처님 말씀가운데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든다는 '일체유심조'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간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하면 좋은쪽으로 생각하니 우선 내마음이 편하고 인연들과 다툼이 없어 좋다.

나와 부처님과의 첫만남은 중학1년 때 외할머니를 따라간 춘천 안마산 보광사 법당에서였다. 우리집에 다니러 오셨던 외할머니께서 나와 어머니를 데리고 보광사 법당의 부처님을 참배한 것이 인연이 된 것이다. 지금와서 생각하니 시절의 인연이 도래한 것이라 여겨진다.

나의 어머니께서도 지극한 신심으로 사신 분이다. 어린 6남매를 거느리고 사시면서도 부처님 도량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다. 절에 가시기 전날 저녁에는 큰상을 펴놓고 쌀고르기를 시키셨다. 쌀을 고르며 부처님 이야기를 해주시곤 하셨는데 참 재미나는 이야기였다.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여 곧바로 철도공무원시험을 보아 지금의 청량리기관차사무소로 발령받았다. 아들이 제대하고 취직도 되니 어머니께서는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절에 다녀오시며 주지스님의 취직선물이라며 작은 책자 한 권을 가져오셨는데 부모은중경이었다. 불교하면 불공이나하고 절이나 많이하면 부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던 나에게 뜻밖의 감동을 주는 말씀이었다. 불교에 이렇게 자상하고 인간적인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서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부처님 말씀을 배우기로 작정하고 불교입문서와 스님들이 쓰신 책을 닥치는 대로 공부하면서 불교를 여러사람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포교하기로 마음먹고 나선 것이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이야기를 하고 같이 불교공부하자고 설득하여 40명을 모아 법우회를 창립하게 되었다. 그때만 해도 아는 스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비번 날이면 이리저리 뛰었지만 인연을 만나지못해 애를 태웠다. 그런데 전생의 인연인가 전생의 복덕인가 한정섭법사님의 연락처를 알게되었다. 수소문하여 찾아간 곳이 불교통신대학 서울사무실이었다. 그간의 사정을 말씀드리니 기뻐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참 장하다며 힘닫는 데까지 도울테니 열심히 해보라는 말씀과 함께 창립법회 날짜까지 잡아주시며 격려해주셨다. 그때의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다. 지금 생각하니 부처님의 위신력이었다.

이렇게해서 1985년 7월 17일 청량리 맘모스호텔에서 안덕암 큰스님을 모시고 그야말로 장엄한 창립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가르침을 주시는 김병희법사님을 만나 상임지도 법사로 모시고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해 나는 불교통신대학 포교학과에 입학 88년도에 졸업을 하고 포교사가 되었다. 졸업식날 부처님전에 더 많은 포교를 발원하고 전국 기관차 사무소에 법우회를 창립시키는 일로 매진하였다. 그 결과 전국 109개소중에 11개소에 불교법우회가 창립하게 되었다. 지금은 각자 나름대로 법회를 잘 이끌고 포교도 잘하고 있기에 나는 다른 일을 찾아 나섰다.

우리 법당에 어린이법회를 시작하는 일이었다. 1992년 청량선원어린이법회를 창립하고 1993년 중고등부를 창립하여 지금까지 매주 일요일법회를 하고 있다. 금년 7월 17일이 청량리기관차불교법우회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나름대로 포교한다고 했고 부처님 자비실천한다고 수선을 떨었는데 잘하였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히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직장내에 불자들의 의식을 바꾸어 놓았고 불교를 바로 인식시킨 일 등과 부처님오신날 직장 청사주위에 연등 2백여개를 밝혀도 타종교 간부들도 말하지 않는 점 등. 그리고 불자가 언제나 나와 뜻을 함께한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다.

지금은 후배들에게 법우회 운영을 맡기고 나는 또다른 일을 찾아 나선다.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원 포교사·법사회 사무국장직을 맡아보고있다. 지금 우리 교계에는 법사홍수속에 법사부족현상을 맞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어느 개인과 단체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하든 인연따라 힘따라 조직하고 교육해서 이 땅에 불법을 올바로 펼수 있는 인재양성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행히도 대표종단인 조계종에서 포교와 교육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새로운 마음자세로 정진한다는 소식을 접하고보니 다행으로 생각하며 기대되는 바 크다.

부처님께서 간곡히 당부하신 포교전법을 실천하는 것이 불자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계속할 것이다. 포교 전법하는 일도 수행이고 그 속에도 깨달음의 길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불교성지순례

효도관광

태 국 5日
귀 일정: 방콕(아유타야 불교유적지, 새벽사원, 에머랄드 사원, 황금불사원, 대리석 사원, 왓포, 수상시장, 왕궁, 2박)-파타야(미니시암, 농눅빌리지, 산호섬, 2박)
귀 출발일: 4月 13, 19, 20, 26, 27
5月 3, 4, 10, 11, 17, 18, 24, 25, 31
귀 동참금: ₩ 595,000

미얀마·태국 8日
귀 일정: 양곤(1박)-파간(쉬에지곤 탑, 마누하 사원, 1박)-만달레이(백만불사, 보디타타웅, 마하무니 과고다, 만달레이 힐, 2박)-양곤(쉐다곤 대탑, 까바에 과고다, 1박)-방콕(새벽사원, 에머랄드사원, 왓포, 황금 불사원, 대리석 사원, 수상시장, 2박)
귀 출발일: 4月 19, 26 / 5月 3, 10, 17, 24, 31
귀 동참금: ₩ 1,400,000

인도·네팔 10日
귀 일정: 델리(붉은성, 간디 기념비, 2박)-아그라(타지마할, 1박)-카쥬라호(카쥬라호 사원, 1박)-바라나시(갠지스 강, 사르나트 박물관, 2박)-카트만두(티벳사원, 쿠마리 사원, 2박)-방콕(1박)
귀 출발일: 4月 14, 21, 28 / 5月 5, 12, 19, 26
귀 동참금: ₩ 1,990,000

대 만 4日, 5日
귀 일정: 일월담(1박)-고웅·불광사(1박)-화련(태로각, 장춘사, 1박)-타이페이(고궁 박물관, 충열사, 용산사 1박)
귀 출발일: 4月 14, 18, 21, 25, 28
5月 2, 5, 9, 12, 16, 19, 23, 26, 30
귀 동참금: ₩ 530,000 (4日) ₩ 595,000 (5日)

스리랑카 6日
귀 일정: 콜롬보(강가라마 사원, 1박)-캔디(불치사, 1박)-하바라나(시기리아성, 폴론나루와, 1박)-마힌달레 아누라다푸라(관광)-콜롬보(1박)-기내(1박)
귀 출발일: 4月 18, 25 / 5月 2, 9, 16, 23, 30
귀 동참금: ₩ 1,070,000

인도·네팔·스리랑카 9日
귀 일정: 카트만두(쿠마리 사원, 티벳사원, 2박)-델리(간디 기념비, 1박)-아그라(아그라성, 타지마할묘 1박)-기내(1박)-캔디(불치사, 폴론나루와, 1박)-콜롬보(1박)-방콕(에머랄드 사원)-기내(1박)
귀 출발일: 4月 15, 22, 29 / 5月 6, 13, 20, 27
귀 동참금: ₩ 1,895,000

방콕·파타야	5日 ₩ 569,000	방콕(1박)-파타야(2박)-기내(1박) 4月/13, 19, 20, 23, 26, 27 5月/3, 4, 10, 11, 17, 18, 24, 25, 31
방콕·푸켓	5日 ₩ 649,000	방콕(1박)-푸켓(2박)-기내(1박) 4月/13, 19, 20, 26, 27 5月/3, 4, 10, 11, 17, 18, 24, 25, 31
동남아 3국	5日 ₩ 655,000	싱가폴(4박)-바탐·조호바루(관광) 4月/14, 15, 17, 19, 21, 22, 24, 26, 28, 29 5月/1, 3, 5, 6, 8, 10, 12, 13, 15, 17, 19, 20, 22, 24, 26, 27, 29, 31
대만·화련	4日 ₩ 495,000	타이페이(2박)-화련(1박) 4月/15, 16, 19, 22, 23, 26, 29, 30 5月/3, 6, 7, 10, 13, 14, 17, 20, 21, 24, 27, 28, 31
홍콩·마카오	4日 ₩ 529,000	홍콩(3박)-마카오(관광) 4月/13, 18, 20, 25, 27 5月/2, 4, 9, 11, 16, 18, 23, 25, 30
홍콩·방콕·싱가폴	8日 ₩ 995,000	홍콩(2박)-마카오(관광)-방콕(1박)-파타야(2박)-싱가폴(2박) 4月/16, 23, 30 5月/7, 14, 21, 28
방콕·푸켓·싱가폴	6日 ₩ 795,000	방콕(1박)-푸켓(2박)-싱가폴(2박) 4月/18, 25 5月/2, 9, 16, 23, 30
하와이	5日 ₩ 699,000	호놀룰루(3박)-기내(1박) 4月/13, 15, 16, 19, 20, 22, 23, 26, 27, 29, 30 5月/3, 4, 6, 7, 10, 11, 13, 14, 17, 18, 20, 21, 24, 25, 27, 28, 31
지중해 일주	20日 ₩ 4,650,000	파리(1)-카사블랑카(2)-지중해관광-탕기에르(1)-지브랄타(관광)-말라가(1)-그라나다·코르도바(관광)-세빌리아(1)-리스본(1)-마드리드(2)-바르셀로나(1)-아테네(1)-이스탄불(2)-캐루설렘(2)-카이로(2)-룩소(1)-기내(1) 4月/15, 29 5月/6, 13, 27
중남미 일주	20日 ₩ 4,980,000	나assau(1)-아카풀코(2)-멕시코시티(2)-리마(1)-쿠프코(2)-리마(1)-상파울로(1)-이과수(2)-부에노스 아이레스(1)-리오데자네이로(2)-마나우스(2)-마이애미(1)-기내(1) 4月/16, 30 5月/14, 28

여행조건 20人 이상 출발, 전 일정 식사 제공, 특급 및 일급 호텔 사용, 해외 여행자 보험 자동 가입, 현지 가이드 동행

21세기를 지향하는
불교 성지 순례 전문 (주)아 태 관 광
국외 여행업 제817호
☎ 732-3200 (代)

다시 푼는 경서 — 치문경훈 ⑼

明覺禪師壁間遺文(명각선사벽간유문) ①

夫傳持祖燈 嗣續佛壽 此非小任
부전지조등 사속불수 차비소임
宜最前修 肅爾威儀 尊其瞻視
의경전수 숙이위의 존기첨시
慈忍奩慾 治氣養心
징분질욕 치기양심
無以名利 動於情 無以得失 介於意
무이명리 동어정 무이득실 개어의
無隨世之上下 無逐人之是非
무수세지상하 무축인지시비
黑白 置之于胸 喜怒 不形於色
흑백 치지우흉 희노 불형어색

무릇 조사의 등불 마음으로 전해가지고 부처님의 혜명을 잇는 것은 작은 임무가 아니니

마땅히 앞서 닦은 이를 경모해서 행주좌와 위의를 엄숙히 하고 그 존귀함을 우러러보며

분노를 막고 사욕을 눌러 심신을 다스리고 길러

명리 때문에 뜻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득실 때문에 개의함이 없게 하라.

(또한) 세상의 상·하를 따르지 말고 사람들의 시비를 쫓지 않도록 하라.

흑백(시비선악)을 가슴에 묻어두고 기쁨·노여움을 얼굴·몸으로 나타내지 말라.

樂人之樂 猶己之樂 憂人之憂 若己之憂
락인지락 유기지락 우인지우 약기지우

자기 단점 변호하지 말고 남의 장점 덮으려 말라

현자 받들고 욕망 이겨 본래 착한 바를 드러내라

容衆尊賢 克己復禮 無因小隙 失素所善
용중존현 극기복례 무인소극 실소소선
無背公議 棄素所諫 能不可矜 勢不可恃
무배공의 기소소소 능불가긍 세불가시
無護己短 無俺人長
무호기단 무엄인장
見德 不可忘身 存貴 不可忘賤
견덕 불가망신 존귀 불가망천

남의 즐거움을 자기 즐거움 같이 즐거워하고 남의 근심을 제 근심같이 걱정하라.

대중을 포용하고 현자를 받들며 제 욕망을 이겨 예로 돌아가며(지키며) 작은 틈새(언행·마음씀의)로 인해 본래로 착한 바를 잃지 말라.

(또) 공론(여럿이 논의함·여론)을 등짐이 없이 본래로 멀리해야 할 바를 내어 버리며 능함을 자랑하지도 말고 세력에 기대지도 말라

자기의 단점을 변호하지도 말고 남의 장점을 덮으려 하지도 말라

덕을 보매 가히 몸을 잊어서는 안되고 귀한 데서 천한 것을 잊어서도 안된다.

(도를 구한다고 하여 몸을 함부로 하거나 세간사를 하찮게 보지 말라는 뜻)

且夫學本修性 豈遑人之不知
차부학본수성 기온인지부지
道貴全生 無施世之爲用
도귀전생 무삼세지위용
人惡譏議 理固推餘 必也篤屛心誠
인혹모의 리고추여 필야독이심성
誨以規矩 博援群籍 深示妙宗
회이규구 박원군적 심시묘종
慈室忍衣 不可須臾而離
자실인의 불가수유이리
大方寶所 欲其造次必是
대방보소 욕기조차필시
動息有常 嫌疑必愼 人不可侮 天不可欺
동식유상 혐의필신 인불가모 천불가기

또 배운다고 하는것은 본래 성품을 닦음이라 어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고 섭섭타 할 것이며

도는 온전한 삶을 (삶 그대로를) 귀히 여기는지라 세상의 쓰임새를 베어 없애는게 아니니라

사람이 의를 사모함에 미혹하면 도리는 진실로 그밖의 것으로 밀리게 되나니 반드시 그대의 마음과 정성을 두텁게하여

법도와 본보기로 가르치며 널리 많은 책을 원용하여 오묘한 종취를 엄히 보여라.

부처님의 인의(인욕하는 마음이 갑옷 같다는 의미)를 눈깜짝 새라도 여의지 말며

부처님의 깨달음 자리에 잠깐만이라도 반드시 그렇게 되고자 할지니

움직이고 그침(나고 듦)에 항상 떳떳하고 의심하기를 반드시 삼가라

(망념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니 이에 혐의를 두지말라는 뜻도 됨)

사람이 가히 업신여기지 못하고 하늘은 속이지 못할 것이다.

衆之去來 無追無拒 人之毁譽 無悲無貪
중지거래 무추무거 인지훼예 무에무탐
內無所慙 外無所恤
내무소참 외무소휼
或若聲華溢美 利養豐多
혹약성화일미 리양풍다
喜四趣之果因 愼三寶之交互
외사취지과인 신삼보지교호

대중이 가고 오는데 좇지도 말고 막지도 말며 사람의 비방과 칭찬에 성내지도말고 탐하지도 말라 (번뇌망상의 나고 듦, 안팎 경계의 오고 감을 뜻하기도 함)

마음안으로 살펴 부끄러운 바 없이하고 밖으로 근심하는 바 없이하라

혹 명성이 드날려서 넘칠지경이라 재물과 이익이 풍족할지라도

사취(지옥·아귀·축생·아수라)의 인과를 두려워 하고, 삼보물을 어긋매겨 쓰는 것을 삼가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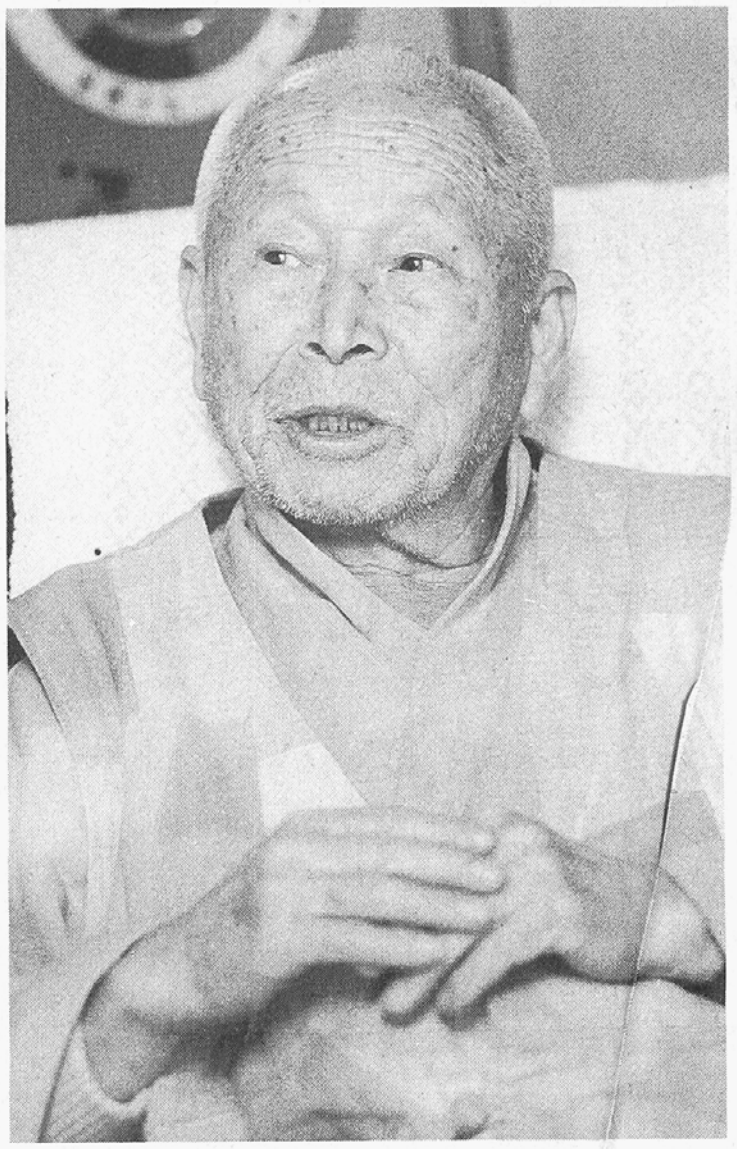
龍眼

★ 지상법석

칠보 보탑 쌓는 공덕보다

수행과 자비실천으로 일관해온 석주 큰스님이 평생닦은 마음공부를 서예작품에 담아 개인전을 19일부터 25일까지 운현궁 갤러리에서 갖는다.

불우노인들을 위한 양로원 건립을 위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전시회에 앞서 평소 검소와 청정생활을 실천해온 석주 큰스님의 법문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석주스님 〈칠보사 조실〉

약력

- 1909년 3. 4 경북 안동 生
- 28년 남전스님 은사로 출가
- 범어사 대교과 졸업
- 78·89년 조계종 총무원장 역임
-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의원, 중앙승가대 명예학장
- 저서 〈물고근세 백년〉

"과거·현재·미래를 다알면 모든 방편을 초월 심력을 얻습니다"

문수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사람이 고요히 잠깐동안 앉아있으면 수승하기가 항하사와 같은 칠보탑을 쌓는 공덕보다 수승하다. 보배탑은 필경에 소멸되어서 가는 티끌이 되거니와 항상 깨끗한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은 필경에 성불한다"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잠깐 앉아서 입정한 공덕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잠깐 고요히 앉아있는 그 공덕이 칠보를 가지고 항하사와 같은 보탑을 쌓는 공덕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하면 보탑은 필경에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칠보로 가지고 조성한 보탑은 시간이 지나면 그 풍화우세에 마멸이 되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잠깐 앉아 있는 그 깨끗한 마음은 꼭 성불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보로 보탑을 쌓은 그 공덕보다도 잠깐 앉아있는 그 공덕이 더 수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간을 모두 다 고요하게 안정 하지 못하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타고난 대로 살아가겠지만 우리가 더 잘 살기위해서 부처님께 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좋은 자리는 서로 다 양보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자리는 남에게 다 돌려주라 하셨습니다.

제일 나쁜자리에 내가 앉으라 하셨으니 그것이 모두 복을 받을 일이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이 본래 법성자리로 보아서 우리 마음에는 본래 오고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허스님이라 하는 유명한 우리나라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억천겁을 지내도 옛날이 아니고 만세를 지낸다 하더라도 항상 이제와 같다'하셨으니 이 자리에는 본래 오고가는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화엄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생각으로 널리 한량없는 겁을 보나니 보는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삼세(과거·현재·미래)의 일을 요달할 것 같으면 모든 방편을 초월해서 심력을 얻는다' 하셨으니 이것은 바로 부처님이 된다는 말입니다. 부처님 법문은 방편법문이 많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 중생들의 각자 마음이 다르고 기틀이 달라 그 근기에 따라 부처님께서 여러가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것입니다.

경이라는 것은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이를테면 부산 사람들을 위해 서울은 어디로 어디로 해서 간다는 노정을 안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말씀해 놓은 것이 경전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부처님이될 수 있도록 부처님이 말씀해 놓은 것을 팔만사천 법문이라 합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는 팔만사천가지 번뇌가 있다고 합니다. 번뇌라는 것은 마음의 때를 말 합니다. 번뇌를 정확히 말하면 '번요뇌란(煩擾惱亂)'이라 합니다. 흔들어서 괴롭히고 어지럽게한다는 뜻입니다. 본래 우리 마음은 다 부처님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보리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리심은 말하자면 우리들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들의 본 마음입니다. 번뇌라는 것은 손님과 같은 것입니다. 번뇌를 객진번뇌라 합니다.

손 객자 티끌 진자 '번뇌', 이를테면 우리의 가정이나 하숙집 같은데 손님이 오면 며칠 묵다가 일을 다보고 나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같아서 객진 번뇌라 하는 것입니다. 손님이 왔다가는것과 마찬가지로 번뇌는 언젠가는 왔다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번뇌는 언젠가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번뇌만 없어지면 우리들의 본 마음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일컬어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부처님을 다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뇌는 왔다가는 것과 같고 반면에 우리들의 본 마음은 부처님

대우자동차 전 차종 특별판매



대상차종

아카디아 · 브로엄 · 프린스 · 에스페로
씨에로 · 르망 · 티코 · 다마스 · 라보

- 리스 할부
- 인도금 없이 전액 자체 할부(국민차)
- 차종에 따라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한정판매)

자세한 문의사항은

• 전 화 : 718-0973~4 • 호출기 : (015)305-3933 • 담당자 : 이 계 천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기초교리 입문서 천수경강의

천개의 손과 눈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석우스님 지음



교리강좌 10년 강의의 총결산
완전한 기초교리입문서 완성

불교를 알고 싶은 사람은 이제 혼동하실 필요없습니다.
불교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이 책 숙에서 찾으십시오.
불교의 기초에서 완성까지 전반적인 것을 다루었습니다.
진작에 누군가 썼어야 할 책입니다.
이제 불교를 미신이라고 절대 말하지 못합니다.
불교는 진리이고, 과학입니다.
지성인과 미래인을 위한 종교입니다.

석우스님 지음 / 신국판 / 404쪽 / 값 6,5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30번지 전화 720-1147~8

지 상 법 석

번뇌 끊는 마음 더 중요

"거울은 먼지만 털면 만물을 비추듯이 하루 하루 반성하면 자기 본성 나타나"

내 몸낮추고 좋은자리 양보하는 자세 '깨달음의 길'

"욕심비우고 남위해 살면 복받고 부처님 될수 있어"

경잔을 이정표로 삼아 수행…날마다 생활 달라져야

이라합니다.

보리는 우리들의 주체고 주인공이지만 번뇌라는 것은 잠깐 생겼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여름날 갑자기 검은 구름이 일어나 소나기가 오고 천둥이 치고 하는 현상이 오래 가지 못하고 날이 개이면 맑게 개이는 그런 현상처럼 우리 마음도 그러합니다. 번뇌에 가려서 우리들이 일시적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 보면 우리가 가는 곳은 깨끗하고 구름 한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래를 내려다 보면 하얀 구름이 뒤덮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털어서 없애 버려야 하는 것 입니다.

이것은 모든 경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화경에도 '중생들에게 불지견(佛知見)을 보여서 청정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으며, 불지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불지견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이 이 세상 오신뜻은 불지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그런가하면 우리들이 참답게 잘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부처님을 깨달아야 모든 괴로움을 여의고 윤회에서 해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것도 필경에는 그 회향이 부처님 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완전히 생사를 초월해서 대지혜와 대해탈을 통한 대자유를 얻어 마음대로 살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처님을 깨치기 전에는 영원히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자성부처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법문이고 그 하루 반성을 하고 수시로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저 우리의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부처님이 하지말라는 것은 안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본성은 다 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물라 검은 구름이 일어나 해를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울 자체에 먼지가 앉아서 그 맑음이 없어지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막혀있기 때문에 좋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으뜸가는 근본교육인 가정교육의 부재 탓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잘 기르게 되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좋은 어버이 밑에서 자랐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에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이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교육은 그 어느 교육 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원만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기만 한다면 절대로 나쁜짓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걱정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모님께서 걱정이 적은 것은 이 몸과 망심을 보배로 삼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셨습니다.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모두 천당에 적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무도 지옥에 같이 가자고 권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가는 사람이 많은 것은 이 몸과 마음이 욕심으로 꽉차서 그것을 자기의 재물로 삼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누구나 복을 받고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범망경에보면 '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다 돌려주고 악한 일은 모두 자기에게 돌리라'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남을 존경해야지 나만 잘 살겠다고 해서는 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님이 되어 처음 배우는 초발심자경문에 보면 '내가 아니다 하는 그 상이 무너지는 곳에 함이 없는 도가 스스로 일어나고, 무릇 하심하는 자에게는 만가지 복이 모두 날 위해서 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심이라는 공부는 정말 좋은 것이니 참선하고 염불하는 중에도 '나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안되다. 선인들이 여기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특히 거울에 비유를 많이합니다.

거울이 있는데 깨끗할 때는 김씨가 오면 김씨를 비춰주고 이씨가 오면 이씨를 비춰주고 무엇이든지 앞에 오는 것은 그대로 다 비춰주는 그런 힘이 거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울에 먼지가 겹겹이 앉게되면 비춰주는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비춰주던 그 힘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거울에 있는 먼지만 깨끗이 닦아주면 다시 옛날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비춰주게 됩니다. 지금 우리 중생은 모두가 번뇌망상에 가려서 자기 본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번뇌의 구름이 활짝 개이게되면 우리들이 본래 갖추고 있는 부처님이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되는 것이 제일의 목적입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우리들로 하여금 본래 한분씩 모시고 있는 이 부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 하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꾸 향상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달라지고 법회 나올 때마다 깨닫는 바가 있어서 생활이 조금씩이라도 향상되고 진취성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 나올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아무런 향상이 없으면 절에 나오나 마나 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 감에 절대 이웃 사람들을 괴롭혀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요즘 보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사람도 있고 지존파라 하여 여러 사람의 생명을 위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사람죽이길 파리죽이는 것 보다 더 쉽게 압니다. 그래서 요즘 이구동성으로 인간의 본성을 되찾아야 한다고들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부처님입니다.

우리들이 잘못하면 스스로 잘못된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과거에 익힌 버릇에 의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존속살해 세상
가정교육 부재탓
본래의 성품 찾기
부처님께 발원해야

정 하실 일을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또한 자식에게 효도를 받을려면 부모가 먼저 효도 받을 일을 해야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식을 올바로 교육시키며 키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축원하는 모든 것이 남을 위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원문을 보면 '원컨대 이 법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같이 성불하여지이다 ' 하는 그런 뜻으로 혼자하는 축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원효스님 법문에 보면 '막지도 않는 천당에는 가는 사람이 많고 지옥에 같이 가자고 권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가는 사람이 적은 것은 욕심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심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법문 많이 듣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저 한마디라도 들어 실행하는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도 내 마음이 시끄러워 집니다.

법화경의 상불경보살품의 상불경보살은 '나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당신들이 장차 다 부처님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네가 무엇인데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돌을 던지고 때렸습니다. 그런데도 멀찍이 물러서서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매를 맞아가면서도 때리는 사람들을 존경한다며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데는 반드시 하심을 해야 합니다. 내 몸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해야만 자신도 존경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부처님께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복 받을 일을 해야 합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22

양 형 진

불생불멸

일체는 순간적 존재물…영원불변한 물체는 없어

"양성자 속에 무수한 미립자 찰라생멸" 물리학 밝혀

일체 사물 즉 일체법이 연기이며 무자성이라는 연기무자성공론이 용수보살이 확립한 중관사상의 근본이다. 이 중관사상은 부처님이 설한 중도사상을 계승한 것이요 후에 삼론종은 물론이고 천태종 화엄종 선종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파에 그 영향을 미쳤으니, 모든 불교사상의 근본적인 교의가 된다고 하겠다. 중관사상에 관한 용수보살의 대표적인 논서가 중론(中論)이요, 이 중론의 맨 처음 귀경계에서 밝힌 내용이 팔불중도(八不中道)이다. 이 글에서는 이 팔불중도를 대표하며 반야심경에도 나오는 구절인 불생불멸(不生不滅)을 찰라멸론과 연관시켜 이야기해 보겠다.

연기와 무자성공 그리고 마음에 나타나는 연기에 의한 객관 등에 대하여 이해한다고 하여도, 나에게 이러한 감각을 제공하는 객체는 실재하여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내 눈 앞에 보이는 책상이 실재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에게 책상이라는 모습이 보일 것이며, 또 어떻게 책상이라는 관념이 생겨나느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일체의 존재자를 인연생기하는 무생한 존재로 보는 무상관이 근본 불교 이래의 기본적 교의라면, 위의 의문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러한 의문은 인도 불교철학에서의 순간적 존재론 즉 찰라멸론의 논의와 연관된다고 생각한다. 찰라멸론이란 우리가 보는 사물이 언뜻 보기에는 순간순간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매 순간마다 생멸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의하면 우리가 보는 한 순간 전의 존재와 한 순간 후의 존재는 이 생멸의 과정에서의 원인과 결과 즉 인과로서 이어지는 서로 다른 두 사건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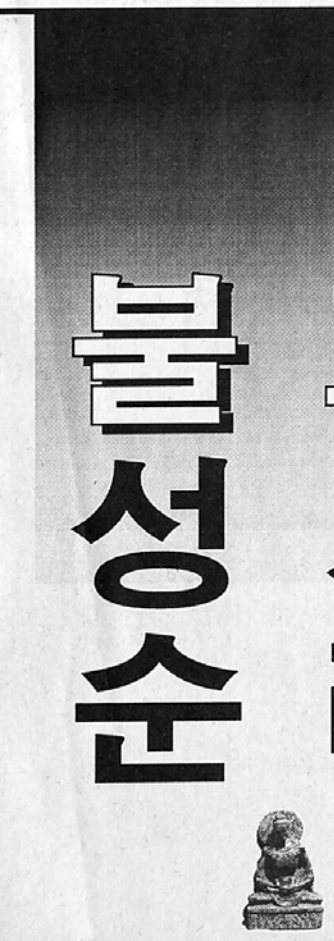
그러나 순간적 존재에 관한 이 명제는 이미 그 자체가 우리 지각에 현현하는 것 배후의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우리의 지각에 의해 확인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리학적으로만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었다. 이 논증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현대물리학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지를 논의하고자 한다(다소 까다로운 이 논증을 최대한 간략하게 소개하겠으니 관심있는 분은 인도불교철학책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만약 자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자가 있다면, 이 존재자는 다음 순간에 존속하게 되고 그 다음 순간에도 또 존속하게 되므로, 이러한 존재자는 영원히 존속하게 된다. 따라서 사물은 한 순간 존재하고 사라지든지 아니면 영원히 존재하든지의 두 가지의 양상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둘의 중간적인 양상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반소중배척논증법(反所證排斥論證法)에서는 '존재하는 것은 찰라멸이다' 라는 명제를 찰라멸이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확증을 시도하였다. 존재하는 것은 효과적 작용성을 말하므로, 작용은 한 순간에 즉동시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간격의 시간에 걸쳐 즉 계시적(繼時的)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존재자가 계시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각 순간마다 그 본성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작용의 순간 전후에 다른 본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어떠한 것도 영원한 작용일 수 없고, 또한 작용이 없는 것은 비존재를 의미하므로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체의 존재는 순간적인 존재라는 논증이 성립한다.

이제 현대 물리학의 입장을 살펴보자. 자연의 궁극적 구성물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물리학은 그 실체를 하나하나 해명해가고 있다. 원자론에 의해 이 우주의 다양한 물질은 1백여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음이 밝혀졌고, 뒤이어 이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반지름은 10^{-15}m 정도이다. 이것이 얼마나 작은 크기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양성자나 중성자를 지름이 10cm인 사과에 비유한다면, 1cm라는 길이는 지구에서 태양에 이르는 거리에 해당된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작은 양성자나 중성자의 내부에서도 무수한 미립자들이 순간순간 생성되었다가 소멸한다는 것이 현대물리학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이 미립자들의 전형적인 생멸은 10초이다. 이 짧은 찰라를 사는 무수한 미립자들이 순간적으로 생성되고 순간적으로 소멸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찰라멸하고 있다. 생하면서 동시에 멸하는 이 존재자의 양태를 어떻게 생한다거나 멸한다는 한 단어로서 드러낼 수 있겠는가? 불생불멸이라는 말 이외에는 더 할 말이 없다.

이러한 현대의 물질관은 비단 찰라멸론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생멸하는 미립자가 상의상대하는 존재여서 자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는 찰라멸론을 인정하면서도 사물의 본성이 과거·현재·미래의 삼세에 걸쳐 실유한다는 설일체유부에서와 같은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대 물리학의 자연관은 연기무자성공론에 기초한 찰라멸론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이러한 자연관은 일체 존재가 다른 것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따라서 근본 불교 이래 대승철학으로 이어져 온 무상하고 무자성공이라는 불교의 근본 교의를 우리에게 예증하고 있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백 두산·연길·북경 5일
· 출 발 : 5월 3일, 6월 3일
· 동참금 : 110만원
· 일 정 : 서울-심양-연길-백두산-북경-서울

스리랑카 6일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 출 발 : 4월 21일, 6월 2일
· 동참금 : 118만원

■ 여행조건 ●특급 및 1급(인도성지지역은 현지최고 수준)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제공(인도성지지역은 한식제공) ●최소 출발인원: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인도네시아 5일
-세계 최대의 불교기념비:보로부두르 사원-
· 출 발 : 5월 7일, 6월 4일
· 동참금 : 95만원

대 만 5일
-불광사·화련·타이케이-
· 출 발 : 5월 2일, 6월 5일
· 동참금 : 65만원

중 국불교유적지 13일
· 출 발 : 5월 30일
· 동참금 : 195만원
· 일 정 :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숭산 소림사-정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

실 크로드 불교 유적지 11일
· 출 발 : 6월 3일
· 동참금 : 188만원
· 일 정 :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돈황(천불동)-투르판-우룸치-북경-서울

티 벳·네팔 10일
· 출 발 : 4월 22일, 5월 27일
· 동참금 : 230만원
· 일 정 : 서울-카트만두-라사-체탕-장체-시가체-라사-카트만두-서울

인 도·네팔·태국 10일
· 출 발 : 4월 21일
· 동참금 : 150만원
· 일 정 : 서울-방콕-델리-사르나트-부다가야-파트나-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카트만두(보드넛·스와이앰부넛)-방콕(새벽사원 에메랄드사원)-서울 ■한국음식 제공■

고은 불교 대하소설

그들의 하루하루



23



그림 · 조향숙

산꼭대기 밑의 움막과 산중허리의 암자, 그 밑의 암자를 내려오면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큰 방이 있는 갈대암자들로 이곳의 정사(精舍)들이 배치된 터였다.

우녀와 합두가 거처하는 곳은 아래에서 첫번째 암자이므로 자연스럽게 남성 수행자들에게 보호되고 있는 처지가 되었다. 거기에서도 파도소리는 크게 들렸다.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의 파도소리 때문에 눈 앞에 있는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해도 그 말을 들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수중원혼(水中怨魂)의 어떤 저주(咀呪)조차도 그런 파도소리 가운데서는 있으나마나한 것이 되겠다고 만화가 껄껄댄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니승(尼僧)들의 거처보다 더 내려와 있는 갈대암자는 아예 사람들을 귀머거리로 만들기 십상이었다. 바로 인담과 수원 수월들이 거처하는 곳이며 10명 전원이 모이는 특별정진이나 대중 공사(公事)와 법회가 있을 때에만 저 위쪽에서 내려와 함께 모이는 곳이 그렇다.

과연 이곳에서 인담은 오래동안 파도소리 속의 인담이었던 것이다. 그는 혼자였으므로 누구의 말을 들을 까닭이 없고 누구에게 말할 까닭이 없었다.

어쩌다가 한 마디 독백이 입 밖으로 나오면 나오자마자 파도소리가 커다란 악어의 입이 모기 한 마리를 삼키는 것처럼 삼켜 버리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어떤 소리의 독립도 용납하지 않는 항상 성난 파도소리도 그것에 익숙해지면 파도만이 눈 앞에 보일 뿐 끝내 그 파도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파도소리로부터 초월한 상태가 그것이겠다. 그때부터 저쪽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도 들리는 귀의 힘이 살아나는 것이다.

인담이 실성한 우녀를 데려왔을 때 그녀가 이 섬의 첫날밤에 격렬하게 울부짖던 때보다도 차라리 그 발작이 가라앉은 뒤의 그녀가 고즈넉히 중얼거리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까닭이었는지 모른다. 그때 그녀의 떨리는 입에서 나온 것이 있었다.

밤마다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아침마다 부처와 함께 일어난다
부처 있는 곳 알고자 하건대
말 하고 말 없고
가고 멎는 곳 살펴 보아라

(夜夜抱佛眠
朝朝佛共起
欲識居佛處
語默動靜上)

이 노래를 들은 인담이 깜짝 놀란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인담은 그녀를 더이상 건들어 보지 않았다. 그 노래를 어디서 들었느냐고 묻지 않았던 것이다.

저 6세기 중반의 부대사(傅大士)의 게송이 아니던가. 부대사는 부흡(傅翕). 그가 24세일 때 인도 승려 숭두타(嵩頭陀)를 만난 이래 쌍도수(雙搗樹)사이에 암자를 지어 아내 묘광(妙光)과 함께 수행을 한 재가선(在家禪)의 대가였다.

한때 그는 단식분신(斷食焚身)의 서원을 세웠다가 제자들의 만류로 그만두어야 했는데 그대신 제자 19명이 대신 몸을 태웠다 한다.

바로 이같은 부대사의 게송이 전혀 연관이 없는 뒷날의 우녀 입에서 흘러나온 것에 인담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밤마다 밤마다… 아침마다…"

우녀의 입에서 나온 이것은 며칠 전의 합두에게도 한 말이거니와 도대체 어떤 공통된 경지로 우녀가 부대사의 그것을 이어받았단 말인가.

인담의 머리 속에 어떤 차디찬 칼끝이 스치는 것 같은 생각이 있었다. 그것은 우녀의 어느 전생(前生)이 바로 부대사의 아내 묘광이었거나 아니면 부대사 자신이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전생이란 무엇인가. 금생(今生)만으로 턱없이 부족한 시간을 과거의 세계로 연장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 전생이 실지로 있다면 바로 거기에 우녀의 전생도 없지 않을 것이다.

어쨌거나 이 일로 인담이 김종무 즉 불이가 임춘의 후신이라는 어떤 확신에 다가갈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녀는 인담이 없는 자리에서도 부대사의 게송을 드높이 벗어나는 저 아득한 허공계의 어떤 형상도 없는 진리의 힘이 깃들어 있다. 저문 마을을 저기압의 연기로 채우고 있는 먼 풍경처럼.

파도소리는 언제나 성난 것은 아니다. 어제까지, 마치 이 세상을 다 파묻어버릴 것 같은 파도소리, 언제까지라도 잠들 줄 모르며 이 세상을 아주 파묻어 버릴 것 같았던 파도소리가 바로 오늘 아침에는 아주 유순한 뒤척임 말고는 아무런 희로애낙의 감정도 없는 것처럼 그 본래의 수면(水面)으로 돌아가 있는 것이다.

이런 때는 두 사람의 말소리도 훨씬 은밀해졌다. 합두의 말소리는 정녕 그윽하였다. 과연 말소리에 숨겨진 것이 있어야 하였다. 오전의 좌선이 끝나자 바로 후원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밥 짓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좌선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짧다. 아니 밥짓는 일로 좌선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런 합두의 후원 일에 우녀가 팔짱끼거나 혼자서만 방 안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도 한동안이 지나서 방을 나와 후원의 일을 이것저것 챙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주 잘 정돈된 오후처럼 조용하였다.

거기에 인담이 방선(放禪) 뒤 나타났다.

"여기는 동(動)과 정(靜)이 하나입니다"

"합두스님이 있는 곳이라…"라고 우녀가 합두를 내세웠다.

"아닙니다"라고 합두가 어쩔 바를 모르고 몹시 당황하는 숨결로 말하는 것이었다.

이런 합두에 대해서 우녀 역시 그녀의 좀더 국량이 큰 숨결로 대하였다.

"저도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두분 다 무욕도의 보살입니다"

"보살의 손에는 보살이 들려있고 보살의 발에는 보살의 신발이 신겨져 있겠지요. 우리 스님이야말로 보살이십니다"라고 우녀가 인담을 참다운 마음으로 찬탄하였다.

그때 인담이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른 말을 꺼냈다.

"아무래도 수원스님이 시원찮습니다. 이번의 움막 정진에서 열(熱)이 위로 올라가 머리가 염증에 시달리며 열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횡뎅그렁하게 큰 눈동자도 충혈되어 있습니다"

우녀가 뭉명스럽게 나섰다.

"그렇다면 무엇하러 좌선을 한다고 앉아있게 합니까?… 그저 밤낮으로 잠이나 실컷 자게 내버려 둘 일 아닙니까?"

"본인이 마다하는 모양입니다"

"만화스님이 나서서 생각을 돌려 놓을 일 아닙니까"

"만화스님 대신 불이스님이 나선 모양입니다"

"호오 뱃사공이 나설 일을 괜히 선비가 나섰습니다. 하기야 수원스님도 문자를 아는 축이지요"

섬의 기슭에 한척의 배가 닿았다. 어둠속의 사나이 서넛이 배에서 섬으로 내려섰다. "웬 횃불인가" "우리들 중의 누구인가" 그들은 둘러보며 확인했으나 아무도 빠져 나가지 않았다.

곧 사람들이 낮 밥시간에 내려왔다. 우녀가 슬쩍 수원쪽을 살펴보았다.

벌써 열꽃이 머리 전체에 번져 있었다. 두 눈도 가괴하게 붉은 기운으로 차 있었다. 그 옆에서 떠나지 않는 근엄한 불이가 그런 수원을 늙은 어머니가 둔 늦동이 어린 아이를 지나치게 애지중지하는 것처럼 감싸고 있었다.

우녀가 한 마디를 파도소리에 던졌다.

"수미산은 고사하고 철위산(鐵圍山) 둘레도 넘어갈 수 없는 노릇인가!"

그녀의 말 끝에는 먼 곳에서 일어난 일처럼 아무런 실감도 없는 한숨이 새어나왔다.

수미산은 우주의 풍륜(風輪)과 수륜(水輪) 금륜(金輪)의 엄청난 세계를 올라가서 철위산의 커다란 둘레를 채우고 있는 바다와 민물 그리고 그 물 사이의 여러 산들의 세계를 넘고 넘어서야 다다를 수 있다. 그럴진대 처음의 철위산 둘레도 넘을 수 없다면 아예 허공계의 한 미진(微塵)이거나 눈으로 볼 수 없는 미립(微粒)의 분자(分子)이거나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우주의 원소(元素)인지도 모른다. 수원의 열병이 그런 지경으로 예정된 것을 뜻하는 것인가.

그날밤 꿈이 잘 맞는 인담의 새벽꿈 속에서 수원스님이 피리를 불며 두 다리와 허리에 구름자락을 달고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저런!"하고 그 구름 자락을 손으로 잡으려다 놓쳐버리는데서 꿈을 깼다.

마침 새벽 예불시간의 종을 남각이 어둠 속에서 치고 있었으므로 꿈을 깬 인담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로 그 시각이었다. 섬의 기슭에 한척의 배가 닿았다. 어둠 속의 사나이 서넛이 배에서 섬으로 내려섰다. 아미도 섬의 내막을 알고 있었는지 벌로 두리번거리지도 않고 성큼성큼 갈대암자로 향하는 것이었다.

앞서 가는 사나이가 부싯돌을 쳐서 불을 붙였다. 그것이 바로 횃불이 되었다. 어둠은 이미 그런 횃불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시계(視界)를 열기 시작하는 엷은 어둠으로 바뀌는 중이었다.

하지만 낯선 사람에게는 발을 헛디디기에 충분한 어둠 속이었다. 거기에 난데없이 횃불 하나를 들이댄 것이었다.

당장 예불에 모여든 사람들의 눈에 그것이 알려질 수 밖에 없다.

"웬 횃불인가?"

"우리들 중의 누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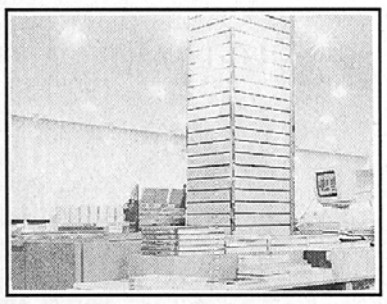
그들은 서로 둘러보며 그들중의 누군가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곳에서 빠져나가지 않았다. 인담이 만화에게 말하였다.

"저 횃불 쪽을 자세히 살펴보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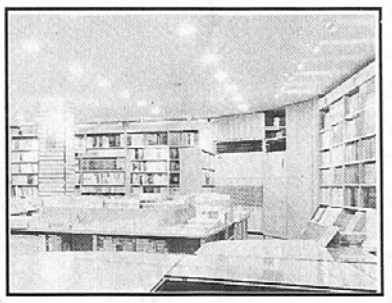
"밤마다 밤마다 부처를 안고자고 아침마다 부처와 함께 일어난다" 우녀의 입에선 부대사의 게송이 흘러나오고…

불을가득 · 법향가득

책방여시아문으로 오십시오



· 저자와의 만남(격월)
· 계절별(분기별) 책잔치 개최
· 통신판매—전화, 팩스 주문 가능
· 컴퓨터를 이용한 편리한 도서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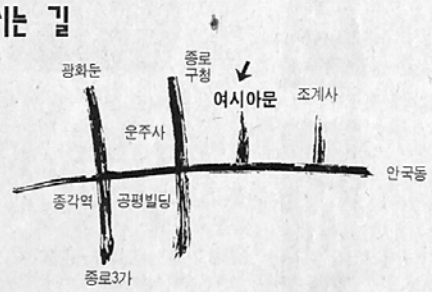


·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5천 여종, 3만 여권)
· 불교관련서적(역사, 철학, 사회과학 등 망라)
·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 열람 가능
· 편리한 도서안내
· 편안한 독서 공간
· 도서상품권 취급



· 도서회원제 운영 (1995. 4. 1. 부터 시행 예정)
회원특전 · 현대불교신문사, 도서출판 여시아문 발행도서에 대한 회원 우대 사은권 제공
· 소식지를 통한 도서 정보 제공
· 통신 주문
· 전화 도서 목록 검색 서비스 (737-0695)
· 책방 여시아문 · 현대불교신문사 주최 행사 우선 초대

오시는 길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전화(대표) 737-8881 (서점직통) 737-0695 / 팩스 737-0696 / 교통편 전철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32, 59,84,159,331,588-2번

독 자

득자여러분의 글 · 사진 ·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또 현대불교에 대한 의견 · 지적사항 · 제안 제보도 받습니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 (02)722-4162 FAX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HBS3470

나의 의견

주인 잃은 사찰토지 전국 산재 불교인 되찾기 운동 전개 필요

얼마전 현대불교신문에서 한 스님이 잃었던 사찰토지를 되찾았다는 기사를 읽었다.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라 여겨졌다.

그런데 아직도 상당부분의 사찰토지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듯 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일제시대때 많은 절이 불에 타 없어지고 그래서 사찰의 흔적이 없는 탓에 그 땅을 잃게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좀더 정확한 조사와 실증이 있어야 확실한 정도를 파악할 수는 있겠으나 정작 문제는 망실재산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불교계에서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얼마 안있어 토지실명제도 실시된다. 옛 스님들과 불교인들이 애써 가꿔온 땅과 재산을 후대 불교인들이 되찾는 것은 당연한 도리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모든 스님들과 종도들은 서로 합심해 망실재산 되찾기 불사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정당한 불교인이 됐을 때 포교의 장도 한층 넓어지리라 믿기 때문이다.

정민화〈광주시 광산구 마륵동〉

불교 양로원 · 고아원 시설미비 교계차원 관리 · 재정 지원해야

몇년전부터 사찰의 뜻맞는 보살들과 함께 고아원과 양로원등을 방문해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며 때로는 말벗이 돼주기도 하는 등 작지만 불자로서 사회에 보탬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봉사활동을 하러 간 그곳은 불교양로원 불교고아원이라는 이름만이 있을 뿐 노인들이나 고아들이 아무런 불교적 감흥을 느낄 수 없는 삭막하기 그지 없다. 지난번 서울교외에 있는 한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였다. 그전부터 몇차례 오가면서 그곳 아이들과 얼굴을 익혀 놓아서 다른곳의 아이들보다 더 친근하던 터였다. 그런데 그중 한아이가 나를 보더니 부처님보다 하나님이 더 훌륭하시다며 우겨대는 것이었다. 나는 어찌된 영문인지를 몰라 어리둥절 했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됐다. 불교고아원이라는 그곳에 기독교 선교단체가 빵이며 장난감들을 사들고 와 선교를 했던 것이었다. 고아원 측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뜩이나 어려운 고아원 살림에 도움을 주니 거절할 필요가 없었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먹여주고 재워주는 이상의 그 어떤것에도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다.

그나마 몇개 되지도 않는 불교고아원이 이 지경이 되도록 불교계와 종단에서는 어떻게 관리와 관심을 보여왔는지 보지 않고도 다 알것같았다.

얼마전에 조계종 사회복지법인 인가가 났다는 기사를 현대불교 신문에서 읽었다. 그것을 필두로 해서 처음부터 큰 복지사업을 벌이기 보다는 가까운곳의 가장 작은 문제부터 풀어나가는 복지사업이 전개되길 기대해본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이들의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길 기원한다.

박선숙〈서울시 강서구 화곡2동〉

현대불교를 읽고

읽기 편한 활자로 바뀌었으면

현대불교신문을 관심있게 보는 독자입니다. 다른 불교계 신문보다도 성의있게 제작되고 있음을 항상 지면을 통해 느낍니다.

그러나 신문은 보는 차원이 아니라 읽는 차원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진정 신문의 사명이며 역할일 것입니다.

보기 좋은 신문이 읽히지 않는다면 그러한 본분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 될것입니다. 읽는데 중요한 것은 활자입니다.

읽는데 부담없는 활자 편안한 활자의 선택이 현대불교신문을 보는 신문에서 읽는 신문으로 끌어들이는 비결일것이라 생각됩니다.현대불교신문이 여러가지 면에서 우수하지만 읽는데 편안한 활자가 아니어서 읽는데 힘이 드는 것을 느낍니다. 이점을 검토하고 수정한다면 보다 더 훌륭한 신문으로서 독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택〈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불자 목소리 대변지 역할 충실

먼저 짧은 기간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교계 언론의 한 몫을 담당하게 된 현대불교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20면 증면 발행, 타블로이드판 벌지등 기존의 교계신문이 시도하지 못했던 다양성의 추구에 노력이 엿보이지만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도 보인다.

우선 용지 부족으로 인한 용지값 인상으로 전국언론이 자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시점에서 현대불교의 증면발행은 읽을거리의 풍부함과 타교계신문들과의 '차별성' 어느쪽에 더 큰 의미를 두는지 생각해 볼 문제다. 알찬 내용과 다양성의 추구는 긍정적인 생각이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 기존의 일간지를 모방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또 현대불교만이 지닌 색깔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내용에 있어서 문화와 단순한 흥보기사에 너무 치우친 듯한 감이 적지않다. 잔잔한 필치와 소재, 편집의 외관상 미화된 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교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능력있는 '현대불교'가 되길 기대해 본다.

유재민〈경북 경주시 동천동〉

지상법석에 재가불자도 참여를

현대불교의 지상법석을 매주 유심히 보는 독자입니다. 저희 불자들이 쉽게 뵙고 법문을 청할 수 없는 대덕스님을 만나 설법을 청하고 또 그 법문을 활자를 통해 읽어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대해 깊은 고마움을 표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새겨 읽을때마다 마음이 넉넉해 지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귀한 불법인연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상법석 페이지가 스님법문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스님뿐 아니라 재가법사로서 불교전법에 큰 역할을 해 오신 분들도 지면에 모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가법사의 불교활동이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고, 우리불자들도 항상 스님들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할 일이 있음을 스스로 알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박형득〈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만화 法句經 법구경

어리석음의 장
마치
손가락이
국맛을 모르듯이





이규후 건강칼럼 <21>

죽 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환자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는 일상생활 가운데 죽음을 연상할수 있는 어떤 자극이라도 받게 되면 '불안'이 일게 되고 그 불안이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지면 불이 나게 병원을 찾곤 하는 그런 환자다. 두번째는 자신이 앓고 있는 질병이 어쩌면 죽게 될 질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도 그런 질병은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 것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의 마음에는 그런 질병은 죽을 사람이나 앓는 것이지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부인하는 자세다. 의학적으로도 인간이 지니는 기본적인 불안은 '죽음'으로 인한 불안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기본적인 불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사람이 나고 죽는 일이 자신의 뜻과는 관계가 없으나 꼭 닥치고 마는 일이라 생각하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는 사람이나, 죽음이 가까이 닥친 질병이란 것을 알려주어도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모두 '죽음'이 두렵기는 매한가지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느끼고 방어하는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춰진다. 전자는 두렵다는 느낌을 과장 표현함으로서 죽음에 대한 불안을 상쇄하려는 자아방어이고 후자는 죽음 자체를 부인함으로서 자신을 방어하려는 모습이다. 물론 이런 자아의 방어는 의식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무의식적인 반응이다. 어떤 반응이던 마음의 근본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불안인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 귀결되어 버린다.

백유경에 나오는 지혜로운 이야기 가운데 눈병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온다.

'눈이 있으면 반드시 눈병을 앓게 된다. 나는 지금은 눈병을 앓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 눈병을 앓게 될런지도 모른다. 고러니 나는 내눈을 도려내어 '눈병을 앓지 않게 하겠다' 한 어리석은 여인의 생각을 빌어 우리를 가르친 내용이다. 자살하는 사람 가운데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 인간이 필연적으로 경험하게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명제는 인간 그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수 있다. 두려운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깨친자가 되기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도 한다.

깨친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 담담하고 평화로운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서 집착하고 불안이 많은 것이다.

생명에 집착보다 마음비우기로 불안 극복

신심 없이 조성된 불구는 한낱 장식물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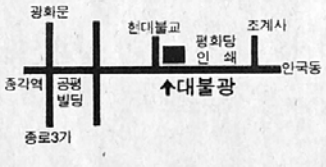
조용한 법당에 부처님의 고즈넉한 자비, 그 미소를 함뿍 담아 가지는 선남자여.

바람벽에 채색된 불화에서 믿음의 새싹이 돋아나는 보살들이여.

일체의 장엄구 불구에서 수천년의 신심을 함초롬히 꽃피우는 불자들이여.

이 모든 존상물, 탱화, 불구, 석물이 어찌 신불의 가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여기저기 대량으로 제작되는 존상물의 홍수에서 우리의 믿음을 손상하게 된 적이 얼마입니까. 부처님은 거룩하고, 진리는 광명하니 더 없이 높으신 생명의 자랑입니다.



大佛光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3
전화 : (02) 738 - 1117
FAX : (02) 738 - 1118

신심이 없이 조성된 불구는 한갖 장식물에 불과합니다. 존상은 흙, 나무, 돌, 쇠, 종이로 조성되어야 함은 물론이요, 그 조성에는 장인의 신심과 예술적 가피가 함께 깃들어야 합니다.

이제 여기 여러 장인들이 열어 놓은 "大佛光"에 모든 불자님이 친히 왕림하시어 존상의 신앙성을 우러러 보고, 또한 장인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무량한 공덕이 함께 할 장엄불구를 조성케 하려 하오니 "大佛光"으로 나오셔서 일가견을 이룬 장인불자들과 상면하시기 바랍니다.

"大佛光"은 부처님을 열망적으로 신앙하는 순수장인들의 공동광장이며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향사루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관장 허 길 용 합장

화제의 책

인도인의 길

존·M·콜러 지음



세계화의 이념속에는 발전 합리 무한경쟁 생존이라는 용어로 채워져 있다. 이러한 때 동양의 지혜를 대표하는 불교는 어떤 역할을 말아야 하는가.

〈인도인의 길〉은 이러한 물음에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19~20세기 인도에 유입된 합리성과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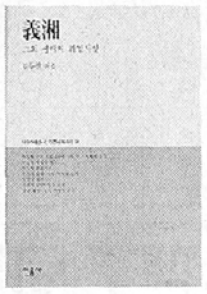
서구이념 대응 인도사상가들 답변

안주의 인본주의라는 서구적인 이념에 인도의 사상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서술하고 있다. 답변의 핵심은 간디가 그 기초를 부여했던 다르마 모델이다.

다르마 모델은 인간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간주하고, 욕망의 만족이나 재료의 축적보다는 지비와 보시를 근본적인 도덕으로 강조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집약형 노동절약형 생산방식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허우성 옮김. 〈세계사, 1만2천원〉

의 상

김두진 지음



의상의 화엄사상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교리적인 측면뿐 아니라 역사적 입장에서도 분석되었는데 생애와 왕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자 사이의 견해가 일치되고 있지는 않다.

〈의상 – 그의 생애와 화엄사상〉에서는 의상의 사상과

수행자 자세와 전제정치 관계 규명

신라 중대의 사회 내지 전제정치와의 관계가 어떠했느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의상과 전제정치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연구는 왕실의 전제정치와 관계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저자는 이 책에서 '문무왕에게 간언하여 성쌓는 역사를 파하게 했다'는 〈삼국유사〉와 〈송고승전〉등에 나타난 기사를 인용, 의상이 비록 '구도적 삶을 추구한 수행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했을지라도 어디까지나 전제주의의 협조자였다고 밝히고 있다. '의상의 생애와 저술' '의상 화엄사상의 체계와 논리' '의상 화엄사상의 역사적 의의' 등 8장으로 구성했다. 〈민음사, 1만5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시이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역자	출 판 사
1	미라래빠의 십만송	이 정 섭	시 공 사
2	천수경	무 비	불 일
3	술몽쇄언	김 대 현	을유문화사
4	마음로 간 미륵	주 강 현	대원정사
5	나를 보게 하소서	현 장	민 족 사
6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7	알게 모르고 모르게 알고	원 의 범	시 공 사
8	인도기행	법 정	샘 터 사
9	불교와의 만남	강 건 기	불 지 사
10	한글 아함경	고 익 진	동국대출판부

구입문의:(02)737-0695



사찰안내서 잇따라 출간

통도사·해인사·송광사 등 30여종 나와

문화재 위주…사상·신행 특징 담았으면

어디든 사찰이 있다. 그곳은 부처가 되려는 이들의 수행도량이며, 민족의 애환과 함께 명맥을 면면이 이어온 민족문화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런가하면 속진에 허덕이는 중생들의 마음의 고향이며 쉼터이다. 한국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반드시 사찰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사찰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사찰안내서가 줄을 이어 출간되고 있다. 지난 74년 일지사에서 '한국의 사찰' 시리즈 첫째권으로 〈불국사〉가 나온 이후 본격화된 이들 책은 대원정사의 '빛깔있는 책'으로 이어져 산뜻한 칼라사진과 알찬 내용을 담은 품위있는 출판물로 서가를 빛내고 있다. 특히 일지사는 〈북한의 사찰〉과 〈신라의 폐사 1·2〉를 펴내 불교문화의 공백을 채워주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사찰안내서는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불국사 법주사 등 30여종에 이른다. 이들 책은 대부분 사찰의 연혁과 역사, 대웅전 극락전 등의 당우와 각종 유물 유적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최근에는 용주사 선암사 직지사 등에서 출판사에 의뢰해 자기 사찰의 역사와 유물 유적, 그곳에 주석하며 법맥을 이었던 고승들의 행적을 담은 책을 펴냈다.

일지사와 대원정사의 사찰 시리즈가 사찰의 문화·예술적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사찰에서 발행한 책들은 해당사찰의 사격(寺格)과 전통을 알리고 신앙생활을 길잡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신앙적 의미를 강조한 특징을 보여준다.

〈용주사〉는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부친인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배경이 말해주듯 '효심의 본찰'로서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이 책은 '불교의 효경과 효사상'이라는 별도항목을 구성, '부모은중경' '불설우란분경' '효자경' 등 경전에서 가르치는 불교의 효사상의 종교성과 신앙성을 강조했다.

정헌스님(용주사 주지)은 "잊기를 새기기보다 앞서하는 요즈음이라 한시바삐 옛모습을 살펴보고 창건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이 책을 신도들에게 보시하고 있다"며 "자기가 다니는 사찰의 여러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신앙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선암사〉에서도 '절을 찾는 마음'과 함께 보시 애어(愛語) 이행(利行) 그리고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동사섭(同事攝)의 실천이 불자들의 실천덕목임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직지사는 지난해 '본사편'과 '말사편' 두권으로 나눠 사적과 성보를 사진으로 담아 정리한 책을 펴냈다.

이들 사찰안내서는 불교 및 불교문화를 체계적으로 알린다는 것은 물론 불교신앙으로 이끌어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출판으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기록이 부실했던 불교계에서 사지(寺誌)로서의 역할도 해내고 있다.

이러한 출판에 대해 법현스님(원각사 주지)은 지금까지의 사찰안내서는 사찰의 문화적 특성을 조명하는데 치우쳐 왔다고 지적하고 "불교입문의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포교불사의 차원에서 신앙적 의미를 강조한 사찰안내서 발행이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새로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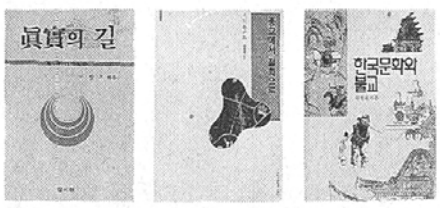
▲한국문화와 불교(목정배 지음)=우리나라의 유구한 문화의 흐름을 총설·사상과 종교·신앙·민속·불교미술·인물·불교문화사로 나누어 그 개론을 살피고 각 문화적 요소에 미친 불교의 영향을 중점적으로 서술하였다. 불교가 단순한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한민족 문화의 큰 흐름을 이룬 민족의 종교임을 밝혔다.

〈불교시대사, 6천5백원〉

▲진실의 길(이창우 엮음)=종교의 근본은 자신의 삶은 자신이 개척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에 입각해 불교의 교(敎)와 선(禪)의 근본을 밝히고, 수행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마음과 나' '연기론' '우주관' 등 모두 23장으로 구성, 대행스님의 법문과 부처님의 비유설법, 기독교의 성경을 인용해 설명했다.

〈경서원, 1만2천원〉

▲종교에서 철학으로(콘퍼드 지음)=종교와 철학 사이에



는 거의 근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연속성이 있다는 서구 사유의 연원을 밝히고 있다. 저자는 철학은 종교로부터 신 영혼 운명 등의 개념을 전수받아 자신의 발전방향을 결정다고 중장한다. 남경희 옮김 〈이화여대 출판부, 9천원〉

▲무소의 뿔처럼·상(김재영 지음)=불자수행교본 시리즈의 2단계 성인중급과정으로, 일상에서의 구체적인 수행방법을 밝혔다. 자학자습 하거나 법회에서 법사님의 지도를 받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보살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이 참된 기도인가' 등 6장으로 구성했다.〈불광출판부, 6천5백원〉

출판단신

책 고를때 '내용' 중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구입할 때 책의 내용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뿌리와 날개'가 4월호 특집으로 전국의 성인남녀 4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독서 스타일 조사에 따르면, 책구입시 일차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책의 내용(63.4%) 저자(22.0%) 제목(7.2%) 출판사 이름(5.2%) 순이었다.

'거승 사명당' 등 고서 전시

광복 50주년 기념 '95서울고서전이 6일부터 11일까지 공평아트센타에서 열렸다.

이 전시에는 '거승(巨僧) 사명당' '합천 해인사지' 등 불교서적이 선보였다.

명사추천 불서 100선

붓다챠리타

우리 불제자는 여래이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부처님의 길을 따라서 부처님같이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불제자가 된 사람은 먼저 부처님의 거룩하신 인격과 그분의 가르치심을 잘 알아야한다.

그분의 인격이나 가르치심을 잘 알려면 경이나 율이나 논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다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분이 가르치신 그대로 따라서 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처님이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떤 것을 보이셨나를 알아야 한다.

부처님은 실로 희유하게 오셔서 거룩하게 사시다가 장엄하게 가신 분이시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류중에 다시 없는 성인이시며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통해서 더없이 존귀한 분으로 우리들의 위대한 스승이시다.

이러한 스승의 가르침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오는 동안에 낱이 갈수록 경모의 정이 더해가면서 내 가슴에 살아계신 부처님의 생생한 모습이 더욱 간절히 그리워졌다.

나는 〈붓다챠리타〉를 통해서 부처님의 살아계신 숨소리를 듣게 되었고, 부처님의 간곡하신 가르침을 다시금 새롭게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 어찌 감격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기쁨을 불제자가 된 모든 분과 같이 하지 않고는 못배기겠다는 마음



정 태 혁
〈동방불교대 학장〉

부처님 행적 소상히 정리

참된 인간으로 거듭나기 지침서

먼저 그 분의 행적을 소상히 알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부처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수많은 경전이나 전기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고 하나, 그것이 완전하게 소상히 기록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들 불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부처님의 행적을 정확하고 소상히 알기를 희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가장 완벽한 석존의 일대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저 유명한 마명보살의 〈붓다챠리타〉이다. 이것은 일찍이 한문으로 전해진 것이 불소행찬(佛所行讚)이라는 이름으로 담마라크샤(414~426)에 의해서 번역되어 알려져서 흔히 알고 있듯이 부처님의 생애를 여러가지 모습으로 전해오고 있는 터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스승이신 석존을 마음 속에 모시고 그분의 길을 따르면서 살아오는 동안에 낱이 갈수록 경모의 정이 더해가면서 내 가슴에 살아계신 부처님의 생생한 모습이 더욱 간절히 그리워졌다.

나는 〈붓다챠리타〉를 통해서 부처님의 살아계신 숨소리를 듣게 되었고, 부처님의 간곡하신 가르침을 다시금 새롭게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 어찌 감격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기쁨을 불제자가 된 모든 분과 같이 하지 않고는 못배기겠다는 마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처님이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떤 것을 보이셨나를 알아야 한다.

부처님은 실로 희유하게 오셔서 거룩하게 사시다가 장엄하게 가신 분이시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류중에 다시 없는 성인이시며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통해서 더없이 존귀한 분으로 우리들의 위대한 스승이시다.

이러한 스승의 가르침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그 분의 행적을 소상히 알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부처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수많은 경전이나 전기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고 하나, 그것이 완전하게 소상히 기록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들 불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부처님의 행적을 정확하고 소상히 알기를 희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가장 완벽한 석존의 일대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저 유명한 마명보살의 〈붓다챠리타〉이다. 이것은 일찍이 한문으로 전해진 것이 불소행찬(佛所行讚)이라는 이름으로 담마라크샤(414~426)에 의해서 번역되어 알려져서 흔히 알고 있듯이 부처님의 생애를 여러가지 모습으로 전해오고 있는 터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스승이신 석존을 마음 속에 모시고 그분의 길을 따르면서 살아이 간절하다.

이 책에는 부처님 일대기이면서 불교의 모든 것이 감격스럽게 설해져 있으며, 부처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가슴속에 다시 나타나시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우리 불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신 석존의 참모습을 이 책을 통해서 다시 보고 참된 인간으로서의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의 원저자 마명보살은 위대한 시인이요, 대승과 소승의 모든 경론을 체득한 학자요, 수행인이며 보살이다.

이 책의 내용은 부처님의 모든 것을 뛰어난 문치로써 감격에 넘치는 경모의 정으로 읊은 것이다. 불제자된 마명이 모든 것을 부처님께 바치는 충정이 서려 있다.

모든 불제자는 마명의 이 시문의 한구절 한구절에서 참된 부처님의 모습을 뵈올 수 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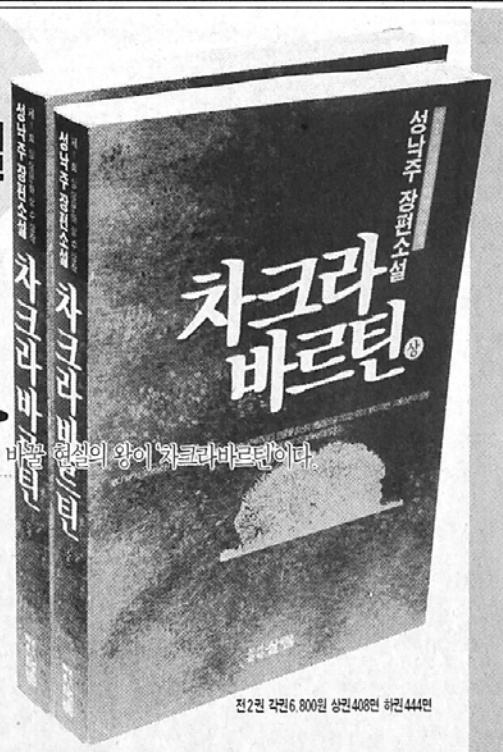
계간「상상」주관 제1회 상상문학상 수상작

성낙주 장편소설

"붓다 시대를 다룬 세계 최초의 본격문학"

차크라바르틴

'붓다'와 '차크라바르틴'은 다 같이 민중들이 기다리는 구세주이다. 민중을 정신의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가 '붓다'라면, 고통스런 이 땅을 낙원으로 바꿀 현실의 왕이 '차크라바르틴'이다.



전 2권 각권 6,800원 상권 408면 하권 444면

『차크라바르틴』은 불교라는 종교가 막 태동하고 발생하는 시간적·공간적 지점으로 내려가 그 본질을 탐색하고 있다. 석가족의 성자 고타마 싯다르타와 석가족을 멸망시켜 천축을 통일하려는 비유리 왕의 갈등이 작품의 근간을 이루면서, 붓다(부처)와 차크라바르틴(轉輪聖王)이라는 형이상학에 도전하는 진지한 주제와 문제의식이 돋보이는 소설이다. 오늘날, 신화와 설화에 대한 우리 문화계의 새로운 관심은 세기말의 삶이 파편화·부분화 되었다는 반작용인 동시에 삶의 정체성과 전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문화적 새물결임을 반증하는 일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신화와 설화가 작품 전체에 녹아들어 있는 『차크라바르틴』은 분명 눈여겨 보아야 할 뛰어난 소설임에 분명하다.

「상상문학상」 심사평



지난 15년은 세월 동안 나는 이 작품을 서른 번이나 새로 썼다. 짐고한 서적만도 수백 권이 넘을 것이다. 이 소설 속에는 지난 내 생의 땀과 눈물이 녹아들어 있다.
성낙주(수상작가)



차크라바르틴 은 나를 이야기의 술속에 빠뜨린 소설이다. 이토록 무궁무진한 삶의 이야기 를 담고 있는 소설을 근래에 본 적이 없다. 이야기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버릇의 나에게 이 소설이야말로 가장 반가운 선물이었다. 양귀자(소설가)



「차크라바르틴 은 근래 보기 드문 대작이다. 우선 우리 정신의 근원인 통일정신을 복원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강한 이야기 서사의 힘은 독자를 정신없이 빠져들게 한다.
이인화(소설가)

이문열 사색집
사색
팡생에 겁처 단 한 번 만나게 될, 운명과도 같은 책!
값 5,000원

임철우 장편소설
그 섬에 가고 싶다
질펀한 웃음과 투명한 눈물, 꿈과 인타까움이 전편에 겁처 스며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값 5,000원

양귀자 장편소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100만 독자로부터는 공감을, 신화학자로부터는 여신상을 창조했다는 찬가를 받은 문제작 택스트!
값 5,500원

기형도 유고집
짧은 여행의 기록
팰게 살다간 시인의 일기, 편지, 소설, 기행문 등 내밥한 영혼의 불꽃나무!
값 5,000원

유서로 장편소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극소수의 독자들이 읽었지만 그 독자들로부터는 극찬을 받은 보석같은 소설.
값 5,000원

도서출판 살림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65-9 인왕빌딩 304·305호
전화 379·4925, 4926 영업부 394·3451·3452 편집부
팩스 379·4724

100년 전 한국의 모든 것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이사벨라 버드 비숍 지음 이인화 옮김
화보 33면 이색지 80×606면 값 12,000원
그전부터 읽고 싶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반역이 나와 참 반가웠다. 소설처럼 읽히는 재미뿐만 아니라 1백여 년 전 우리의 생활상을 꼼꼼하게 적어나가는 작가의 관찰력에 입답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박완서(소설가)
당시의 국제정세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도 놀라운 것이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한국의 장례풍습과 여성의 생활, 결혼의 기생 무당의 굿과 귀신들의 계보 등 민중생활에 관한 생생하고 세심한 관찰이다 장정일(작가)
불과 100년 전의 사건 풍물 지명 생활등에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무식할 수 있을까. 번역을 하는 3년여 동안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은 나의 무지를 통탄하게 깨우쳐준 스승이었다
이인화(영원한 제국'의 작가)

신이현 장편소설
숨어있기 좋은 방
삶의 신비, 니이체적 질문으로 가득 찬 소설!
주인공 윤이금. 이 귀여운 처녀의 내면에는 우리 삶에 존재하는 갖가지 거짓과 위선을 통찰한 끝에 도달한 니이체적 진실이 존재한다.
숨어있기 좋은 방은 아웃사이더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는 90년대 소설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 조선일보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여인의 독백이 담긴 소설! 동아일보
이 소설은 우리를 은밀하면서도 두려운 세계로 유혹하고 있다. 나는 우리 소설에서 보기 드문 반유리적 소설을 갖게 되었다는 기쁨에 젖는다 진형준(문학평론가)
삶의 신비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온다
값 5,000원

도서출판 살림

'95 미술의 해

불교미술의 어제와 오늘 3

석조 미술

경기도에 있는 ㅊ사(寺) 대웅전 앞에는 몇년전 새로 석탑이 세워졌다. 신라시대의 석탑 모형을 본떠 만든 이 탑은 대리석으로 조성한 것으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조성됐다

그러나 그후 ㅊ사는 다녀온 많은 사람들이 "새로 선 탑이 절 분위기와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고색창연한 절이 뭔가 균형을 잃은 느낌이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는 불교문화의 꽃을 이룬 시기였으며 이 시기에 조성된 석조물들의 극치미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조차 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석조미술은 그 '번지수'마저 없다는게 미술계의 주장이다.

불교미술의 퇴보는 조선시대부터 시작됐다는게 학자들의 분석이다. 억불정책의 영향으로 전통 석조 조형기법의 맥이 매우 일천하게 유지돼 왔다가 조선 후기에는 왕실의 능안에 상징물을 다듬는 정도로 기울였던 것. 그러나 '오히려 일제시대에 각종 석조건축이 건립되며 석조 조형의 맥이 조금씩 살아 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아무튼 현대의 불교 석조미술은 그 일천한 맥을 다시 부흥시켜야 한다는 절실한 요구와는 반대로 전체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인에 의한 복제품만이 양산되고 있어 역사적 현대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문제는 계속 지적되고 있다.

즉,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형상성의 결여는 예술적 안목과 사명감을 가진 작가의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것.

현재 문화재 관리국에 등록된 석공예 기능인은 10명이 넘지 않는다. 또한 이 분야에 대한 교육의 부재도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으며 기존 작품에 대한 지나친 모방과 답습도 하루속히 벗어나야 할 굴레로 지적되고 있다.

또 석조물의 최대 수용자인 스님들의 안목과 불사의 관행도 석조미술의 발전을 붙들어 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찰의 역사성과 주변 여건을 고려해 미학적인 가치와 신앙적 의미를 갖는 조형물을 세우기 보다는 '재정사정에 맞춰서' 또는 '어느 절의 것과 비슷하게' 주문되어 일반석재상에 의해 제작된 탑과 불상 부도 등을 경내에 세우는 예가 많다는 것이다.

생활불교 표현한 작품 나와야
전문가부족 기존 답습지양할때

아울러 경내에는 반드시 탑과 불상등만 세워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불교석조미술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예술품으로서의 가치와 신앙성을 함께 갖춘 작품들을 경내에 건립하는 것이 우리시대의 불교미술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란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불교예술의 대표적 위치를 굳혔던 석조미술이 '오늘의 석조예술'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종사자들과 승·재가의 깊이 있는 관심이 필수적이다. 그 관심의 요체는 곧 불교사상을 돌에다 심어내는 것이며 그를 위한 제도적 육성책도 절실하다는게 관련 학계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태〉

문체부, 내년 '문학의 해'로 지정

불교문학 중흥기회 삼자

작가 양성대책 수립…소재·독자층 확대해야

문체부가 지난 1일, 내년을 「문학의 해」로 정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불교문학계에서도 내년을 불교문학 중흥의 해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문체부의 발표가 나오자 문단의 관계자들이 「문학의 해」를 계기로 풀어야 할 많은 과제들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만큼 불교문학계도 보다 능동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게 불교문학 작가와 단체들의 공동인식이다. 우리 문단에서 종교문학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게 사실이다. 그러나 각 종교계는 문학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으며 작품 양산과 흥보에도 신경을 써 왔다.

불교계에도 불교문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단체와 문인이 적지 않다. 불교문인협회와 불교문학 포교원, 어린이 불교문학 단체들이 일천한 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활동을 해 왔던 것. 이같은 단체외에도 불교를 자신의 문학작품의 테마로해 꾸준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아직 「불교문단」이라할 만큼의 조직이나 작가에 대한 관심은 불교계에 자리잡지 못한게 현실이다. 때문에 불교문학 중흥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오래전부터 소극적으로나마 형성돼 왔었다.

"불교문학도 이제 그 영역을 넓혀 나가고 보다 뚜렷한 색채를 가져야 한다"는 하유상(불교문인협회 고문)씨는 "기왕 정부가 문학에 대한 관심을 보인 만큼 불교계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내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 문학의 도약을 위해 현재 대두되고 있는 과제들은 세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첫째는 불교문학의 질적 성장. 경전이나 부처님 일대기, 수행승 또는 경전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현재의 불교문학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이야기로 좀더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불교의 사상이 어떤 장르에서든 지나치게 어렵게만 용해되는 경향도 배제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두번째 과제로는 불교문학 작품의 영역 넓히기가 꼽힌다. 이는 내용적 측면에서의 소재 확산과 독자층의 확대란 시각에서 매우 시급히 풀어져야할 문제이기도 하다는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즉 불교라는 범위 안에서의 문학적 가치창조가 작가적 재량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독자들의 선호도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 여기에 해외로의 번역 소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세번째로는 작가들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불교문학 전문작가의 보호와 양성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이 문제는 교계의 문학단체와 종단, 불자 모두가 풀어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또한 불교문학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강연과 출판사들의 기획, 종단의 지원, 시상제도의 활성화등도 단계를 높혀야 한다는데 불교문학계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문학의 해」를 앞두고 불교문학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단체의 구성등을 통해 획기적인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은 높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안제시는 나오지 않고 있다. 〈임연태 기자〉

불심시심 〈18〉

꿈 속의 한 몸

漂渺三山洞 (표묘삼산동) 아슬히 깊은 三山의 골
頹然一夢身 (퇴연일몽신) 비스듬히 누운 꿈 속의 한 몸
海天秋欲暮 (해천추욕모) 가을도 저물어가는 바다 하늘
千里見情人 (천리견정인) 천리에서 보이는 정다운 사람

이 시는 조선 중기 청허당과 함께 부용선사(芙蓉)의 법맥을 이은 부휴(浮休)대사의 시이다. 그러면서도 청허당보다 23세의 연하였기 때문에 사명당(四溟堂)과 오히려 활동이 많다. 부휴당은 이렇듯 청허당과 쌍벽을 이루는 하나의 선맥을 형성하였다.

윗 시는 대사가 고향의 스님의 시첩에다 써 준 시 5수중의 하나이다. 옛 친구일 수도 있는 고향의 스님에게 써준 시라면 그리움의 감상어린 시어로 점철될 듯하나 어디에도 그런 감상은 배어 있지 않다. 그러면서도 전편에 흐르고 있는 시의는 이쪽과 저쪽이라는 너와 나의 처지를 짐작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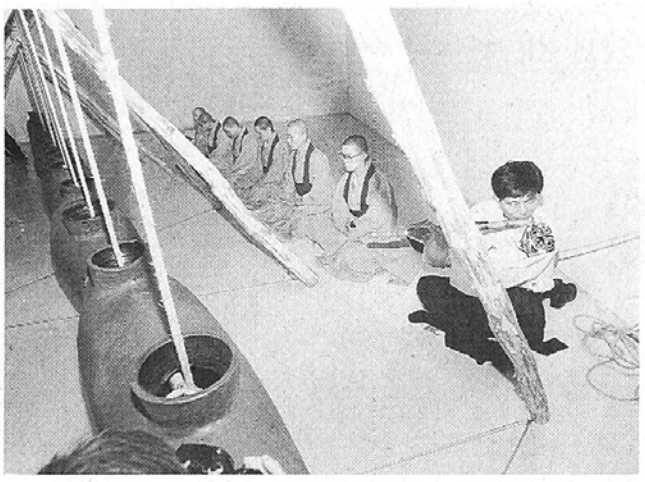
직접 만나서 주고 받는 시가 아니고 그가 남겨놓은 시집에 대해서 쓰는 것이다. 그러기에 아득한 연상으로만 만나게 된다. 아득히 느껴지는 저 삼산의 깊은 골, 그 안에 비스듬이 누워 있을 그대, 꿈 속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신선같이 느껴진다. 신선과 신선의 그리움이다. 이 기·승구는 구성자체가 재미있다. 기구와 승구는 댓구로 이루어져 있다. 댓구란 사물의 대칭구조로 서로 대비적 의미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시에 있어서는 삼산의 골이나, 한 꿈 속 사람이 대칭이 아닌 상대방의 스님에 대한 표현이다. 삼산동에 있을 그대의 아득함이다. 이렇듯 구조는 댓구이지만 시의는 순리적 평서술이다. 여기에서 상대방에 대한 깊은 정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결구의 정다운 사람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저물어 가는 가을바다는 쓸쓸하다는 인상을 갖게 되고 어디론가 가고 싶어지는 계절적 변화이다. 그러나 가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정다운 옛 친구가 있다. 이쪽과 저쪽 천리 밖의 거리이지만 정다운 사람이 보인다.

가을날에 접하는 일상적인 자연을 담담하게 묘사하면서 그 속에 정감적 그리움을 담은 담박한 시이다.

이종찬 〈동국대학교 교수〉



禪·음악·옹기툥소 화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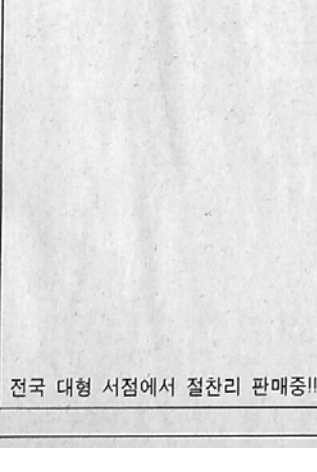
곽 훈씨 '마르코폴로가…'

이탈리아 베니스 비엔날레에 출품할 곽훈씨의 이벤트미술 「마르코폴로가 가져오지 못한 것」이 지난 1일 동숭동 인공갤러리에서 선보였다.

옹기통소와 참선하는 비구니 스님 김영동씨의 대금연주가 하나의 작품을 이루는 「마르코폴로가…」는 소리와 선(禪)의 세계를 합일시킨 이벤트 미술. 마르코폴로가 가져가지 못했던 동양의 정신을 표현한 이 작품은 돋보이는 기획성으로 미술계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이 전시는 30일까지 계속된다. 비구니 스님(10명)의 참선과 김영동씨의 연주는 지난 1일 한차례만 선보였지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는 행사기간 중 계속 선보일 계획이다. 〈상보 23호 5면〉

〈박재완 기자〉



◇ 장욱진화백의 「팔상도」.

'禪 판화' 20년만에 햇빛

故 장욱진 화백 '선시리즈'…호암아트홀 내달 14일까지

고(故) 장욱진화백의 선(禪)을 주제로한 선시리즈 목판화가 20년만에 세상에 첫선을 보이고 있다.

민화연구가인 김철순씨와 손잡고 한국 특유의 선사상을 알리기 위해 의욕적으로 제작했던 장화백의 선시리즈 목판화는 지난 4일부터 호암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장욱진전」에서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장욱진 기념사업 모임 회원들이 관화간행을 도모하면서 호암미술관의 후원을 얻어 세상에 공개하게된 것이다. 또한 목판화집도 출간하게 됐다.

인생관, 예술관, 세계관 그 자체가 금강경의 정신을 실천한 것으로 평가받는 장화백은 '일중일체(一中一切)' '직지인심(直指人心)' 등 21개의 화두를 상징한 판화를 제작, 73년부터 75년에 걸쳐 50여점의 밑그림을 그렸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50여점의 밑그림중 엄선된 26점만이 전시, 장화백의 화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또 먹그림, 매직화, 돌그림, 표지화 등 1백50여점의 작품들도 전시되고 있다. '팔상도' '사찰(77년, 78년)' 2편, 장화백 부인의 법명을 딴 '진진묘(眞眞妙)' 등의 작품에는 선사상뿐 아니라 번잡한 세계를 떠나 피안의 세계로 가려는 작가의 심상을 여실히 잘 드러내고 있다.

5월14일까지 계속되는 「장욱진전」에는 심포지엄, 작가 생전화실 탐방, 비디오 상영도 함께 기획돼 장욱진화백의 회고전이 더욱 풍성하다. 〈750-7874〉

사찰소재작품 6점전시
국립공원 사진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주최한 제2회 국립공원사진전시회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일민문화관(동아일보 광화문사옥)에서 열렸다.

전국 20개 국립공원의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작품 1백37점이 전시된 이번 전시회에는 「대전사와 기암」(김종욱, 입선), 「내장사 전경」(유별률, 입선)등 사찰소재 작품 6점도 선보였다.

국악으로 禪音 전달한다

서울시립관현악단 30주년 연주…13일 세종문화회관

국악 '신수제천' '영산회상'과 일보일배, 참선등 불교의식이 다시 만난다.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단장 김영동)은 창단 30주년을 맞아 2백회기념 특별연주회를 오는 13일 오후7시30분 세종문화회관대강당에서 갖는다. 이날 공연의 1부는 김영동씨가 편곡한 '신수제천'과 일보일배(한발 걷고 한번 절하며 계속 나아가는 의식)가 연출된다. 또 예불의식과 예불곡이 어우러지고 '영산회상' 중 '상령산'이 연주되는 동안에는 30여명의 스님이 참선을 하고 그 앞에서는 이애주(서울대)교수가 나비춤과 법고춤을 춘다. 〈문의=3991-667〉

오느름 실내악단 봉축 음악회

26일 국립극장 소극장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국악찬불가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됩니다.

오느름 실내 악단 봉축음악회는 우리의 선율이 갖는 아름다움과 불법(佛法)을 찬탄하는 불자들의 서원이 조화롭게 연주되는 예경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꽃향기 세상을 뒤덮은 4월의 정취와 부처님 오신 뜻을 찬탄하는 불자들의 마음이 한 편의 시로 엮어질 오느름 실내 악단 초청 봉축음악회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 시 : 1995년 4월 26일 오후 7시30분
■ 장 소 : 국립극장 소극장

공연 내용

■ 제 1부 : △승무·법고춤 △찬불대중가요 △찬불 동요 △전통불가조 △한반도의 들노래
■ 제 2부 : △전통 불가조 △남성복사중창 △찬불국악가요 △찬불가
■ 출 연 : 김진환, 경기고, 이상균, 김영복, 불교방송합창단 등.
■ 지 휘 : 김희경
■ 특별출연 : 안숙선 명창, 덕신스님
■ 후 원 : 조계종총무원·불교방송
■ 기 획 : 누메로우노

현대불교신문사

전원문화사
121-110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448-6
전화 704-1626,1628 팩스 718-2837

절에 가서 이런 것이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

百年貪物一朝塵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
- 사찰과 부처님과 불교 -
부석사 조실 송근일·강수 / 철남 권영한·지음

三日修心千載寶

스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하는가?
부처님께 예불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각 건물들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많은 부처님은 어떻게 분별하는가?
도량의 권속들은 무엇을 지키는 것인가?
벽화나 탱화의 숨은 뜻은 무엇인가?
절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늘 공해와 스트레스로 시달리는 일상에서 벗어나 신선한 공기와 여유를 찾아 산으로 떠나보십시오.
울창한 숲과 오묘한 바위, 우아한 계곡과 산능선, 그윽한 풀과 나무 냄새,
그 속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산을 찾는 사람은 꼭 절을 찾게 됩니다.
절은 산속에서도 가장 경치 좋고 터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산이 곧 절이고 절이 바로 산입니다. 결코 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눈앞에 들어오는 여러 건물과 불상, 탑과 벽화들을 무심코 지나치게 됩니다.
또 어떤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의 참모습과 의미를 살피지 못하고 그냥 떠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 읽어 보십시오.
우리가 놓쳐 버렸던 불은(佛恩)의 참다운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올컬러판 · 376면 값 15,000원

전국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방송 하이라이트

btn (ch32)

천은사 문화재 소개

한국의 명찰(10일 11:10~12:00) 지리산 서남쪽 기슭의 천은사. 천은사의 유래와 주요문화재 및 풍경과 인접마을의 생활모습을 비춰본다.

전신마비 박봉희씨 삶

자비의 천수천안(11일 11:10~12:00)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인한 전신마비로 30년이상 방에서만 누워지내는 박봉희씨. 제한된 공간속에서의 친구와 교제, 세상에 대한 생각, 시쓰기 등 풍요롭게 생활을 이끄는 모습이 그려진다.

3승 앞둔 반야정사팀

퀴즈특급 이뭐꼬(14일 11:10~12:00) 2승을 이루고 드디어 대망의 3승을 남겨둔 반야정사팀과 2,3승을 겨뤘다는 결의로 나온 구룡사팀이 대결한다.

이기영박사 삶과 불교

나의 삶 나의 불교(15일 11:10~12:00) 개포동 빌딩숲에 자리한 한국불교연구원은 이기영 박사가 자고깨면 원효스님에게 향하는 보금자리이다.

BBS

FM 101.9MHz(서울) FM 89.9MHz(부산) FM 89.7MHz(광주)

박종백 변호사 법률상담

101.9 상담실(10일 11:20~12:00) 생활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 시간에는 임대차보호법, 상속문제, 배상책임등 박종백 변호사의 각종 법률상담이 펼쳐진다.

고려의 스님 주제 퀴즈

퀴즈대장경(13일 15:05~15:55) 한국 천태종의 개조 의천스님, 화엄학의 대가 균여스님등 고려의 스님들을 주제로 퀴즈대결.

불교 정치사회적 조명

오늘을 이끄는 불교(14일 11:05~11:20) 불교와 정치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불교의 정치관은 무엇인가? 인천대 정천구교수의 6일 강연을 통해 실천적 불교사상을 밝혀냄으로서 불교의 정치사회적 면모를 새롭게 조명한다.

어린이들 궁금증 해결

룸비니 동산(15일 16:40~17:00) 궁금증을 풀어주는 '찾아가볼까요' 코너와 개그맨 김종석 아저씨와 함께 떠나는 '알쏭달쏭 과학여행' 코너가 어린이들을 만나러 가는 시간.

NHK '한국불교' 다큐 제작

'비구니스님 한국을 가다' 5월에 위성방영

거룩한 만남·삼전복지관등 포교 다각취재

일본 NHK TV가 한국의 불교를 소개한다.

NHK TV는 아시아 12개국의 풍물과 문화를 소개하는 대형 다큐멘타리를 제작 5월부터 월1회씩 12회에 걸쳐 방송할 계획이다.

그 첫순서로 제작될 한국불교 관련 프로는 「비구니스님 50명 한국을 가다」. 이 프로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방한하는 전일본불교니승법단 소속 비구니스님 50명의 한국사찰순례 과정과 한국불교의 사회복지활동, 청년활동 비구니스님들의 사회활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 꾸며진다.

또한 병원내 법당을 통한 포교와 간병활동을 하고 있는 비구니 스님들에 대해서도 집중 취재를 한다.

이들위해 NHK TV는 지난 5일 동국대불교학생회를 시작으로 사전촬영에 들어갔다. 사전촬영은 △6일 정목스님 인터뷰와 거룩한 만남 성금전달 △7일 삼전복지관, 조계사 △8일 불교 TV, 동덕여고 불교반 △9일 진관사, 서울중앙병원 법당 △10일 중앙승가대 △11일 삼전복지관, 중앙병원법당 △12일 삼성의료원법당 조계사앞 불교용품상회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취재과정에서 제작진은 특히 한국불교의 사회활동에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다. NHK TV의 담당 프로듀서 닛津木健 부부장은 "한국 불교의 제반 활동현황을 취재하면서 주로 사회활동과 비구니스님들의 활약상을 소개함으로 생동감있는 한국불교를 일본에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작팀은 사전촬영을 마치고 18일부터 3일간은 일본비구니스님들의 병원법당과 고찰순례 일정 모두를 취재할 계획이다.

NHK TV의 한 관계자는 "이 대형다큐멘터리는 아시아 각국의 정신적인 문화를 집중조명해 일본 지역의 문화의식을 세계적인 안목으로 키우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한국의 정신문화는 불교에서 비롯되고 불교의 활동상이 미래지향적이란데 매우 크게 교감하고 있다"고 기획의도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 제작되는 「비구니스님 50명 한국을 가다」는 우선 5월1일 국내에 방송된다. 이후 5월중 또 한번 위성으로 방송 세계 각국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게 NHK측의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NHK가 한국불교를 내용으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한다. 사진은 정목스님 인터뷰 장면.

불방 사태 대책회의

불교방송 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조계종 총무원 회의실에서 제1차 대책회의를 갖고 PD협 성명서와 관련하여 징계를 재촉구하고 조계종 소속승려의 방송출연 및 협찬을 일체 금지키로한 조계종 종회결의 사항을 관련사찰 및 스님들에게 통보키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책위는 지난 3일 불교방송에서 1차실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4일 불교방송의 진흥원 이사들과 특별간담회를 갖고 종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고 양측의 의견을 조율했다.

전불련 불방사태 성명

전국불교운동연합(상임의장 지선스님)은 지난 4일 '불교방송 개혁 및 불교신문사 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을 밝히고 "불교방송과 불교신문사의 문제가 지나치게 이해관계에 따라 처리되려 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불련은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우려한 바와같이 진행된다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부처님오신날 특집편성

불교텔레비전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1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 평일 12시간, 주말 14시간 특집방송한다.

부처님오신날 특집 주요 평일 프로는 특선만화 '우리들의 부처님' '달라이라마의 가르침' '내마음의 연등 하나' '엘리어트의 부처님 이야기' '부처님께 드리는 편지' 등.

특히 5월7일 부처님오신날에는 오전10시 봉축법요식을 시작으로 '특집, 봉축합니다' '2539년의 발원' '부처님오신날 기념 설법' '열반의 언덕' '세계의 부처님오신날' '밝은 빛 온누리에' 특집토론 '부처님 품안 건강한 가정' 등이 14시간 방송된다.

교통통신원 수계법회

불교방송 교통통신원 수계법회가 오는 19일 오후3시 3층 대법당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정락스님을 법사로 회원 1백여명이 수계를 받는다.

교육방송살리기 모임

불교언론대책위등 종교계·교육계 11개 시민단체는 지난 6일 조계사 산중다원에서 '교육방송살리기 연대모임'을 결성하고 공보처를 방문, 교육방송을 독립공사화하여 독자적 운영을 보장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컨버터 생산부진업체 제재"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지난 3일 "오는 5월1일부터 케이블TV의 유료화에 차질을 주는 생산실적 부진 컨버터 제작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독신청: 737-8881

법화종 총무원장 김대호스님 선출

7월초 취임식 봉행



대한불교 법화종 제14대 총무원장에 김대호스님이 선출됐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금파)는 지난 3일 25명의 종회의원이 참석한 제54회 중앙종회에서 차기 총무원장으로 김대호스님을 선출하고 오는 7월초에 취임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이날 대호스님은 "종단의 승풍진작과 위상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교육사업(강원설립),의료사업, 사회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창립 18년 기념법회

천태종 삼룡사

천태종 서울 삼룡사(주지 김경천)는 지난달 26일 전운덕 총무원장, 박형철 참위원장등 종도 5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창립1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기념법회에서 총무원장 전운덕스님은 법어를 통해 "모든 종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종지, 종풍 선양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글법요집 출판법회

태고종 백련사 반야회

태고종 백련사 반야회(지도법사 무불스님)는 지난 4일 사부대중 2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한글법요집 출판기념법회 및 천도재를 봉행했다.

이날 출판된 한글법요집에는 천수경,예불문,기도문을 비롯 방생,천도,화혼의식등이 알기쉽게 번역됐다. 무불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불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글의식 보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평

KBS 1일방영 '역사의 라이벌 원효와 의상'

화엄전법 소상 정리…원효묘사 신빙성있는 자료 제시 부족

KBS가 지난 1일 방영한 「역사의 라이벌, 원효와 의상」은 원효와 의상이라는 두 고승의 사상과 행적을 소상히 밝혀보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허점을 보였다.

의상의 화엄전법에 대한 부분은 비교적 잘 정리되었지만 원효와 관련한 부분은 오류가 많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프로그램의 초반에 원효는 현장의 '유식'을 의상은 지엄의 '화엄'을 배우기 위해 당나라로의 장정에 올랐다가 한 사람은 도중에 오도(悟道)하여 되돌아오고 한 사람은 입당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 장면은 〈송고승전〉의 기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송고승전〉이 갖는 허구성은 체크가 안됐던 것 같다.

의상은 26세때 요동까지 갔다가 되돌아 온 11년 뒤 의상 37세에 혼로 배편으로 입당했다고 적고있다. 〈송고승전〉은 또 「금강삼매경론」을 원효의 대표서인양 적고 있지만 원효우선 두 스님의 입당 시기를 원효 52세, 의상 44세로 잡을 경우는 이미 현장도 지엄도 입멸한 뒤가 된다는 점이다. 〈삼국유사〉에서는 의상의 부석사비에 의거 원효는 34세, 서당비에는 「십문화쟁론」을 무려 4행 「화엄경소」를 1행 안배했을뿐 「금강삼매경론」은 보이지 않는다.

또 원효의 오도에 대해 중국의 현존 기록들은 고총(해골바가지)의 기연으로 밝히고 있지만 「서당비문」〈삼국유사〉는 "나면서부터 도를 알고 스승을 따라 배우지 않은 보살의 후신"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미묘부분이 있지만 「원효성사비문」은 원효의 생애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 비문에는 요석공주와의 인연설화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여인이 세번 절하려 했지만 천신이 막았으니…"등으로 원효가 애욕을 초월한 성인임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삼국유사〉에서도 일연(一然)은 시골에 떠다니는 이야기로 요석공주 관련부분을 정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외에도 원효가 낙산사에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한 것등도 새로운 의미부여가 필요할 것이다.

아무튼 이 드라마는 원효에 대한 묘사는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사료에 의거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또 원효와 의상을 과연 라이벌로 볼 수 있는가도 생각해 볼 문제다.

〈심재열 · 원효사상 연구소 소장〉

해외통신

미주 불교방송 개국1년 강연성황



미주한국불교방송(이사장 정산)이 개국 1주년을 맞아 개최한 '불교사상대강연회'가 지난달 24일 오후 LA 래리슨윌셔플호텔에서 5백여 한인불자들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이날 '불교에서 본 세계와 인생'을 주제로 강연한 권교수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인생은 결코 다음의 생을 준비하는 연습이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삶의 본질적인 것에 대한 올바른 지혜를 찾아서 개개인의 인생철학, 삶의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동기박사는 부처님의 '아나파나 사티' 호흡법(들숨은 짧게 날숨은 길게 하는 호흡)과 사념처(四念處: 身·受·心·法) 수행법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닦으면 평안을 찾을 수 있으며 또 그 평안을 오랫동안 유지해 행복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동기박사는 보시와 자비의 실천운동, 부부간의 믿음과 충만한 사랑, 음주절제및 마약근절등 오계를 삶속에서 실현하면 삶의 긍지와 보람등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히로시마 원폭 50주년 콘서트 열려

〈히로시마, 원폭피해 50주년을 맞이하여〉라는 주제로 째즈와 록 콘서트가 3월17일 일본의 히로시마 후루야마 예술문화홀에서 열렸다.

대곡파(大谷派)에서 주관하여 〈평화 콘서트, 함께 살아가는 세계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작년 10월에 열린 이후 두번째의 무대였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대곡파의 젊은 스님들이 모든 밴드의 멤버로 참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오는 7월15일에는 8월에 행해질 원폭피해 50주년 법요(히로시마, 만경사)에 앞서 3회공연이 개최될 예정이다.

정토종 고베지진 희생추모 천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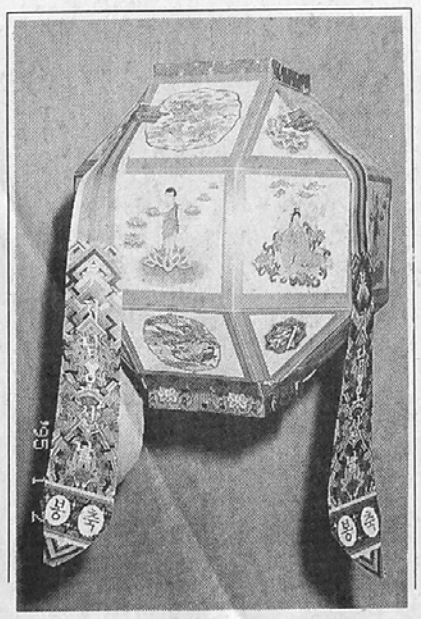
3월6일 오후 정토종 총본산 지은원에서는 고베시 남부지진의 희생자 49재를 맞이하여 희생자의 천도를 기원하는 합동천도재가 열렸다.

이날 천도재에서는 나카무라 주지스님이 집전한 법요에 앞서 일본제일의 종이라 알려진 경내의 범종 타종식도 함께 행해졌다.

일본은 고베시 남부지진으로 5천4백여명의 희생자를 낳았는데 그 가운데 정토종의 신도는 305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홍법팔각등

풀칠이 필요 없는 팔각등



■ 조립이 편리한 등
—풀칠 없이 2분 완성

■ 전통의 단청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

■ 행사 수일 전부터 봉축 분위기 장엄
—특수 이중합지 방식
—이슬 방지 처리

■ 운반 및 보관 편리
—재사용 가능

■ 경제적인 가격
—650원 (1개당)

■ 봉축행사용품 일체
—만불기, 다라니, 연잎, 초 리본, 등표

※ 전국 어디서나 주문시 신속공급합니다.

■ 구입처 : 홍법등 판매총판
■ 전 화 : (02) 763-5214
742-0085

• 컬러판

봉축현수막 제작 보급 안내

불기 2539년 (음)사월초파일 (양) 5월 7일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 봉축현수막 크기 및 보급가격 : 90cm×6 m(₩ 35,000), 90cm×8 m(₩ 45,000)

귀의삼보하옵고
불법홍포와 자비원력의 시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스님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적 축제인 부처님 오신 날에 각사암에 설치하는 현수막은
축제의 장엄물로서 전국민에게 불심을 전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두터운 불심으로 불교전통공예 제작과 보급에만 전념하면서
부처님의 성품을 통하여 다년간 우리의 미래—부처님 품안
포교를 펴고 있는 본 삼전불사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탄생불과 불자의 근본인 삼귀의를 완벽하게 나타낸 현수막을
제작 · 보급하오니 스님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불교전통표구, 각종 불교행사기념품, 사찰인쇄 기획에서 제작까지 저렴하게 하여 드립니다.

三田佛事 圓空 金相吉 合掌

서울特別市 鍾路區 壽松洞 46-19 (원당 B/D 203호)
電話 : (02) 732-6095~6
FAX : (02) 732-6096

2만동문 합심 미래불교 선도

대불련 총동문회 법인구성…전문인력 양성·복지원 활성화 추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명호근)가 활동무대 다지기에 발벗고 나섰다.

35년의 역사와 2만여명의 동문으로 구성된 대불련 총동문회는 사단법인 구성이란 거시적인 구상을 내놓고 오는 16일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대불련 총동문회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갖는다.

대불련 총동문회의 사단법인 설립은 친목단체, 신앙결사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사회참여를 지향하는 단체로 거듭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한 재학생과 졸업생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했던 점과 이념정립의 혼돈으로 인한 각 동문간의 결속력 미비로 구체적이고 명실상부한 엘리트집단으로서의 활동이 미약했다는 인식도 법인설립의 주요한 이유로 비춰진다.

대불련 총동문회 사단법인은 현재 동문회 산하 전문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학술원(원장 오형근)을 5~6년 과정의 전문인력 양성소로 재편성할 방침이다. 또 복지원(이사장 명호근)을 활성화해 양로원 및 고아원, 탁아소, 보건사업 등의 사회복지사업를 전개해 나간다. 뿐만아니라 외국불교단체 및 해외 한인단체와의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대불련 총동문회가 국제화, 세계화에도 일조한다는 구체적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사업전개와 관련 동문회는 세대간의 사고와 기호의 편차가 큰 회원구성을 고려해 회원들에게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다양한 동기를 제공, 세대간의 의견차이를 좁혀 조직력을 강화할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 활동하고 있는 1백여명의 각 종단 스님, 2백여명의 의사, 변호사, 교사, 교수, 불교학생회 지도법사, 사업가 등의 전문인력을 각종 사업의 적재적소에 영입, 전문인력으로서 전문영역 구축에 새 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불련 총동문회의 활동무대 다지기에 대해 교계에서는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며 기대 또한 크다. 대불련 총동문회가 한국불교사에 있어 청년조직의 근간이 되었을 뿐 아니라 엘리트집단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 때문.

대불련 총동문회 사단법인 추진위원회 실무자 신상철씨(사무국장)는 "동문회가 불교단체로서 대 사회적 역할에 충실을 기하며 21세기 불교로 한발 앞서나가기 위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단법인의 조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푸른강산 만들기 식목일을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을 비롯 종단 간부 및 직원들은 의왕시 청계사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통일·환경 자문위 구성

조계종 준비위원장에 서동석 · 유정길씨

조계종 총무원 문화사회부(부장 시현)는 통일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통일자문위원회와 환경전문가로 구성되는 환경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준비위원장에 서동석씨(재가회의 사무국장)와 유정길씨(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를 각각 선임했다.

문사부는 지난 4일 오후 5시 총무원 회의실에서 5개 환경관련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계 환경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모임'을 갖고 초종단적 차원의 환경운동을 위한 환경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이에 앞서 오후 2시에 개최된 통일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단체 모임에는 5개 통일관련단체가 참석, 종단에서 확고한 통일관을 수립 북한연구와 함께 일반불자들에게 교육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럽불자들 부처님 오신뜻 기려

오스트리아·체코등 1천여명 법요식 동참

지난 8일 헝가리 바라밀다사에서

헝가리 잘라스잔토 바라밀다사(주지 법전)가 지난 8일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거행했다.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등 유럽지역 불교신도 1천여명과 설봉스님등 한국의 스님, 신도 34명이 동참한 이날 법요식에서는 한국에서 제작된 부처님의 접안식과 탄생불의 관욕식, 요사채낙성식, 탑돌이등도 함께 거행됐다.

또 한국에서 만든 연꽃 1천5백개로 법당을 장엄하고 동희스님의 나비춤을 비롯한 범패의식이 시현돼 유럽 현지인과 불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불교 15건 접수 처리

문체부 '종교신문고' 운영 1년

문화체육부가 국민들의 건전한 종교활동 조성을 위해 94년 4월4일부터 설치, 운영해온 '종교신문고'가 만 1년을 맞이했다.

1년간 '종교신문고'에 걸려온 총 통화수는 3백9십여건이며, 이중 요건을 갖춘 1백31건은 민원으로 접수·처리됐다.

종교별로는 기독교 51건, 불교 15건, 천주교 3건, 민족종교 18건, 기타 종교일반 내용에 대한 문의 및 건의가 44건이다. 내용별로는 법규제정 및 독립관청 설치와 같은 제언이 특정종교에 빠져 가정불화가 야기된 비리, 헌금유용 등으로 인한 내부분쟁, 종교단체 세금문제 등 종교관련 자료요청 및 문의등 순이다.

낙산사 의상대 복원

6월29일까지 마무리

동해안 최고의 해돋이 명승지이자 관음성지인 낙산사 의상대 복원공사가 지난 1일 착공됐다.

지난해 10월말 기둥이 썩는 등 붕괴우려로 강원도 양양군이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해체한 후, 군은 1억8천8백만원을 들여 낙산사 의상대와 주변환경 조성을 위한 복원공사를 1일 착공, 6월29일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도심사찰 인근도로 일시주차 허용키로

서울시는 오는 5월부터 종교의식시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장애 해소를 위해 대형 종교시설주변도로에 일정 시간대별로 일시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사찰(11), 교회(1백43), 성당(29) 등 1백83개 대형종교시설을 교통장애지역으로 선정하고 종교시설 인근 2백6군데에 5천4백여대가 일시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강남 봉은사, 종로 법련사 법륜사 선학원 침보사 승가사 조계사, 노원 무진법장사, 강서 용천사, 서초 능인선원 구룡사 등이 일요법회나 각종행사 때 사찰 인근지역에 일시주차가 이루어지게 됐다.

한편 서울시는 교통기획과 관계자는 "앞으로 계속 관할 구청에서 증교시설 일시주차 신청을 받아 종교행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대불련 20주년

13일 대행스님 초청법회

대불련총동문회 대전교구(회장 송성선)는 오는 13일 오후 7시 대전시민회관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한다.

대행스님(한마음선원장)을 법사로 모시는 이날 법회는 7백여 동문회원과 2백여 재학생 회원들의 유기적 관계 진작과 수행정진을 위해 마련된다.

불교시민단체협의회 출범

상임대표에 법타스님

불교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법타스님·이하 불민협)는 지난 1일 오후 3시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불교정토 구현을 내외에 천명했다.

이날 불민협은 초대 상임대표로 법타스님을 선출하고 대사회 불교사업을 적극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인터뷰 4면〉

앞으로 불민협은 공동사무실 운영, 통일행사 사업, 가입단체 활동의 연대지원 사업, 사안별 불민협 공동행사 주최 등의 사업을 통해 경제, 통일, 환경, 사회복지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게 된다.

금년 1월부터 모두 8차례의 회의과정을 거쳐 이날 출범하게 된 불민협은 공추불, 경불련, 보리방송 모니터회, 불교간병인협회, 자비의 전화, 평불협, 한국불교청년회, 한국불교 환경교육원, 한마음 불자회 후원회, 가락불교청년회, 불교자원봉사 연합회등 11개 단체가 가입했다.

환경잔치 20여단체 참가

석왕사·경불련등…6월 3·4일 조계사

조계사 석왕사와 한국불교환경교육원 경불련 등 사찰을 비롯한 불교계 2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불자환경큰잔치'가 오는 6월 3,4일 이틀동안 조계사와 인근 수송공원에서 펼쳐진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31일 자비의 전화 강의실에서 준비모임을 갖고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행사 일자와 장소가 확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교계의 단체가 함께 모여 환경행사를 치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조계사 청년회 한국불교문화원 등은 이 기간중 실시할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모든 행사는 참가단체에 의해서 기획 실시된다. 집행위원회(765-6324 불교환경교육원)는 교계단체의 참여를 넓히기 위해 15일까지 참가접수를 받기로 했다.

등록금 차등·예고제

동국대 국내 첫 실시

조계종립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96학년도부터 전 학과에 걸쳐 등록금 차등제와 예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내처음으로 동국대가 실시하는 등록금 차등제는 계열별, 수강신청학점, 과목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적용하며 입학시 4년간 등록금을 사전 예고해 선납할 경우 은행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해 줄 방침이다.

선원사 복원불사 봉행

지난 2일 아미타불 봉안식도

고려팔만대장경이 조성됐던 강화도 선원사(주지 성원스님) 복원불사 및 아미타삼존불 봉안식이 지난 2일 사대부중 1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거행됐다.

선원사는 옛전통양식으로 5월부터 복원불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종단·사찰토지 명의신탁 고유목적에만 인정

재정경제원 입법예고

종단과 그에 소속된 개별 사찰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과 종단 및 사찰이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농지(농지에 정착된 건축물 포함)에 대해서는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4일 이같은 종교단체의 실명전환 예외범위 등을 규정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제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농지 이외의 대지나 임야 등은 실명등기를 해야한다. 또 개인과 종단·사찰 사이에 이루어진 명의신탁 부동산도 모두 실명전환 해야하며, 법 시행 이후에는 신규로 명의신탁을 할 수 없다.

경주 東大병원 최순미씨 사후장기기증 '3명 새삶'

젊은 불자 최순미씨(24세)의 사후 장기기증으로 지난 5일 심장판막과 각막 2구가 서울중앙병원 장기이식프로그램팀에 의해 대기중이던 환자 3명에게 이식됐다.

생명공양실천본부의 주선으로 진행된 이번 사후장기기증은 지난달 31일 경주 동국대부속병원 방사선과 간호사로 근무중이던 최순미씨가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져 서울 중앙병원으로 옮겼으나 뇌사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해 이루어졌다.

경주동국대병원에서 근무하며 독실한 불교활동을 해온 최씨는 그동안 직장동료들을 비롯 가족들에게까지 생명공양 실천본부에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초파일 봉축 책자 발행

조계종 봉축위원회는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참다운 불자상을 구현하기 위한 초파일 봉축 홍보책자를 발행했다.

홍보책자에는 부처님 탄생의 의미, 신행혁신과 깨달음의 사회화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으며, 특히 참회, 발원 및 이웃을 위한 발원 등에 대한 등공양의 새로운 제안이 수록되어 있다.

4×6배판 20쪽, 권당 400원에 보급.

구입문의는 조계종 포교원, 전화 720-7060~4.

묘법연화경등 4건 보물지정

문화체육부는 지난 3일 조선 세조 11년(1465)에 간행된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권상 1의2 권하 1의1~2의2를 보물 제1219호, 조선 세조 9년(1463)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묘법연화경' 권 5와 6은 보물 제1010호로 지정하는 등 4건의 보물을 새로 지정했다.

일산 신도시 포교당 개원

통도사 일산 신도시 탄현포교당 원각사(주지 명덕스님)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대법당에서 개원법회를 열고 신도시 포교의 새 장을 연다.

1백60여평 규모의 원각사는 대법당 외에도 요사채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원각사는 지난달 30일 인근에 선재·룸비니 유치원을 개원하고 어린이 포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부회장 7명으로 확대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스님)는 지난 3일 회장단 및 정관개정소위원회를 열고 △정관개정 △봉축행사 지원 △5월 북경 불교대회를 안건으로 회의를 가졌다.

이날 정관개정소위원회는 △부회장 7명 확대 △상임이사제 폐지 및 5대종단 부장급에서 실무이사 선임, 실무이사중 사무총장 선출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안에 합의하고 추후 열리는 총회에 상정 인준을 얻기로 했다.

금정산 살리기운동 전개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고재연)가 지난 9일 「금정산 살리기운동」을 전개, 청정환경 파수꾼으로 나섰다. 이날 행사는 금정산 훼손사례 고발 사진촬영대회, 쓰레기봉투 배포 및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오물수거작업 등이 조직적으로 펼쳐졌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는 금정산훼손 고발사례를 기초로한 '금정산살리기운동'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봉축의견서' 위원회에 제출

대한불교청년회 서울지구(회장 김규범)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지난달 28일 봉축행사의 장소와 시간을 "동대문운동장과 일요일 오후시간대로 변경하고, 봉축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불기 2539년 봉축행사에 대한 의견서'를 봉축위원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행사장인 여의도광장 선정과 토요일 오후시간대에 있어 교통혼잡, 전구간 지하철공사로 인한 위험등의 이유를 들어 부적절하다고 지적, 일요일 오후 동대문운동장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한편 봉축위는 관련 업무가 추진되고 있어 봉축법요식 장소변경이 어렵다고 밝혔다.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기념 금강경 특별제작

봉 불자님들에게 한정 수량 특별 보급합니다 축

금강경 10폭 병풍



▶ 전면 (빛색공단에 金書)

▲후면(진품연화도)

※ 참조 : 후면에 석가세존일대기 (팔상록)을 원하시면 꾸며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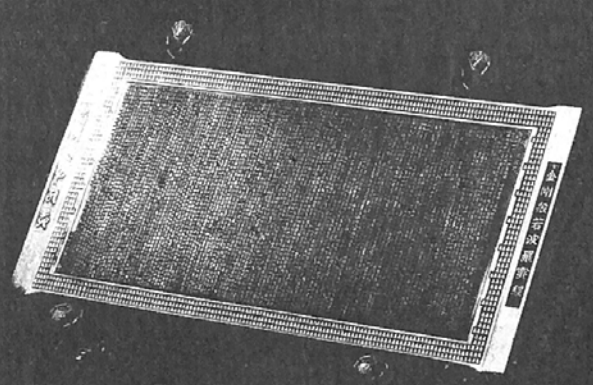
전면 원력높은 스님께서 사경하신 금강경을 영인본 金書로 조성하였습니다.

후면 국전작가 재가불자 화백의 연화도 진품

· 높이 : 5자 8치(175.8Cm)
· 폭 : 14자 5치(439.5Cm)
· 재질 : 스기목, 앙면비단, 스모사 특후지

■ 포교가격 ₩ 490,000

祕經 천불금강경 경판



※ 경판테두리에 부처님 천 분을 입체조각으로 조성하고 가운데 금강경을 양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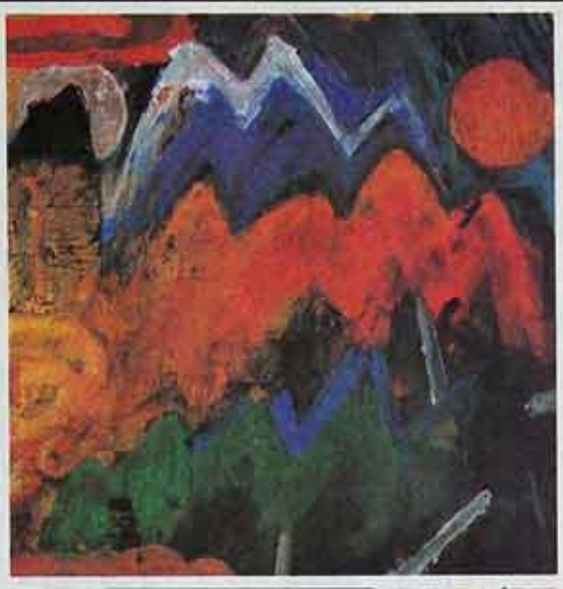
· 경판규격 : 505×255×8(m/m) · 재질 : 주석(99.9%) 순금(24K) 양표면처리 ■ 특별가격 ₩ 480,000

(클로버써비스)전화 080-023-1101, 지방에 계신분은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클로버써비스 전화를 이용하세요.

불교전통불화공예연구원
기획 제작 三田佛事
(조계사 후문)
■문의처 : (02)732-6095~6

불교전통표구, 각종 불교행사기념품, 사찰인쇄, 기획에서 제작까지 저렴하게 하여 드립니다.

수미산



그림이 있는 불교에세이

보살 눈에 보살 보이고 중생 눈에…

Y대학교 교회의 종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범종의 모양과 똑같이 설계한 후 외장 문양을 기독교적으로 도안하여 제작하는 것을 경험한지 20여년이 지났다.

최근 나는 기독교인의 장례의식 현장에서 들리는 불교의 염불 소리를 듣고 무척 놀란적이 있다. 그런데 그 염불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 불교의 염불 곡조에다 기독교식 구원의 내용을 담은 한국적(?) 찬송가 였다.

불보살을 항상 그리는 나의 입장에서 한가닥 의문이 생기기 시작 한지도 꽤 오래된 듯 싶다. 그 의문은 중국 당나라의 부처는 어떻게 생겼고, 조선시대 보살은 어떤 모습 이었고, 대한민국 보살은 어떻게 생겼더냐는 것이다. 아, 누가 본사람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라. 보살 눈에 보살 보이고 중생 눈엔 중생만 보이나 보다.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말고 표현하려고 하자.

문수보살의 지혜와 열성으로, 관음보살의 자비와 냉철한 눈을 통하여, 현생은 언제 끝이나며 명부는 어디에 있으며 수미산은 어디에 있는가. 현생과 명부가 따로없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이 수미산이 아닐까?

손연칠 (동국대 미술과 교수)

뒷산 울창한 숲에서 ③(끝)

주부신행담

부처님 법은 오랜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해답에 되는 것은 아니었다.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아니 내 오랜 수행이 일시에 무너지는 참담함이었다. 이제서야 비로소 그토록 이해되지 않았던 스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있었다.

'주인공' 내가 진정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주인공'이었다. 그러나 내 앞에 닥쳐온 현실이 주인공을 찾을 여유를 주지 않았다.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가는 남편은 자신의 구도자로서의 모습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너무나도 의연하고 평온한 얼굴로 생을 정리하고 있었다. 머지않아 색신을 벗게 될 시기에 스님을 만나게 될 남편, 정법을 배우고 익혀 생사가 둘이 아님을 깨닫고 지극히 공온한 얼굴을 한 남편을 보니 엄숙하기까지 했다.

그때 나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인즉슨 "호젓한 곳에 홀로 남겨놓고 가는 당신 생각은 조금도 걸림이 없소. 다만 내 한 발이 부처님 집에 들어갔으나 남은 한 발이 문지방을 못 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고 하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또 다시 숨막힐 듯한 고요한 순간이 왔다. "이제 부처님 곁으로 편안히 가세요"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이 전부였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아니야, 자연으로! 지수화풍(地水火風)으로…"라고 외치며 숨을 거두었다. 남편은 끝까지 내게 올바른 법을 몸소 실천으로 심어주고 그렇게 내곁을 떠났다.

이제부터 나는 홀로 일어서야 했다. 길잡이였던 그는 반려자로서, 스승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떠난 것이다. 남편은 가고 산속 외딴집에 홀로 남아 어떻게 마감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니 너무 막막했다.

나는 홀로 일어서야 했다. 만생만물이 하나임을 체험하는 순간 생명력이 내게 전해져 오면서 환희심이 내안에서 일었다.



남편의 영전에 향을 사르고 홀로 앉아 외로움을 달래 보았지만 마음의 안정은 커녕 뒷곁에 울창한 상수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칠흑같은 어둠속에 퍼붓는 소나비 소리와 비바람에 흔들거리는 창문소리가 나를 힘들고 두렵게 만들었다.

특히 한밤중 연탄을 갈기 위해 뒷문을 나서면 뒷산에서 푸드득 산짐승들 놀래 뛰는 소리며 우뚝 서있는 상수리 나무가 검은 옷을 입은 큰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아 보여 머리칼이 쭈뼛쭈뼛 서기까지 했다.

석양이 기울고 자녀노음이 물들면 뜰 앞 호수 쪽에서 남편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환영을 보며 외로움과 공포심에 떨었다. 나는 그때마다 지긋이 눈을 감고 정좌를 하며 지난날 '경'을 읽기만 해온 수행이 아무런 힘이 못된다는 것과, 남편과 자식, 아니 이 세상 그 누구도 나 대신 살아줄 수 없음을 알게 됐다. 오로지 내 문제는 나 자신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았을 때 이미 나는 혼자였다.

이 어려운 혼자만의 길을 극복하는 길은 스님의 법에 의지해 '자성본래불'을 찾기 위해 정진하는 길임을 어렴풋이나마 확신하게 되었다. 결국 진정한 수행은 '경'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는 것이었다.

스님께서는 "모든 것을 둘로 보지말고 하나로 보아라. 공포심을 주는 것은 누구고 공포심에 떠는 것은 누구인가를 살피면서 관하라. 내 마음은 자가 발전소와 같아 그곳에서 무엇이든 필요한 만큼 발전해 쓰면 되는데 누구를 의지하랴. 찰나찰나 닥쳐오는 현실 문제는 부조건 주인공에 맡겨 놓으면 그 자리에서 다 해결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마음속 깊이 새겨 다지고 또 다지며 뜸나는 대로 여러 분들에 묻고 또 물어 '의정'을 품고 그 뜻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신심을 쌓아갔다. 차를 놓고 한 생각 돌리니 이제는 먼저 간 남편이 보여도 나와 둘이 아닌 까닭에 두려움이 없어졌고 오히려 남편의 체취가 늘 내곁에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나는 이제 안정을 찾고 알찬 여생을 마무리해 가며 만생만물이 하나임을 깨닫게 되었다. 뒷산의 울창한 나무와 숲, 찔레꽃과 아카시아꽃의 기품있는 향기, 앞뜰에서 그 왕성한 생명력을 과시하는 주목의 힘찬 새싹들, 화려함을 자랑하는 작약, 품위있는 난초꽃, 고상한 케이지꽃, 풍성한 철도화를 보며 눈부신 생명력의 도량을 느낀다. 그 생명력과 내가 하나임을 느끼는 순간, 그 힘이 나에게 전해져 옴을 체험한다. 생동감이 넘쳐 흐르고 환희심이 난다.

이 모든 일상, 이 모든 기쁨을 알게 해 주신 내 남편과 스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박문수행 (천안 흑성산 천원생활사)

영어로 배우는 경전 선생경 ⑬

A master ministers to his servants and employees as the nadir in five ways, by assigning them work according to their capacity and strength, by supplying them with food and wages, by tending them in sickness, by sharing with them unusual delicasies, and by giving them leave and gifts at suitable times.

In these ways ministered to by their master, servants and employees love their master in five ways. They wake up before him. They go to bed after him. They take what is given to them. They do their work well. They speak well of him and give him a good reputation.

주인은 하인과 고용인을 다섯가지 방법으로써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능력과 힘에 맞는 일을 부과함으로써, 음식과 급료를 줌으로써, 아플 때 보살펴 주고 세심한 배려를 해 줌으로써, 적당한 때에 휴가와 선물을 줌으로써.

주인에게 이렇게 봉사받은 하인과 고용인은 다섯가지 방법으로 주인을 사랑한다. 그들은 주인보다 먼저 일어난다. 그들은 주인보다 늦게 잠자리에 든다. 그들은 주는 것만 취한다. 그들은 자기 일을 잘한다. 그들은 그를 칭찬하고 그의 명판을 좋게한다.

A member of a family should minister to recluses and brahmins as the zenith in five ways, by affectionate acts, by affectionate words, by affectionate thoughts, by keeping open house for them, by supplying them with their wordly needs.

재가자는 수도자나 브라만에게 다섯가지 방법으로써 공경하며 봉사해야 한다. 사랑이 담긴 행동으로써, 따뜻한 말로써, 애정이 넘치는 생각으로써, 그들을 위해 집을 개방함으로써, 그들이 말로써 요구하는 것을 줌으로써.

〈박미영 기자〉

깨우친 목석보다는
자비심 있는 중생이 더 아름답다.

한마음 요전
대행스님 구도행장 · 법어집
· 목숨을 건 십여 년의 처절한 구도행장
· 장경의 숲을 가로지르는 명쾌한 법어
대행스님께서는 '말'속에 '장경' 속에 갇힌 불법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불법은 곧 삶이요, 삶은 곧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 기획 · 편집 : 한마음선원
· 제작 · 보급 : 도서출판 여시아문
☎ 02)737-0695

영탑 공원 준공식 및
대행 스님 제주 대법회



초대합니다

육신을 섬기며 사는 사람을 중생이라 하고
마음 법에 의해 사는 사람을 부처라 한다
—대행스님 법어 중에서—

자성 삼보에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금번 참다운 효심으로 조상님을 바르게 모실 수 있는 영탑 공원을
조성하여 감사한 마음을 회향코자 대행스님의 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둘이 아니며, 조상님들의 마음과도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게 될 더욱 뜻깊은 법연이 되리라 생각하며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원장 혜묘 • 신도회장 문경행 합장

■ 일시 : 불기 2539년 4월 23일 (일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 주최 :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 전화 : (064) 21-4662